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방향
2. 연구문제

공 백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방향

다른 계층에 비해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되거나 통제해야 할 주요 계층으로 인식되어 온 것 같다.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된 발달심리학이나 사회학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관련하여 가장 주된 연구주제가 ‘청소년 문제행동’이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청소년’하면 관성적으로 ‘문제’라는 용어가 자동적으로 회상될 정도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은 인간발달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발달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층은 ‘문제의 집단’ 혹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고, 그로 인해 청소년은 통제의 대상으로 낙인되어 온갖 마녀사냥의 덫에 걸려 있다.

“요즘 애들(청소년)이 왜 이래” 혹은 “요즘 애들은 문제 있어”라는 식의 문제의식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늘 존재해 왔던 것 같다. 그리고 이때 ‘애들’은 성인을 제외한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성인과 발달상으로나 지위상으로 바로 바로 아래에 인접한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대 희랍의 소크라테스도 ‘요즘 애들 문제 있어’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니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동서를 막론하고 그 역사가 꽤나 길었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히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라고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문제행동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고, 그 발생원인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가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들을 먼저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들이 문제 있다는 문제인식이 발생하는 이유가 정말로 요

즘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그 자체가 과거에 비해 정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요즘 청소년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과거보다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인가? 둘째, 청소년을 포함하여 ‘요즘 애들’이라고 할 때 문제의 대상이 되는 그 요즘 애들은 구체적으로 청소년만을 말하는가 아니면 다른 계층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가?, 셋째, 이렇게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넷째,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요주의 대상이라고 할 때 그 문제에 해당하는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정말 문제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어떠한 요인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가?

이상의 질문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내용 및 주요 연구문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각 질문들이 이 연구에서 어떻게 다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 즉, 요즘 청소년들이 문제 있다는 문제인식이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그 자체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요즘 청소년들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른 때 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인가?” 이 두 질문은 서로 배타적인 성격의 질문들이다 즉, 첫 번째, 질문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면, 두 번째 질문을 부정하는 것이 되며, 두 번째 질문을 긍정하게 되면, 청소년 문제행동 그 자체의 심각정보다는 문제행동을 보는 세대간의 차이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며,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을 부정하게 된다

정말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다른 때보다도 심각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보기 때문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yes나 no로 답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연구는 그 명확한 답을 유보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고려할 연구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현재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행동들은 일부의 범죄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성인들이 문제시하는 행동

들을 포함한다. 그도 그럴 것이 ‘문제행동’이 아닌 ‘청소년 문제행동’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계층에 걸쳐 공통적으로 문제시되는 ‘범죄행동’이외에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특수한 행동들이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청소년 문제행동에는 법이라는 공통적 기준이외에 문제행동을 규정하는 또 다른 사회적, 도덕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행동이 법적 기준이외에 사회적 규범과 가치, 그리고 도덕 및 관습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행동의 범위는 명확하지도 않고, 사회변화에 따라 가변하는 속성을 가진다(정우식, 1986). 이 가변의 속도는 과거보다는 현재에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욱더 빨라질 지도 모르며, 동시에 이와 관련된 세대간의 인식차는 더욱 더 심화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문제행동이 정말 심각해서가 아니라 심각해 보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청소년, 성인들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을 포함하여 ‘요즘 애들’이라고 할 때 문제의 대상이 되는 그 요즘 애들은 구체적으로 청소년만을 말하는가 아니면 다른 계층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가? 앞서 지적하였듯이 요즘 애들이라고 할 때, 요즘 애들이 지칭되는 대상은 청소년이외에도 아동이라는 집단이 해당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인들이 문제삼는 요즘 애들은 주로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동에 비해 특별히 청소년만을 문제삼는 것 같다. 사실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요즘 애들로 지칭된다면 공히 같은 비중으로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따져 보면 아동보다는 청소년에게 통제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에게는 관대한 것이 청소년에게는 가혹하게 통제되는 행동들이 다수 있다. 예컨대, 개인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청소년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거나 피머를 하는 경우, 그리고 복장이 불량한 경우에 많은 제약이 따른

다 그 이유는 그 행동 자체를 성인들이 못마땅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이고, 그에 따라 그들의 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중고등학교 학교규칙을 위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아동들은 머리염색과 피머가 아무런 문제없이 허용되고 복장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이러한 치장이 아동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경우보다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한다. 초등학교 규칙 역시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많은 성인들은 법률적 문제행동 이외에도 다양한 청소년들의 행동을 통제해야 할 논거로서 소위 '미성숙성'을 든다(김종세, 1991). 그렇다면 아동은 청소년에 비해 성숙한 존재란 말인가? 이러한 인식차이는 비단 표현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인들이 문제삼는 요즘 애들이 과연 누구를 집중적으로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렇게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특정계층과는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률적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청소년도 예외 없이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이한 것은 법률적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그 법적 처우가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관대한 반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청소년들의 행동을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행동을 규정하는데 적용되는 이중적 잣대(double standard)는 성인들의 잣대이지 청소년들이 공감하는 잣대는 아니다. 다음의 두발자유화와 관련된 두 가지 대조되는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문제시하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이 누구에 의해서 문제시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청소년의 변>

"학생이기 이전에 우리는 생명체이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어찌 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짐승을 다루듯 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생들이여 이롭시다. 내년에는 우리 후배들에게 뼈를 깎는 고통을 주지 마시다. 두발자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길러져 가는 머리.. 왜 돈주면 서까지 자를까요. 옛 조상들은 머리는 부모님들이 주신거라며 목숨만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우리 조상들에게 일본에게 식민지를 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조상들의 민족얼을 빼앗기 위해... 설사 일제시대때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선생님들도 저희 심정을 이해하신텐데 섭섭합니다.

선생님들도 어린 시절에 머리를 잘려본 적이 있을것이고 그때의 기분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반대를 하심은 왜 이십니까? 그리고 두발자유를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속된 욕설일지라도 우리의 거칠고 마지막 저항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꿀 때입니다. 어른들의 손에서 이끌려갈 시대는 지났습니다. 새로운 세기 21세기의 첫해가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세기의 교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빌게이츠, 스포츠 머리 아니었습니다. 교복도 안 입었습니다. 미국 학생들, 스포츠, 단발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 단결 잘 씹니다. 또한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말할 자유와 인권 침해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나라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아이는 무조건 "네, 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바꿉시다. 이대로 물려서서는 안됩니다.

교육부에서 시시껄렁한 " 학교 별로 토의해서 해결해 나가

라 ” 라는 해결책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꿔 나갑시다 때로는 욕설과 거친 표현들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작은 외침 하나 하나가 모여서 큰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주인이라는 학교에서 무시되는 우리 모습을 보며 속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두발자유화를 실시하라, 토의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라 라는 통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는 제대로 된 토의 한번 안한채 선생님들의 의견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학교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학교를 되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저는 물러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외침으로 두발자유를 이룹시다! 학생들의 힘은 그 어느 힘보다 큼니다.“

<두발자유화를 반대하는 어떤 어른(교장선생님)의 변>

‘ 중 · 고 ‘두발자유화’ 이르다 ’

“새 학기 들어 중 · 고교생들의 ‘두발 자유화’ 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다 학생들은 지난 5월부터 ‘전국 중 · 고등학생연합’ 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두발 제한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고 7만여명이 동참했다. 일부 학부모와 네티즌들도 “시대착오적 일제의 잔재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 며 동조하고 있다

지금 몇몇 시 · 도교육청은 심각한 교실붕괴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두발 자유화라는 이벤트성 시책을 남발하고 있어 안타깝다 아무리 수요자 중심 교육개혁이라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교육시책이 철학적인 바탕이나 교육정책적 차원의 논의나 검토 없이, 가변적인 여론이나 선심성 인기행정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학생들의 머리를 자유화하면 학교에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첫째, 학생들의 두발이 단정치 못하고 흐트러지면 마음이 어수선했고 행동 또한 비뚤어지게 마련이다. 도를 닦는 사람들이 번거로움을 잊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삭발을 하고, 풀어헤친 귀신의 머리가 음산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내듯, 두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의 교육경험에 따르면, 두발·복장이 단정치 못한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문제아로 전락한 사례가 한둘 아니다.

둘째, 사춘기 학생들이 자기 머리 관리를 위해 쏟는 정신적·시간적·경제적 소모가 지나치게 많아진다. 아울러 이는 주의력을 산만하게 해 학습과 건전한 심성 발전에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

셋째, 두발 자유화는 인기 가수들의 머리형이나 서태지의 대걸레형 빨강 머리가 교정을 휘젓고 다니게 만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끼게 돼, 결국 반사회적이고 부정적인 비행 청소년으로 발전하기 쉽다. 교실은 원색의 난장판으로 물들어, 학생들의 정서 불안과 정신적 해이를 촉발, 교실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이 시점에서 두발규제 완화는 학교별로 자유롭게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전면 자유화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이득보다 폐해가 더 많을 뿐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친다고 해서 원칙이나 생각 없이 이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대화를 통해 설득시키고 교육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

교육시책이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여론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철학과 오랜 경륜,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학생과 국민을 선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이 어느 교육감의 임기를 빛내주는 방편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학생을 시행착오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상의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 직면하여 본 연구자는 각각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하는 목적은 같은 문제에 대해 청소년과 성인들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청소년 문제로 여겨지는 행동들 중 상당수에 대해 그것을 문제행동이라고 규정하는데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고성혜, 1995), 그 관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문제의 범주로 인식되고 대부분의 규범적 문제행동들을 문제삼고 있는 집단은 주로 성인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성인들이 문제삼고 있고 선행연구에서 아무런 성찰 없이 문제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범적 문제행동들에 대해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요주의 대상이라고 할 때 그 문제에 해당하는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질문은 세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으로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규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로서 30년 전의 연구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인식되었던 것을 현재의 연구에서도 그대로 문제행동으로 취급하고 있다 앞서 밝힌바 있듯이 청소년 문제행동은 규범적으로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규범이 변화함에 따라 그 문제행동의 범주도 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행동들은 별로 변화된 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으로 현재 무엇이 문제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정말 문제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들이 있다

면, 그것들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어떠한 요인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가? 사실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청소년 문제행동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가와 청소년문제행동을 통제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청소년문제행동이라는 광범위한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또한 그 범주들에 속한 행동들의 속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다루어 왔다는 것이다. 청소년 문제행동을 분류함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이 취해온 방식은 그 행동이 지위와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이냐, 그리고 비행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비행을 중한 비행과 경한 비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서지혜, 2000).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슨 기준으로 특정 비행을 중한 것으로 혹은 경한 것으로 분류하느냐이다. 이 역시 연구자들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었다. 경범죄는 경범죄라고 칭하고 인식함으로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 결국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초질서가 엉망이라는 한탄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마찬가지로 특정의 청소년 문제행동을 경비행으로 분류함으로서 다른 문제행동에 비해 특정 문제행동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중/경비행으로 분류하려면, 행동의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의도와 그 행동이 가져올 잠재적 심각성까지를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과 대책을 경험적 방법을 동원하여 밝힘에 앞서 대상 문제행동의 속성을 좀더 면밀히 밝히고, 그 속성별로 문제행동의 원인과 대책을 밝힐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의 분류는 문제의 심각성 수준이나 행위자의 발달적 지위를 중심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각 문제행동의 속성별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문제행동의 원인과 대책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논지이다. 물론 선행연구들 중 청소년 문제행동을 속성별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본 연구를 통하여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밝혔거나 가정한 문제행동의 발생 원인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시각에서 주로 가정환경과 청소년들의 주 생활무대인 학교의 환경적 특성들을 다루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의 기본가정은 무제의 환경을 통제함으로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기본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도종수 외, 1990) 하지만 이 접근법은 두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환경을 통제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은 현실공간을 떠나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천정웅, 1999). 이 모든 환경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둘째, 청소년 환경이 곧바로 청소년 문제로 비화된다는 가정의 문제점이다 문제환경→문제행동의 공식은 그 행위자인 청소년을 마치 black box 영역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한국청소년개발원, 2001)에 의하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그들의 의식, 신념, 가치관이 대부분의 환경과 문제행동간의 관련성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은 환경적 변수이외에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두 가지 요인들이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정도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실시 할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요인을 밝힌 선행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주로 탐구된 개인적 특성변인들은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요인(성, 성적, 거주지, 학교계열 등)과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요인(충동성, 불안, 자아 관련 지각 요인)이 주를 이루어 왔다.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변인들을 다루는 연구들은 매우 흥미있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관행적인 연구풍토는 문제

행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통하여 문제청소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청소년'을 분류해 내고 그들을 낙인(labeling)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컨대, 남자가 여자보다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할 과제로 남아 있고, 이는 결국 청소년의 특정 집단을 낙인 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심리학적 특성요인을 밝힌 선행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 접근법들이 취급한 개인적 특성요인들은 주로 문제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보다는 이미 단순히 심리학에서 개발된 심리학적 개념들을 문제행동에 연결시키는 정도였다. 따라서 문제행동과 관련된 심리학적 요인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요인들을 중심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행동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는데 있어 여러모로 많은 제한점을 가져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행연구들 중에는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요인을 밝히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 문제행동을 통제하는 요인에 관심을 둔 접근법들이 있어 왔다. 이 접근법들의 공통점은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요인을 주로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요인에서 찾는 접근법에 비해 청소년 문제행동의 통제요인을 밝힘으로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그 밝혀진 원인을 통해 우리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함께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 접근법에서 다루어온 청소년 문제행동 통제요인은 다양하나, 그것들은 크게, 타율적 통제요인, 사회적 통제요인, 개인적 통제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타율적 통제요인이란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법이나 권위있는 타자로부터 가해지는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동 통제가 행위자의 의지보다는 행위자의 밖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이 타율적 통제요인은 대부분 행위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적 요인들에

해당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 귀속시켰다. 사회적 통제는 행위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문제행동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타율적 통제와 마찬가지로이지만, 그 통제요인이 행위자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타자와의 사회적 유대(social bond)에 의해 통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Hirschi, 1969). 다시 말하여 문제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문제행동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통제요인이란 타율적 통제나 사회적 통제요인과 같은 타율적 통제요인 이외에 청소년 개인의 법/규범의식, 문제행동에 대한 심각성 인식도 및 문제행동의 발생원인에 대한 해석과 같은 행위자의 개인적 신념, 지각 및 인식이 작용하여 문제행동충동이 통제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제시한 다양한 청소년 문제행동관련 원인들 중에서 주로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각 요인들이 청소년 문제행동과 가지는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규범적 문제행동이 이 연구의 탐구대상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 및 법과 관련된 청소년의 의식은 독립변수의 범주에서 제외하였으며, 학교환경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학교환경이 특별히 이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독립변수에서 제외시켰다.

이상의 변수들을 포함시켜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규범적 문제행동관련 변수들 중 환경적 변수들이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관계를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 문제행동 통제요인으로 가정된 사회적, 개인적 통제요인들이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관련된 요인을 통제하는데 제한이 따르는 환경적 변수들과 상관없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이 가정한 통제요인들이 실제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여전히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행위자 중심 접근법의 가능성과 의의를 진단하기 위함이다

2. 연구문제

이상의 문제제기와 연구방향을 기초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규범적 문제행동으로 분류되어 왔던 청소년들의 행동들에 대해 청소년과 성인(부모 및 교사)은 어떠한 인식 차이를 보이며, 그리고 그 인식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는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둘째, 규범적 문제행동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셋째, 규범적 문제행동의 유형별로 그 관련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각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별로 관련요인들이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환경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규범적 문제행동의 사회적·개인적 통제요인 각각은 규범적 문제행동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지는가?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들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식과 대처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공 백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개념과 범위
2.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분류
3.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관련 요인

공 백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선행 이론 및 연구결과들을 앞서 밝힌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별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된 선행 이론 및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선행 이론 및 연구결과들이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를 다시 밝히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으며, 마지막 연구문제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된 세 가지 변수군(인구학적·환경적변수, 문제행동 관련 사회적 통제요인, 문제행동관련 개인적 통제요인)들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지는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연구내용별로 관련 선행 이론 및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개념과 범위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청소년’, ‘규범적’, ‘문제행동’이라는 세 용어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그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행동’의 개념이 정의될 필요가 있으며, 그 제한적 수식어인 ‘청소년’, ‘규범적’이라는 용어의 의미 한계를 역시 살펴보고 그 의미한계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개념과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1) 문제행동과 규범적 문제행동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이라는 합성어의 핵심용어에 해당하는 ‘문제행동’의 의미한계를 정하는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문제행동’의 의미를 단순히 ‘사람들이 문제시하는 행동 목록’ 쪽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정의는 한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치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는 사전적 의미분석에 불과할 뿐이다. 문제행동은 문제행동을 규정(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행동으로 분류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대체로 법률적 기준과 도덕 및 사회규범 기준에 위배되는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문제행동 중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과 도덕 및 사회 규범적으로 문제시되는 행동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은 기본적인 사회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를 가할 목적의 법률적 고려대상에 되는 행동들과, 필요하다면 공권력을 동원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대상행동들을 포함할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문제행동들은 비교적 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이나 조건 그리고 행위자의 지위나 개인적 특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문제시되는 행동들이라는 점과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일정한 사회 내에서 그 행동들을 문제행동으로 분류하는데 있어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예컨대,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는 행동 중에는 비교적 그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과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행동 그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들이 있다. 살인, 강도, 거짓말, 사기, 부정 등은 비교적 문화권과 사회적 지위 혹은 계층 그리고 인간의 발달적 지위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상황과 대상에 대해 문제시되는 행동들로 흔히 범죄로 규정된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은 타인이나 전체사회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해를 입힐 것으로 분명히 우려되는 것들로서 엄격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동시에 그 법적 제재로 인해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의 대상 범위를 지극히 제한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남재봉, 1992). 따라서 여전히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는 범죄이외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시되는 또 다른 다양한 유형의 문제행동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규범적 문제행동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행동의 범위를 설정하고 문제행동을 분류하는 방식과 분류하는 기준에 있어 규범적 문제행동은 법률적 문제행동에 비해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우선 규범적 문제행동은 법률적 문제행동에 비해 문제행동의 범위설정과 분류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용이하지 않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준호, 1989). 이처럼 규범적 문제행동을 문제행동으로 규정하는데 있어 합의가 어렵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규범적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는 행동들 중 상당수의 행동들이 법률적 문제행동처럼 행위 자체나 행위의 결과만을 놓고 행동의 문제성을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문제행동 분류기준과 방식에 있어 법률적 문제행동이 비해 그 분류기준이 다양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적용에 있어 보편성과 항상성을 추구하는 법률과는 달리 사회의 도덕과 가치규범은 문화권과 지역 그리고 행위자의 지위마다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며, 같은 행동이라도 그것을 누가 어떠한 상황(혹은 장소)에서 했느냐에 따라 문제행동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문제삼지 않기도 한다(Hagan et al, 1987) 예컨대, 흡연, 음주, 이성교제, 유흥업소 출입 등과 같은 행동들은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혹은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문제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흡연행동의 문제성 여부와 정도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 예컨대, 우리사회의 경우 성인남자는 실내흡연보다 실외흡연이 더 자유로운 반면, 여성

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실외흡연보다 실내흡연이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는 같은 행동(흡연)이라도 그것을 누가 행하느냐(행위자의 특성 및 지위)와 그 행위가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배경(한국적 문화)에 따라 문제행동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문제시하지 않기도 하는 다중적 문제행동 분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규범적 문제행동은 사회변화와 함께 그 적용 대상 행동 목록과 행위자도 달라지기도 하는 분류의 복잡성을 가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문제행동을 법률적 문제행동과 규범적 문제행동의 특징을 구분하여 비교한 것은 규범적 문제행동이 전혀 문제될 행동이 아니라거나 그것이 법률적 문제행동에 비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덜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규범적 문제행동들 중 일부는 법률적 문제행동보다 더 심각한 문제행동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흡연은 보편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문제이며,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흡연이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문제시된다면 이는 인체에 대한 흡연의 보편적 폐해보다는 흡연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관습 및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규범적 문제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법률적 문제행동이 비교적 모든 대상에게 공평히, 모든 상황에 걸쳐 늘 일관성 있게 문제시되는 비교적 보편적인 문제행동들인 반면, 규범적 문제행동들은 행위의 상황(문화권/장소)과 행위자의 지위(성적/사회적/발달적 지위), 그리고 시대에 따라 행동의 문제성 판단이 달라지는 특수적 문제행동에 해당된다 특히 규범적 문제행동이 행위자의 발달적 지위에 따라 그 문제성 여부가 달리 규정된다는 점은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다루고 있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규범적 문제행동과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앞서 밝힌 바 있듯이 규범적 문제행동은 시대 변화, 문화 및 지역적 특성 그리고 행위자의 지위(성적/사회적/발달적 지위)에 따라 그 문제성 여부가 달라지는 속성을 가진다. 특히 동질적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다원화된 사회와는 달리 규범적 문제행동의 규정에 있어 문화적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과 같은 횡단적 특수성보다는 행위자의 지위적 특성과 상황(장소)이 규범적 문제행동의 문제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로서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사회에는 여자와 남자인 이유로,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인인 이유로 특정 행동이 문제행동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타인이 문제시 할 수 없는 개인적인 독특한 행동이나 집단의 독특한 문화적 현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Cohen, 1955). 사실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들 중 상당수는 일탈행위의 개념과 흡사하여 그것이 문제행동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독특한 청소년의 하위문화현상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 그것이 과연 문제행동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판별하기가 어려운 난점이 있다.

규범적 문제행동은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여성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우에 그 대상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애들이기 때문에”와 같은 수식어가 포함되어 특정행동이 비행이 규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들어 많은 청소년의 행동들을 비행으로 분류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그리고 “학생”이라는 또 다른 제약적 신분 때문에 더욱 더 많은 비행목록에 따라 다니면서 개인적인 생활을 제약하게 된다.

특히 행위자의 발달적 지위(아동, 청소년, 성인)별로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와 문제성 여부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은 일반적인 규범적 문제행동의 개념에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개념을 구분해 내야 하는

본 연구의 관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분류된 청소년 행동의 상당수는 특수적 문제행동들로서 그것이 왜 문제행동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행동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아닌 관찰자(연구자)의 입장에서 논란의 여지없이 문제행동으로 낙인된 행동들이 많다 앞서 밝혔듯이,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는 것들 중에는 그 행동이 본래 문제행동이어서 청소년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행동도 있는가 하면, 단지 그 행동이 청소년이라는 사회적·발달적 신분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행동들도 있다.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 보통 청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을 연상할 정도로 비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넓게 적용되는 용어인데, 청소년비행 중 “지위비행”은 청소년이라는 발달적 신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행동을 주로 지칭하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룬다.¹⁾

전체 청소년 문제행동영역에서 복잡 다양한 분류기준이 적용되는 규범적 문제행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청소년 문제행동을 분류하는 기준은 일정하지 않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분류방식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이 전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치 그리고 범위가 보다 명료해 질 수 있다. Sanders(1981)는 살인, 강간, 강도, 폭행 등 강력범죄와 주거침입, 절도 등을 중한 범죄로, 사소한 절도, 폭행을 형법위반 행위로, 가출이나 무단결성, 음주, 흡연,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 등을 지위비행으로 구분하였으며, 노성호(1992)는 비행을 문제행동과 범죄로 구분하였는데, 문제

1) 청소년 지위비행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지위비행과 같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시되는 행동”과 함께 “청소년에게도 문제시되는 사회규범적 문제행동”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청소년 지위비행의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행동을 지위비행, 즉 음주, 흡연, 출입 금지구역 출입, 가출, 무단결석 등과 같은 행동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정현(1993)은 대인비행, 성비행, 공공질서 비행, 지위비행, 약물사용비행, 재산비행으로 구분하였고, 김선남(1994)은 폭력비행, 성비행, 반항적 비행, 학업비행, 지위비행으로 구분하였으며, 남정자(1990)는 폭력비행, 쾌락비행, 가출비행, 반항비행, 지위비행, 약물비행, 재산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분류방식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청소년 문제행동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파괴하거나 사회질서를 위협하여 법률(주로 형법)에 저촉되는 “反사회적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단지 행위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는 “非사회적 문제행동”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청소년문제행동 분류 방식을 따르자면, ‘청소년 문제행동’은 “청소년들의 행위에 대해서 성인 또는 영향력 있는 집단 혹은 권위있는 자(성인)들이 도덕적, 사회·문화적, 법률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규정해 놓은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중 법률적 측면을 제외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규정된 청소년들의 행동을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영역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를 분류하는 기준이 지극히 성인 중심적이라는 점과 이를 다루는 연구자들 역시 그 성인중심의 가치관에 의존하거나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만 근거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천정웅 외, 2000). 특히 청소년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행동들은 행위의 주체인 청소년의 판단이 배제된 채 성인중심의 가치체계, 도덕관 및 사회관을 주로 반영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의 사회안정과 질서를 중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로서 청소년들이 보이는 특성의 행위를 놓고 그것의 문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찰자인 성인과 행위자인 청소년간에 많은 인식차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성인들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이성교제, 유흥장 출입 등은 비교적 분명히 비행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정작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행동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일부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행동들이 비행이나 아니냐를 논하기 앞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비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0).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성인과 청소년들간의 인식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청소년 문제행동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에 있어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당국과 학생들간에 벌어지는 두발자율화 논쟁이 그러하며,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은 음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이상 이상하다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지위비행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에게는 더 이상 비행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이러한 추세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Kelly, 1983) 이는 분명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표적인 세대간 갈등의 한 단면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가 현재 성인들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 지위비행이 더 이상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대한 기존의 분류체계나 규정방식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행위자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과, 그로 인해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대한 실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졌고, 성인들이 규정한 비행들에 대해 청소년들이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특정 행위가 비행이나 아니냐의 문제를 윤리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은 아니다 다만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개념과 대상 범위가 사회적으로 결정되

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사회 구성원들(청소년, 교사, 학부모)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규범적 문제행동의 현주소를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분류

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분류의 필요성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전체 청소년 문제행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대상범위설정과 분류기준이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성격의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성격의 청소년 규범적 문제행동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영역으로 취급하게 되면, 여러모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실천적 함의를 찾는 데 있어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문제행동의 성격이 다르면, 그 원인과 대책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유형분류체계는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청소년문제행동 대처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유형분류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설명력 있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앞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법률적 문제행동과 규범적 문제행동으로 분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대 분류만으로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원인을 탐색하는데 제한을 가진다. 사실 규범적인 청소년 문제행동들도 그 성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다양한 유형

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다른 문제행동을 성격별로 구분함이 없이 단순히 규범적인 문제행동으로 묶어 그 원인을 찾게 되면, 특정 유형의 문제행동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원인이 전체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그 원인은 특정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취급되지 못하는 판단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유형분류는 규범적 문제행동의 정확한 원인을 탐색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둘째,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성격별로 유형화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규범적 문제행동의 원인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별로 원인을 탐색하게 되면, 그것을 묶어서 원인을 탐색하는 것보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다 많은 관련 요인을 다루게 될 것이고, 문제행동이 그 성격별로 분류되어 그 원인을 탐색하게 되면, 그 원인들은 보다 다양화 될 것이다.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된 원인의 수적 확대와 원인탐색의 다양화를 통하여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성격별로 유형화하게 되면, 각 유형내에 속한 규범적 문제행동들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는 행동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문제행동이 진단되면, 그 것과 같은 유형에 속한 다른 문제행동들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 주며, 개별 행동이 아닌 유형내의 여러 행동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얻을 수도 있다.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행동의 유형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 행동의 발생 원인 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 및 해결접근방식에 대한 정보까지도 함께 알 수 있게 한다.

넷째, 문제행동 유형분류체계는 문제행동이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준다. 즉, 한 유형에 속하는 문제행동을 행한 개

집단의 현재 상태 뿐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및 발전과, 현재의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예측할 게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은 소위 ‘문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즉 문제청소년을 낙인하는(labeling)인식 습관을 완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칭하는 문제청소년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 문제행동을 문제의 성격별로 세부적인 유형 구분을 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문제행동을 그 성격과는 상관없이 그냥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범주화하게 되면, 각기 다른 문제행동을 일으킨 모든 청소년을 통틀어 ‘문제청소년’으로 낙인 하게 된다. 예컨대, 규범적 문제행동의 대표적인 유형인 청소년의 표출행동(거절이 작용/머리염색/화장 등)은 분명 폭력이나 절도 등의 문제행동과는 그 성격면에서 다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동을 통틀어 문제행동으로 취급하게 되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통틀어 ‘불량청소년’ 혹은 ‘문제청소년’으로 취급하는 습관을 익히게 된다. 이러한 낙인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문제청소년’으로 낙인 하게 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은 낙인이 청소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Foster, Dinitz, Reckless, 1972; Jensen, 1972). 특히 규범적 문제행동의 경우 행동의 문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형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문제행동 유형분류체계는 문제행동의 원인, 현상, 예측,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등과 관련된 이론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을 제공한다. 우리가 특정 문제행동을 면밀히 기술하거나 다른 문제행동으로부터 구별할 수 없다면, 그 문제행동에 대해 이해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극히 제한을 받게 된다 어떤 유형의 문제행동을 규정하고 분류

하는 활동은 그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는 선행 사건을 밝히는 연구이고, 결과적으로 그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지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곱째, 문제행동 유형분류체계는 새로운 과학적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정보를 추출, 종합하기 위한 연구, 예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 등과 같이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형화하는 작업은 특정 시기의 각 지역별 청소년의 생활 및 문제를 비교하게 하거나, 한 지역의 청소년의 생활 및 문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도록 한다.

여덟째, 문제행동 분류체계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문제행동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해결접근방식, 예방 및 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 더욱 실효성 있고 적절한 방안의 제시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개별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행동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불가능하거나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반해, 문제행동의 유형별 접근은 더욱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대책 논의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문제행동 유형분류체계는 문제행동을 해결하는 데 이미 사용해 본 방법들이나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상황에서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어떤 문제행동 유형을 구성하는 조건들이 분류되고 각 유형별 문제행동의 발전패턴과 특정한 방법의 효과들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면 앞으로 적용될 해결접근 방식의 종류나 순서 등이 구체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의 분류는 이 분야의 연구가 보다 다양화되고 심화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은 문제행동의 성격에 따라 다양할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 역시 문제행동의 성격에 따라 다변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이 했던 것처럼 청소년 문제행동을 분류하지 않고 ‘문제행동’이라는 전

제 범주만을 고집하거나 일관성 없이 막연한 분류체계에 의존하게 되면, 각 문제행동별로 구체적인 원인을 탐색하거나 각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방안들이 막연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막연하게 반복되는 연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을 분류하고 각 문제행동 유형별로 그 원인과 대책이 탐구되면, 이 분야의 연구는 보다 다양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2) 기존의 문제행동 범위설정과 문제행동 유형화의 접근방식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분류하여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문제행동의 분류는 연구자마다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두드러져 보이고,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문제행동을 분류함에 있어서 경험적 근거가 희박하고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하였다는 점과 청소년 문제행동을 유형별로 분류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행동의 범위설정이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서 연구자마다 연구에서 다룬 문제행동들이 달랐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서 연구결과들을 서로 비교한다거나 문제행동의 원인들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요컨대, 청소년 문제행동 분류에 대한 면밀한 성찰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적용한 대표적인 문제행동의 범주 및 분류방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름 (년도)	유형	하위문제행동
남정자 (1990)	폭력비행	타인에 대한 시비, 금품갈취, 타인구타, 아동구타, 흥기소지
	쾌락비행	여성희롱, 혼성캠핑, 남녀혼숙, 이성과의 성관계, 사창가 출입
	가출비행	무단결석, 가출, 학교로의 부모호출
	반항비행	등록금 유용, 근신경고처분, 정학 또는 퇴학, 부모 및 교사 구타
	지위비행	늦은귀가, 흡연, 음주, 노름, 주먹싸움, 컨닝, 음란비디오보기, 미성년자 불가 영화관람, 술집출입
	약물비행	본드, 신나 사용, 환각제 사용, 마리화나 흡연, 히로뽕 사용
	재산비행	만원이상 물건 절도, 상점물건 훔침
심응철 (1992)	폭력비행	폭력서클 가입, 폭행, 공갈이나 협박, 패싸움, 흥기소지, 공공기물파괴
	성비행	강간, 음란전화, 남녀혼숙, 사창가출입, 이성과의 성관계, 음란비디오 관람, 길가는 여성 희롱, 음란서적 읽기
	지위비행	무단결석, 부모에게 반항, 부모에게 거짓 말하기, 무단가출, 흡연, 음주, 술집출입, 컨닝, 당구장출입, 관람불가 극장 출입, 디스코장 출입
	약물사용비행	환각제나 본드사용
	재산비행	타인물건파손, 주거침입 절도, 금품갈취, 돈내기도박, 만원미만 절도
남재봉 (1992)	폭력비행	부모구타 및 위협, 학생 미성년자 구타 및 위협, 어른·타인 구타, 패싸움, 흥기소지
	성비행	매춘, 강압적 성관계 또는 시도
	질서비행	여성희롱, 음란비디오, 음란전화, 무임승차, 공공장소에서 소란, 노름, 컨닝, 무단결석
	지위비행	담배, 술집에서 음주, 술집 이외에서 음주, 디스코장 출입, 당구장 출입, 관람불가극장 출입, 무단가출
	마약비행	대마초, 환각제, 본드 흡입
	재산비행	장물 - 매매나 보관 손괴 - 가족성원물품 고의적 파손, 학교물품 고의적 파손, 타인 물건 고의적 파손 절도 - 음식, 물건대금 지불안함, 가족의 돈이나 물품 훔치기, 학교에서 타인의 돈 물품 훔치기, 만원 이하 훔치기, 만원 이상 훔치기, 타인의 집 침입 절도

이름 (연도)	유형	하위문제행동
김선남 (1994)	폭력비행	패싸움, 공공기물파괴, 협박, 금품갈취, 타인물건파손
	성비행	강간, 이성희롱, 이성과 성관계
	반항적 비행	무단가출, 부모에게 반항, 선생 또는 웃어른에게 대들기
	학업비행	컨닝, 등록금 유용, 무단결석
	지위비행	담배, 술, 디스코, 다방, 술집, 당구장 출입, 노름, 음란비디오 보기, 음란서적 읽기
김준호 · 박정선 (1993)	지위비행	유홍장 출입, 음주, 흡연
	폭력비행	패싸움, 흥기소지, 뺑뺑기
	재산비행	물건훔치기
	약물비행	본드, 환각제 사용
	성비행	이성과의 성관계
김동일 (1993)	지위비행	흡연, 귀가시간 어기기, 어른에게 반항하기
	폭력비행	패싸움, 공공기물파괴, 폭력행위
	약물비행	가스, 본드 사용
	성비행	음란전화, 음란비디오 관람, 이성과의 성관계
김준호 · 박해광 (1994)	경비행	음주, 흡연, 늦은 귀가, 술집출입
	중비행	등록금 유용, 폭행, 패싸움, 가출, 환각제 복용
	성비행	강간, 사창가 출입, 퇴폐이발관 출입
김준호 · 이동원 (1996a)	지위비행	소주방출입, 컨닝, 학교수업 빼먹기, 가출, 불량싸움을 가입
	폭력비행	패싸움
	재산비행	물건훔치기
	약물비행	흡연, 음주, 본드, 가스, 환각제
	성비행	애인과 성관계, 돈주고 성관계, 강제적 성관계
김준호 · 이동원 (1996b)	지위비행	술마시기, 비디오방가기, 흡연, 성관계
	폭력비행	폭행, 돈뺑기, 폭주족, 자동차손상
	재산비행	물건 훔치기
	도피비행	본드/가스, 환각약품, 가출, 무단결석
송정부 (1992)	폭력적문제행동	흥기소지, 싸움
	성적문제행동	불순이성교제, 남녀혼숙, 부녀희롱
	풍속적문제행동	음주, 흡연, 불건전오락, 유홍장 출입
	퇴행적문제행동	가출, 불량교우, 불량집단가입, 환각물질소지
	금전적문제행동	절도, 도박, 금품탈취

이름 (연도)	유형	하위문제행동
문용린 (1994)	재산형문제행동	부모속임, 절도, 강도, 노름
	폭력형문제행동	전화폭언, 폭행, 흥기소지, 집단싸움, 공공기물파손
	은둔적문제행동	음주, 흡연, 약물복용
	성적 문제행동	사창가출입, 성관계, 음란물 소지
	비열한문제행동	컨닝
고성혜 (1995)	지위비행	밤거리 배회, 유흥업소 출입 및 아르바이트, 음주, 흡연, 가출, 외박, 컨닝, 미팅하기, 엄색, 화장 등
	폭력비행	폭력싸움 가입, 금품갈취, 학생 구타 및 위협, 부모 및 교사 구타 및 위협, 흥기소지, 시비걸기, 공갈 및 협박, 패싸움
	약물비행	본드, 부탄가스, 각성제, 신경안정제, 대마초 사용
	성비행	음란전화, 혼성캠핑, 이성 회통, 이성과의 성관계, 음란서적, 음화소지, 음란비디오 보기
	재산비행	물건훔치기, 지불하지 않고 구매하는 행위, 집안물건 내다팔기, 장물매매행위, 타인의 재물파손, 학교 기물파손, 사회공공기물파손(유리창, 공중전화 등)
	질서비행	오토바이 폭주, 무면허 운전, 타인의 차 운전행위, 기초질서 위반, 검문 불응, 도주, 무임승차, 무단침입,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
박○○ (1987)	지위비행성향	무단결석, 금지구역 출입, 음주, 흡연, 늦은 귀가
	폭력비행 성향	패싸움, 흥기소지, 폭력싸움, 강간, 폭행, 흥기로 타인 상처입히기
	재산비행성향	훔치기, 금품탈취, 절도
	공공질서 비행성향	시험중 부정행위, 부모, 선생님에 대한 반항, 등록금 다른데 쓰기, 도박, 음란물 관람 및 소지, 버스무임승차, 불량복장
	성비행성향	성관계, 혼숙, 사창가 출입
이성용 (1985)	공공질서비행	컨닝, 성관계, 가출, 수업 땡땡이, 무단결석
	피해자 없는 비행	흡연, 음주, 금지장소 출입
	폭력비행	구타, 물건파괴, 협박
	재산비행	절도, 사기
이○○ (1992)	사소한 비행	흡연, 음주, 금지장소 출입, 도박, 음란비디오 시청, 컨닝
	폭력성 비행	구타, 패싸움, 흥기소지, 가출, 약물남용
	재산비행	주거침입, 공공기물파괴, 사적기물 파괴, 친구돈 물건 갈취, 중한 절도, 경한 절도
	성비행	여성회통, 여성추행, 성관계, 혼숙

이름 (년도)	유형	하위문제행동
김성민 (1994)	지위비행	관람불가 영화관람, 금지장소 출입
	대인비행	폭행, 집단 패싸움, 폭력싸움 가입, 흥기소지, 금품 탈취
	재산비행	등록금 유용, 절도, 기물파괴
	공공질서 비행	컨닝, 부모, 교사에 대한 반항, 무단결석, 돈내기도박, 가출
	피해자 없는 비행	음화 및 음란비디오 관람, 이성과의 성관계, 환각제 사용
문○○ (1993)	집단적 비행군	음란서적, 음란비디오 소지 및 관람, 불량교우 접촉, 심한 폭행, 기물 파손, 컨닝, 물건 훔치기, 돈내기 도박
	사소한 문제행동군	오락실 출입, 거짓말하기, 욕하기, 장난전화걸기, 어른에게 대들거나 반항, 귀가시간 어기기
	물질남용 및 외모관련 비행군	요란한 몸치장, 이상한 옷차림, 야한 옷차림, 파마나 염색,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 등
	향락업소출입 및 성관련 비행군	나이트, 록카페 출입, 당구장, 성폭행, 이성과 동거경험, 성관계, 음란전화 걸기
	유흥업소 출입 비행군	호프집, 다방-카페 출입, 패싸움, 돈유용경험
	가족 및 학교 이탈 비행군	수업태만, 무단결석, 외박, 가출
김○○ (1995)	대인비행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패싸움, 흥기소지, 주먹싸움 등
	대물비행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로 공공기물파괴, 절도, 등록금 남용 등
	사회질서 비행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가출, 본드나 마약 흡입, 무단결석, 부모님에게 반항, 답안지 훔쳐 보기 등
	성지위 비행	성관계, 음화나 음란비디오 및 서적 보기, 키스나 포옹, 이성의 물건훔치기 등
	일반지위비행	금지장소 출입, 음주, 흡연, 관람불가 영화 감상, 도박 등
김○○, ○○ (1996)	경비행(지위비행)	음주, 흡연, 금지지역출입, 음란물접촉 등
	중비행	성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등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적용한 대표적인 문제행동의 범주 및 분류방식의 특징과 본 연구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다른 문제행동의 대상범위가 연구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청소년 문제행동 범위설정 기준이 적용되어 그 대상 행동범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차이의 정도가 심하다 위의 표가 보여 주듯이 연구자의 연구관심에 따라 연구대상 문제행동의 수와 범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법률적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는 문제행동에 비해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설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설정이 객관적 기준보다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점과, 규범적 문제행동의 경우 그 성격상 명확한 범위설정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급적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다루어온 청소년 문제행동들 중에는 현재에는 객관자(성인)나 당사자(청소년)모두 혹은 두 부류 중에 어느 한 부류가 문제행동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문제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규범적 문제행동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대상범위가 변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예컨대, 앞의 표 에 제시된 문제행동들 중 청소년들의 표현행위(복장, 두발상태, 장신구 착용 등)에 대한 문제성 판단이 과거와 현재간에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만일 당사자나 객관자 모두 특정 행동이 문제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관습적으로 특정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분류하고 다루고 있다면, 이는 연구자의 편견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많은 규범적

문제행동은 사회적으로 결정되고 그 문제성 여부의 판단이 상황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범위는 연구자의 독단적 판단보다는 경험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들 중 상당수의 것들은 사회현상과 문화의 변천에 따라 혹은 역사적 사건에 따라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는가 하면 단순한 청소년의 독특한 문화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분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같은 행위를 두고 그 분류가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다변화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문제행동의 분류 및 유형화는 정기적인 경험적 검토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청소년 문제행동 연구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다루어온 문제행동들에 대해 실제로 관찰자와 행위자 모두 문제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문제행동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행한 문제행동의 범위와 분류가 지극히 성인중심이고, 연구자 중심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선행 문헌 및 연구들은 특정행위들이 객관자(성인)나 당사자(청소년)에 의해 문제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확인과정 없이 그 이전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문제행동을 토대로 문제행동의 대상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표에서 보여주듯이, 특히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에 속하는 문제행동들은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신분에만 적용되는 것들이 많으며, 문제행동중 상당수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문제행동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 문제행동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계층에 대해서만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다. 만일 특정의 행동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청소년과 객관자인 성인간에 문제성 여부의 판단이 다르다면,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문제행동과 관련된 세대갈등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의 지도와 대처방식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행위의 문제성 여부를 놓고 당사자와 객관자간에 의견불일치가 존재할 때, 본 연구가 어느 편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문제행동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연구는 문제성 여부를 놓고 두 계층 간에 서로 갈등하는 문제행동과 두 계층 모두 합의하는 문제행동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실제로 청소년 문제행동 빈도와 관련되는 방식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 일부 선행연구들이 문제행동을 경험적으로 유형화하고 분류할 때 사용하는 요인분석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문제행동을 유형화하고 분류할 때 요인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요인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된 실제 문제행동 빈도를 분석자료로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방법에 의존하여 문제행동을 유목화 한다는데 있다. 두 가지 행위가 실제의 발생빈도에서 서로 깊은 관련성(합치도)을 가진다고 해서 그 두 가지 행동을 같은 성격의 하나의 문제행동 영역으로 분류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실시하였던 요인분석과 함께 문제행동의 성격과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각 문제행동별 원인들을 유목화하여 문제행동을 분류하는 종합적 분석을 통해 보다 타당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문제행동을 분류할 때 적용한 기준들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서로 다른 분류기준들이 단일차원에서 혼란스럽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표에서 보여주듯이, 연구마다 문제행동 분류영역의 용어가 다르고, 설사 같은 영역들간에도 그 영역에 포함되는 단위행동목록들도 서로 다르다 뿐만 아니라 한 단위연구에서 문제행동을 분류할 때에도 전혀 다른 성격의 분류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문제행동의 분류가 일관성 없고 논리적이지 못한 것은

문제행동을 분류할 때 단일차원에서 서로 그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분류기준들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표 1에서 이 00(1992)와(과) 문 00(1993)이(가) 제시한 문제행동 유형을 살펴보면, 일차원적 분류체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심각성 기준’(경비행, 사소한 비행, 사소한 문제행동군, 중비행 등)과 ‘행동의 성격 기준’(재산비행, 성비행, 폭력비행 등), 그리고 ‘행위자 기준’(지위비행 등)을 무차별적으로 개입시켜 문제행동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마치 길이를 재는데 있어 인치자와 센티미터 자를 혼용하는 것과 같다.

특히 문제행동을 분류함에 있어 행위의 심각성 기준(경비행, 중비행 등)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선행연구에서 행위의 심각성이 연구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근거에서 특정문제행동을 가벼운 것으로 혹은 중한 것으로 분류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반사회에서 흔히 ‘경범죄’로 분류되는 행위들(예컨대, 거리에 담배꽂초 버리기, 침뱉기 질서교란행위 등)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대부분 사회의 기초질서확립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행동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행위들을 가벼운 범죄로 분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행동을 ‘경비행’, ‘중비행’으로 분류하는 인식 자체가 특정 부류의 청소년 문제행동을 가벼운 것으로 보고 다른 행동들은 중히 다스려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특정 행위 발생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일반사회에서 행위의 결과만을 놓고 죄질을 가리지 않듯이, 청소년 문제행동도 그 행동결과만을 놓고 문제의 경중을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을 분류함에 있어서 심각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가 따른다.

이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문제행동을 분류함에 있어 다차원을 적용하고, 각 차원 내에서는 단일한 분류기준을 돕으로서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제행동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3) 새로운 문제행동의 유형화 시도 : 다차원적 문제행동 분류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탐색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범위설정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화를 해야 할 필요성과 특히 그 필요성이 규범적 문제행동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범위를 설정과 문제행동의 유형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우선 그 방법은 크게 「비 경험적 접근 방법」, 즉 연구자의 가치기준 및 판단에 의존하는 방법과,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주관적 판단을 가급적 배제하고, 문제행동범위와 유형분류와 관련된 양적 자료에 근거하여 문제행동의 범위를 설정하고 문제행동의 유형을 분류하는 「경험적 접근 방법」으로 구분할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설정 및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비 경험적 접근 방법에 주로 의존해 왔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와 유형은 경험적 근거 없이 연구자의 윤리적 관점과 사회적 관습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의거하여 이루어져 왔다(고성혜, 1995).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경우, 특히 규범적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행위자(청소년)와 관찰자(성인)간에 대상행위의 문제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그 대상행동범위가 모호한 특성상, 조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분류했던 규범적 문제행동들에 대한 행위자와 관찰자들의 인식 및 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설정과 유형분류를 시도함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인 '비 경험적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새로운 대안적 형태의 '경험적 접근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청소년 문제행동 범위설정과 유형분류를 위해 본 연구가 취하는 경험적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다차원적 기준과 절차 및 방법들이 적용되었거나 앞으로 적용될 것이다.

단계 1: 선행연구에서 다룬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 예비 목록표 작성

규범적 문제행동 영역에 포함될 전체 행동목록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다루어온 전체문제행동 목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된 문제행동목록에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해당되는 행동들을 추출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들 중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행동들을 정리하고 유목화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규범적 문제행동 예비 목록표를 작성하였다.

<표 II-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예비 목록표

1. 흡연	13. 성관계
2. 음주	14. 성적 접촉(키스/포옹 등)
3. 음란물 보기	15. 심한 말다툼
4. 폭력/잔혹물 보기	16. 거짓으로 용돈타기
5. 머리염색	17. 부모의 돈/신용카드 도용
6. 짙은 화장	18. 시험부정행위
7. 귀걸이 착용	19. 무단결석
8. 체중조절용 식/약품 복용	20. 외박
9. 성인용 노래방 출입	21. 부모에 대한 반항
10. 유흥장(디스코텍/나이트클럽)출입	22. 교사에 대한 반항
11. 술집출입	23. 가출
12. 비디오방 출입	

단계 2: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설정 및 유형분류를 위한 조사실시

본 조사의 목적은 앞서 제시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예비 목록표」에 제시된 각 행동들에 대해 그 행위의 주체인 청소년과 행위의 주체

는 아니지만 행위의 문제성 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파악하여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유형분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 방식은 각 행동을 세 집단의 조사대상자들에게 각각 제시하고 각 행동의 문제성 여부를 행위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하였다. 그 예시 질문문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문항>

각 행동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에 기입해 주십시오.

보 기

- ①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모두 해서는 안 될 문제행동이다.
- ② 성인은 개인이 알아서 할 행동이지만,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될 문제행동이다
- ③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모두 개인이 알아서 할 행동이므로 문제삼을 수 없다.

흡연. ()

음주. ()

외박. ()

이 조사를 현재까지 선행연구들이 밝혀온 각각의 규범적 문제행동들에 대한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 간의 태도 및 인식 차이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 개로 구성된 선택지를 둘(①+②) 그리고 ③)로 유목화 한 뒤 각 집단(성인 vs 청소년)별로 각 행동을 청소년(혹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이 행하였을 경우 “문제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여 그 응답율이 높게(과반수 이상 인)

나타난 범주로 유목화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주체별	성인		
	판단기준	문제 됨(①+②)	문제 안됨(③)
청소년	문제 됨(①+②)	제 1영역: 공통준거 청소년 규범적 문제행동영역	제 2 영역: 청소년 준거 청소년 규범적 문제행동영역
	문제 안됨(③)	제 3 영역: 성인준거 청소년 규범적 문제행동영역	제 4 영역: 非 문제행동 영역

논리적으로는 위의 그림에서 제시한 4 가지 영역이 모두 가능할 것이지만, 이 4가지 영역 중 제 2영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인이 문제삼지 않고 청소년만 문제삼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영역이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분류할 것이다.

단계 3: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 분류를 위한 요인분석 실시

제 2 단계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분류는 이해 당사자들의 판단결과를 교차시켜 얻은 유형분류로서 유형분류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를 유형화를 시도하여 설정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분류방식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제의 심각성 인식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유형분류를 시도해 볼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행동 유형분류를 위해 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

하는 이유는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분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3.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관련 요인

청소년문제행동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청소년 관련 연구의 주된 연구주제로 자리잡아 왔다 이에 따라 수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다루어 왔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는 ‘청소년문제행동원인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행연구들이 밝혀온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요인들은 다양하나 이들은 크게 청소년이 처한 환경적 특성과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요인(개인차)으로 구별할 수 있다.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학적 접근법을 취하는 연구들은 행위자 개인의 내적 요인(주로 심리적 요인)이 문제행동을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문제행동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사회화 과정, 사회적 계급, 하위문화에의 헌신과 같은 외적요인(사회적-환경적 요인)에서 찾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심리학적 접근법을 취하는 연구들은 문제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문제행동의 원인을 개인 내적 요인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다(Henshin, 1993)

비록 많은 연구들이 문제행동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들을 밝혀 왔지만,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문제의 환경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 개입하여 그 관계를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변인들이 과소평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한국청소년개발원, 2001)에 의하면, 다양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이 환경적 자극과 문제행동 충동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을 가졌지만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요인을 통제하였을 경우 그 관련성들 중 상당수

는 관련성이 의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그 관계의 정도가 약화되었다. 이는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의의있는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행위 당사자의 개인적 특성요인을 제외하고서 환경적 요소만으로 문제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접근법은 여러모로 제한이 따를 것이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취하는 연구들은 문제행동과 관련된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요인을 다룸으로서 환경결정론적 입장을 취하는 사회학적 접근법의 제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심리학적 접근법을 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능 및 다양한 성격적 특성(정신질환, 충동성, 우울증, 공격성, 불안 등) 측면에서의 개인차를 문제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적용하여 왔다(한상철, 1998). 하지만 선행연구들이 문제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개인적 특성요인들은 그 속성이 주로 고정적이거나 통제불가능한 개인적 특성들이어서 실제로 청소년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나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있어 제한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데 시사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청소년을 낙인(Labeling)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밝혀온 청소년 문제행동 원인들을 가급적 모두 포함시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설명변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밝혀온 문제행동관련 원인들이 수없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그 모든 변수들을 모두 다루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동시에 청소년 문제행동관련 정책적 방향이나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실제적인 시사점을 주는 변인들을 선별하였다. 독립변수 선정의 선별 기준과 본 연구가 중점을 두는 분석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개인적 특성변수들 중 문

제행동과 그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정하기 어렵고 비교적 고정적이거나 통제불가능 한 개인적 특성요인(성격, 지능, 등)들은 독립변수에서 제외시켰다. 대신에 문제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도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가정되는 사회적·개인적 특성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직접적인 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만을 포함시켰는데, 본 연구에서 가정한 문제행동 통제요인은 크게 사회적 통제요인군과 개인적 통제요인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통제요인이란 부모, 교사, 동료와 같이 자신을 둘러싼 중요한 타자와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중요한 타자와의 사회적 유대가 강하고 그 사회적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청소년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문제행동 충동을 억제하거나 제어한다는 선행연구(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적 통제요인이란 외부의 다른 통제요인(예컨대, 환경적 요인, 사회적 통제요인)과 상관없이(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문제행동 충동을 제어하게 하는 문제행동과 관련된 개인의 의식, 신념 및 태도를 의미한다. 예컨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각성수준(심각성 인식수준),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청소년의 원인지각, 일반적인 사회규범의식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 변수들 역시 선행연구에(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의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충동을 제어하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사회적 통제요인과 개인적 통제요인을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주요 설명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이 각각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을 비교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될 것으로 가정되는 인구학적 변인(성, 거주지역, 학교계열 및 학교급, 학교성적 등)과

가정환경 변인(가정의 구조적·심리적 환경)들은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설명변수로 선정된 사회적·개인적 통제요인들이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그들의 환경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가지는 고유한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청소년의 인구학적 변인들을 설명변인이 아닌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그 변수들이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될 수는 있지만, 그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나타날 부정적 효과 때문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양적 연구들은 대부분 관습적으로 청소년의 인구학적 변인(성, 생활수준, 학교성적 등)을 중요한 독립변수로 포함시킨다. 이는 연구자에게 매우 흥미있는 결과를 제공해 줄지는 모르나 그로 인해 나타날 결과는 비관적이다. 예컨대, IQ에서 성별로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을 바꾸어 주면 IQ에서의 성차문제가 해결되는가? 오히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능과 관련하여 특정의 성을 낙인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청소년 문제행동은 소위 ‘문제청소년’을 낙인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인구학적 특성별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변인도 인구학적 특성변인과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청소년의 둘러싼 유해환경을 정비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다. 청소년의 유해환경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입장에서나 청소년 문제를 개선하려는 청소년 관련 실천가들 입장에서도 유해환경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고 통제하기가 매우 불가능한 객관적인 현실이다. 다양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그 유해환경이라는 것이 현실공간만이 아

닌 가상공간(Cyber space)에도 존재하기 유해환경을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유해환경이 엄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청소년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 주목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충동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자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행동통제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요인들에 대한 선행이론 및 연구결과들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환경적 요인

인간은 누구나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직 발달이 끝나지 않은 시기로 자신이 속하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과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시간을 대부분 소비하고 있는 가정과 학교라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가장 관련이 많은 환경도 역시 가정과 학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정환경

가정환경은 크게 구조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과 가정의 구조적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가정의 수입과 부모의 교육정도, 직업 등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왔다. 이 분야의 일반적인 연구결과는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가정에 속한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비롯한 범죄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Merton의 아노미이론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노미를 더 많이 느끼어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도 가난한 지역에서 범죄를 배우기 쉽다는 점에 착안하였고, Cohen의 하위문화이론 역시 가난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중산층의 가치와 대조적인 비행하위문화를 형성하여 그러한 문화에 영향을 받기가 더 쉽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Shaw와 Mackay의 고전적인 사회해체이론 역시 하층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으로서 사회해체를 들고 있으며,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역시 하층 청소년들은 비행을 억제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직업 그리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수용이 약하다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들을 근거로 한 경험적 연구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 왔다. Shaw와 McKay(1942)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문제행동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가정의 자녀들 사이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미국의 경우에 저소득층의 자녀들 가운데서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Elliot와 Merrill(1950)의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김성이(1983)는 범법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수준 및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일으킨다고 지적했으며, 나경란(1996)은 중학생 대상으로 비행충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거환경 및 경제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경우 비행충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다.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성식(1995)의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의 수입 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구조적 환경 중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또 하나의 변인은 가정의 결손여부이다. Mangold(1924)가 결손가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 대해서 최초로 지적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결

손가정과 문제행동간의 관련성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Glueck과 Glueck(1950)의 연구는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들은 비행청소년과 일반소년을 비교한 결과 가정의 결손 특히 아버지의 부재가 청소년 문제행동의 주요원인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은 이와는 불일치한 결과들을 제시하며 반론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Nye(1958)는 결손가정 그 자체가 비행을 야기하기 보다는 결손이 없어도 문제 있는 가정이 오히려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Rosen(1970)은 이러한 일관성 없는 결과를 종합하기 위하여 1932년부터 1968년까지의 연구결과를 재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거의 모든 연구에서 결손가정과 문제행동간에 관계가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지극히 미미한 수준의 관계만 발견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김준호, 김순형(1992)의 연구와 백연화(1999)의 연구에서 가정의 결손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와는 달리 초기의 주장들 즉 결손가정과 문제행동이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도 있어 아직까지 결손가정과 청소년 문제행동이 무관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Stern(1964)과 Toby(1957)는 결손가정이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여 결손가정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혀내었으며, Free(1991)는 중한 비행보다는 사소한 비행이 결손가정과 강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즉, 법률적 문제행동과는 달리 규범적 문제행동에는 가정의 결손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구조적 환경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체로 중한 비행이나 법률적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여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가정의 기능적인 환경 역시 인간 발달 및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의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의 기능적 환경이 인성 및 정서발달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서도 가정의 기능적 환경이 매우 영향력이 클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기능적 환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 가정의 분위기 등을 들 수 있다.

관련 연구(Loeber & Dishion, 1983; 권윤아, 1997; 이성식, 1995)에 의하면,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부모는 일반 청소년의 부모에 비해 적대적이거나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이며,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담하며, 잘못을 했을 때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거나 일관성 없는 훈육을 하는데 이러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김선애(199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이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인 태도, 모순되는 비밀관적인 태도를 보일 때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조장하며, 부모와의 친밀도와 의사소통의 결여, 부모의 관심과 감독의 부족은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분위기 역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기능적 환경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연진영(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부의 불화 및 가정의 갈등적이고 전제적인 분위기가 공격성을 포함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의 주요 요인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Larzelere와 Patterson(1990)은 부부간의 갈등이 부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모가 부적절한 가족관리를 하여 중국에 가서는 자녀가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빠져들기 쉽게 된다고 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 가정의 분위기와 같은 가정의 기능적 환경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조장하거나 발생하게 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기능적 환경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환경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짐에 따라 학교에서의 생활 및 관계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환경과 청소년의 발달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학업성적이 나쁠수록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학교환경은 다양하지만 대표인 학교환경변인으로는 학교에서의 교사 및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학업성적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

교사는 가정에서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성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존대상인 교사와의 관계가 소원하고 원만하지 않다면, 학교에의 적응도 쉽지 않으며, 학교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은 학교 밖의 일탈 집단과 접촉할 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제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연구들도 이와 같은 추론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가 보여 주었는데, 장영희(1995)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보고한 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율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inderang(1973)은 학교에 대한 애정, 교사의 의견에 대한 존중은 비행과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Venezia(1971)의 연구에서 학교와의 관계가 나쁜 경우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율이 높다고 보고했으며, 김준호(1990)도 청소년 문제행

동을 유발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학교 교사의 공부 압력을 지적하였고, 교사에 대한 불신과 반향도 문제행동 초래 요인임을 밝혔다. 요컨대, 학교에서의 적응,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학교환경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학업성적 또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학교환경으로 여겨지고 있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학업 성적이므로, 학업성적 수준은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매우 관련이 깊다. 관련 연구들(Hinderlang, 1970; Kelly & Pink, 1973; 김준호, 1990; 이문용, 1975; 유혜경, 1986, 조정문, 1985)은 학업 성적이 낮으면 좌절감과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은 이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켜 문제행동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Hinderlang (1970)은 성적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의 빈도가 높아지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청소년 문제행동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Kelly와 Pink(1973)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고 있다. Vinter와 Sarn(1965)는 학업에서 실패한 학생들은 학교체계의 가치를 거부하고 부정적인 학교압력에 대항해서 반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여 역시 학업성적이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유사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문용(1975)은 학업성적이 상위이면 문제행동 발생율이 낮고 학업성적이 하위이면 문제행동의 발생율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조정문(1985)의 청소년 비행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성적이며, 학생들은 낮은 성적 때문에 좌절감과 욕구불만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공격적이고 때로는 반사회적이 되어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준호(1990)의 연구에서도 역시 재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교로부터 많은 공부압력을 느끼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공부압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지위비행을 포함한 문제행동을 많이 행한다는 결과를

보여진다.

청소년기에 친구집단은 즐거움의 원천이 되고,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기 이전과는 달리 그 즐거움과 각종 생활의 원천을 부모에서 친구로 옮겨가게 된다 따라서 또래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소외될 경우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문제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음이 관련 연구(Berndt & Ladd, 1989, 백경임, 서동인, 1993)를 통하여 밝혀져왔다. Berndt와 Ladd(1989)는 우정관계가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우정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부정적일 경우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Patterson(1986)은 또래 배척의 효과를 장기종단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였는데, 청소년들은 또래로부터 배척되면 자신을 인정해주는 일탈 또래집단에 가입하여 만성적인 비행에 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동료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위와 같이 또래관계에서의 수용, 배척으로 인해 문제행동이 발생하게 된다는 기제를 밝히거나 이와는 달리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행하는 친구들과 접촉함에 의해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로 각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관계가 있는 친구변인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문제행동 친구와 접촉하게 됨으로써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비행친구 선행론에 의하면,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청소년과의 접촉빈도가 잦고, 접촉기간이 길며, 비행 친구를 중요시하고, 비행친구로부터 받는 영향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비행에 필요한 기술과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을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되어 비행을 한다는 것이다 (Sutherland, 1974) Craven(1987)은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비행친구에 대한 연대와 비행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였는데 비행친구의 연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회귀계수가 비행이 비행친구의 연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회귀계수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비행친구에 대한 연대가 비행에 선행한다는 비행친구 선행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비행선행론과 비행친구 선행론 어느 입장도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청소년에게 있어 문제행동을 보이는 친구와의 접촉이나 관계가 문제행동과 매우 관련이 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김준호, 박미성,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친구관계가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소년문제행동관련 사회적 통제요인

사회통제이론은 범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충동을 제어하는 사회적 통제요인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이론에서는 범죄가 사회적 유대 관계나 인습에 의해서 억제된다고 가정한다. Hirschi(1969)는 범죄에 대한 유혹은 누구에게나 어느 사회에나 일정하게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범에 순응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에 의하면, 가정에서 시작되어 다른 사회기관들로 확대되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bond)가 통제력이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가 약하거나 손상될 때 범죄나 비행이 생겨난다는 것이다(Hirschi, 1969).

사회적 유대란 개인이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발전시키는 애정과 존경을 말한다. 개인이 중요한 타인들과 애착을 발전시키면, 그들의 기대에 민감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둔감할수록 그들과 공유하는 규범에 의해 덜 억제되어지고, 그 결과 이러한 규범들을 위반하기 쉽다.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는 특히 문제행동의 중요한 억제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이는 청소년이 아직 부모와 교사로부터 의존하는 시기이며, 친구와의 우정을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시기보다도 사회적 유대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중요한 타인들과의 강한 유대는 범죄와 비행을 포함한 문제행동의 주요 억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아이가 부모에 의해 먼저 사회화되고 이것을 통해 다른 중요한 타인들에의 유대가 형성된다는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애착을 통해서 전통적인 가치와 기대가 전달된다. 아이가 부모와 강하게 애착되면 사회규범을 내재화하기 쉽고 교사와 같은 권위의 대상 및 친구와 같은 동료에 대한 존경을 발전시키기 쉽다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손가정과 같은 구조적 여건이 아니라 아이가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내는 관계의 깊이와 질이다.

Hirschi(1969)는 또한 친구에 대한 애착도 비행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애착의 대상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 그 자체가 규범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비행친구에게 애착을 발전시킬 소년의 경우에도 그 애착이 강할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에게도 적용되어서 부모가 범죄자인 경우라도 소년이 부모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갖을수록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작아진다

사회통제이론의 '사회적 유대'와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성을 규명한 경험적 연구들(김두섭, 민수홍, 1996; 남재봉, 1990)에 의하면, 사회통제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유대가 문제행동과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문제행동의 억제요인으로 설명력이 있었다. 즉, 청소년에게 있어서 중요한 타인인 부모, 교사, 친구 등과의 사회적 유대가 강할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 교사 그리고 동료와의 사회적 유대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동료와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다음에 제시될 동료와의 동조성과 구별되어

야 한다.

동조성이란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심리적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집단 혹은 다수에 일치하려는 경향(김인규, 1996)을 가리킨다. 인간은 집단의 규범을 어김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불승인과 비난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관점의 승인욕구를 얻고자 하여 거기에 따른 보상이 동조행동을 강화시킨다고 한다(Allport, 1953).

아동기부터 점차 커지게 되는 친구관계의 중요성은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절정에 이르게 된다. Erikson(1968), Newman과 Newman(1976)은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에 소속하려는 욕구는 집단규범에 대한 동조성으로 나타나고, 집단 그 자체는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동조압력을 행사할 때 강화된다고 하였다. Brown, Clasen과 Eicher(1986)는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지각된 압력과 자기보고된 문제행동과의 상관을 연구하였는데, 친구와 함께 시간 보내기, 친구와 함께 모임이나 학교행사에 참석하기와 같은 일상적 활동보다는 음주, 성관계, 파괴행위 등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지각된 또래압력과 또래에 대한 동조성향이 자기 보고된 행동과 강한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친구는 전반적인 사회적 활동보다는 문제행동에의 개입에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청소년의 약물사용이나 문제행동이 또래에 의해 촉진된다는 연구결과도 친구 동조성의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Glynn, 1981; Huba & Bentler, 1980).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과 소년분류심사소에 위탁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한 김하연(1991)의 연구에서도 비행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가 클수록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폭력, 강도와 같은 법률적 문제행동에 비해 음란서적 읽기, 귀가 시간 어기기, 켄닝, 음란 비디오 관람 등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있어서 친

구에 대한 동조성의 영향이 더 높았다

3) 청소년문제행동관련 개인적 통제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이 속한 가정과 학교 환경은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열악한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은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문제행동을 지속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조정을 받기도 하나 그 환경을 지각하고 내면화시키는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서만 찾는 것은 청소년을 환경에 대해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는 존재 그리고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모든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비해 지적으로나 도덕적 판단에서 뒤떨어진다는 경험적 증거는 없다.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그 환경을 해석하고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Waldo, Chiricos, 1972).

따라서 같은 환경에서 성장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며 이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할 때에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청소년들이 다수 존재하며, 왜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개인적 통제요인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별한 문제행동 관련 개인적 통제요인은 문제행동과 관련된 가치관, 의식, 신념 등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 개인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취하게 될 태도나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개인의 가치는 개인이 성장한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며 내면화된 가치는 개인과 관련한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가치는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상정하고 있다 실제로 하위문화이론에서는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집단은 인습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하위문화 특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김준호와 이성식(1987)의 연구에 의하면, 강인성이나 사고력, 자율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보다는 단기적인 쾌락이나 타인의 악의성 등에 관심을 두는 반대 문화적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행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를 인습적인 문화와 신세대적인 문화로 구별하고 청소년의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본 권소정(2001)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인습적 문화는 지위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신세대적 문화는 지위비행과 친화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신세대적 문화를 높게 내면화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중 비행은 저지르지 않고 있어서 지위비행은 청소년들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즉, 인습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들이 문제행동 특히 규범적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반대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들보다 더 적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인격형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어서(삼성복지재단, 1994) 이를 통하여 볼 때 부모의 가치관이 전통적이고 인습적일 경우 자녀의 가치관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립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통제이론에서 신념은 사회의 가치 및 규범체계에의 동조를 나타낸다 특히 법과 사회규칙 전반이 도덕적으로 옳고 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중요하다 이 개념은 특정 법률이나 행위에 대한 신념이나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구하는 비행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회가 갖고 있는 공통의 가치체계를 개인이 사회화한 정도를 말한다. 즉, Hirschi(1969)는 비행을 가르치는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공통의 가치체계를 주장한다 그는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규칙들을 위반하는 것은 법과 규범의 도덕적 타당성에의 신념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규범을 중히 여기도록 훈육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르려는 의무감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전통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약한 사람이나 권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존경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과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은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1000명 이상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Benda와 Whiteside(1995)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친사회적 도덕 신념은 대인간 비행을 포함한 일반적 비행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해보았을 때, 이러한 도덕적 신념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비행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민수홍(1998)은 비행에 대한 다양한 변수의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해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재산범죄, 폭력범죄 모두에 법이나 사회규칙에 대한 옳은 정도 또는 지켜야 하는가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신념들 중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청소년의 신념체계가 문제행동과 깊은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어떤 사건의 결과에 미친 원인을 탐색하는 행위를 歸因(attribution)이라 하며, 이러한 귀인행동에서 개인이 보여주는 비교적 안정된 성향을 귀인양식 혹은 성향(attribution style)이라 한다(Heider, 1958) 어떤 사람은 잘 안되는 일을 모두 남 탓이나 조상 탓으로 돌리는데 그러한 행위를 외부 귀인성향이라 하며, 반대로 그 모든 탓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을 내부 귀인성향이라

한다. 이처럼 개인이 어떠한 귀인성향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의 행동은 영향을 받는다.

귀인성향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도 관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내적 또는 외적 성향 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이훈구·송인섭, 1979).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외부 귀인성향보다는 내부 귀인성향의 청소년이 문제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이는 외부 귀인성향자와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심리특성의 유사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심우엽(1982)의 연구에 의하면, 인성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외적 귀인이 강할수록 무력감,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억지를 잘 쓰고, 의심을 잘하며, 공격적, 적대적, 파괴적인 성향이 강하다. 또한 외부귀인자들은 권위주의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심하고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심리특성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일치하는 점이 많다. 이러한 청소년은 자기통제력이 약하며, 적대적, 공격적, 파괴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실패나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권위에 대해 불복종적인 경향이 강하다(안재정, 1982). 즉,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서 문제행동 청소년과 외적 귀인성향자 간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rissett와 Nowicki(1973)는 귀인성향과 좌절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적응적 행동에 있어서 외적성향의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으며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개인적 문제와 관련한 음주율이 내적 성향자들보다 높았다 Carman(1974)은 시골 소재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귀인성향 연구에서 외부 귀인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내부 귀인성향을 가진 학생보다 문제 행동을 일삼으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박종화(199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소년원

수감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연구를 한 결과, 정상 집단은 비행 집단에 비해 내부 귀인성향을 나타냄으로써 성공이나 실패의 상황에서, 행동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내적 요인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행 집단은 정상 집단에 비해 외부 귀인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운, 재수, 타인의 압력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지명숙(1993)과 김유미(1987)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적응과 귀인성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두 연구 모두에서 외부 귀인성향이 강할수록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적응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문제행동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실제 문제행동을 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사회심리학이론(Horowitz & Bordens, 1995)에 의하면, 한 개인이 특정 행동에 대해서 갖게 되는 태도에 따라서 그 행동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만약, 어떤 청소년이 특정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일이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각한다면 그 청소년은 특정 문제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반대로 어떤 특정 문제행동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거나 또는 멋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청소년은 그 특정 문제행동을 실제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문제행동에 대해서 청소년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곧, 그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행할 것인가 행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의 심각성의 인지 정도에 따라 실제 문제행동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Eisenman(1993)의 연구에 의하면,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은 일반적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리, 범죄를 해야 할 옳은 일로 여긴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범죄행동에 대한 태도가 실제 범죄행동의 행함에 영향을 미치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김준호, 김은경(1995)의 연구에 의하면 특별히 특정 행위가 도덕적 또는 규범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비행 가담률이 높으며, 앞으로 특정 비행행위를 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비행을 구분하였을 때 경비행이 비행의 허용도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적 문제 행동보다는 규범적 문제행동이 문제행동의 허용성, 심각성 인지도와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원(1997)의 연구도 이와 같은 결과를 지지하는데, 그는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를 능가할 때 문제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최난숙(199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어떤 비행에 대해 그 자신이 얼마만큼의 흥미와 매력, 호기심을 느끼느냐는 비행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며 비행에 대한 매력 수준에 따라 직접적인 비행으로 이어질지가 결정된다고 하여 문제행동과 문제행동 심각성 인지와 의 관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 백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2. 조사도구
3. 자료분석 방법

공 백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서 연구문제에 따라 두 번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조사는 본 연구에서 예비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설정 및 유형분류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조사의 주목적이었다. 예비조사에서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학부모 집단과 교사집단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표집은 중부권(서울, 경기 강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성별, 학교급별 전집 인구비율에 따라 표집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표집 구성분포는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예비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청소년	학부모	교사
성별	남	160(47.8%)	78(36.1%)	146(58.4%)
	여	175(52.2%)	138(63.9%)	104(41.6%)
학교급별	중학교	157(46.9%)	-	-
	일반고	118(35.2%)	-	-
	실업계고	60(17.9%)	-	-
지역별	대도시	154(46.0%)	96(44.4%)	106(42.4%)
	중소도시	94(28.06%)	65(30.1%)	81(32.4%)
	농어촌	87(25.97%)	55(25.5%)	63(25.2%)
합 계		335	216	250

두 번째 조사는 본 조사로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요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였다. 표집방법은 다단계 층화집락추출법(multi-stratificated 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였다. 전국을 지역규모(서울·광역시·시부·군부)와 행정구역(서울, 경인권, 충청·강원권, 전라권, 경상권)을 기준으로 12개 조사권역으로 층화한 뒤, 각 조사권역별 학생모집단 구성비율(중학교·인문고·실업고)에 따라 조사대상 학교수 산출하고 각 조사권역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조사지점을 선정한 뒤 각 조사지점별 조사대상 수를 결정하였다. 조사는 현지조사원(조사권역별로 선임)의 지도하에 학급단위 자계식(自計式)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배포된 설문지는 약 2000부 였으나 이중 회수되지 않은 것과 회수된 것 중에서도 자료 누락이 심하고 불성실한 응답사례를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조사대상자는 1637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표 III - 2와 같다.

<표 III-2> 본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성별	남	457(42.4%)	149(45.3%)	165(71.7%)
	여	621(57.6%)	180(54.7%)	65(28.3%)
학교급별	중학교	528(49.0%)	156(47.4%)	45(19.6%)
	일반고	346(32.1%)	93(28.3%)	105(45.7%)
	실업계고	204(18.9%)	80(24.3%)	80(34.8%)
합 계		1078(65.9%)	329(20.1%)	230(14.1%)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를 예비조사용과 본 조사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설정과 청소년 문제행동 유형 분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이다. 조사표를 구성하기 위해 우선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다루어온 전체 단위 청소년 규범적 문제행동들을 조사하여, 이중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행동들을 정리하고 유목화 하여 부록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24개에 달하는 전체 청소년 규범적 문제행동 목록표를 확보하였다. 24개 각 단위 청소년 규범적 문제행동들에 대하여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세 집단에게 세 가지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분류기준은 같은 행동에 대해 행위자(성인/청소년)가 누구냐에 따라 문제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시 말하여 각 단위행동을 제시하고 그 행동을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모두 해서는 안될 문제행동’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청소년만 해서는 안될 문제행동’인지, 아니면,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문제삼을 수 없는 개인적 행동’인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그 관련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록 1에 제시되었다. 각 변수 군별 해당 측정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점수처리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의 측정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변인에 해당되는 청소년의 성, 거주지역, 학교성적 등을 조사하였다. 이 측정치들은 대부분 비연속적 변수로서 더미(dummy)변수화 하였는데, 성별의 경우 남자에 1, 여자에 2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거주지역은 대도시에 1, 중소도시에 2, 농어촌 지역에 3의 값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성적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못하는 편” - “매우 잘하는 편”까지의 연속변수로서 공부를 잘할 수록 높은 값을 부여하였다.

(2) 청소년 문제행동관련 환경적 변수의 측정

환경적 변수군은 크게 가정의 구조적 환경변인군,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군, 학교생활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 변인군의 세부적인 변인들과 변인측정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정의 구조적 환경변인

가정의 구조적 환경변인으로는 가족의 결손정도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시켰다.

○ 가족의 결손도 측정

가족의 결손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친부모의 생존여부”와 “친부모와의 동거여부”의 두 가지 지표가 포함되었다[본 조사표 문항 Q6과 문항 Q8 참조]. 조사표에 제시된 자료를 변환(recoding)하여 ‘친부모의 생존여부’는 두 친부모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에 1,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생

존하지 않을 경우에 2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부모와의 동거 여부’ 역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의 값을,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경우에는 2의 값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두 지표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가족이 결손정도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가족의 결손정도가 큰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어 왔다. 흔히 사용되는 지표로는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적 생활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부의 교육정도’ 그리고 ‘모의 교육정도’의 세 가지 지표를 적용하였다[본 조사 문항 Q10과 문항 Q12 참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산출은 세 지표를 각각 표준점수로 변환한 뒤, 이를 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음을 의미한다(단 부록표에 제시된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은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표준편차이상집단(상위집단), -1표준편차~+표준편차집단(중간집단), -표준편차이하집단(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음.)

②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

가정이 심리적 환경변인 포함된 변수는 두 개로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와 ‘가족관계 양호도’이다.

○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측정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가 집밖에 있을 때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부모가 얼마나 잘 안다고 청소년들이 지각하는지를 5점 척도 상(전혀 관심이 없

다~매우 관심이 많다)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 대한 높은 애착심을 가짐을 의미한다. 문항형식은 [본 조사 문항 Q29 - 2]참조.

○ 가족관계 양호도 측정

‘가족관계 양호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로서 총 문항[본 조사 문항 Q 28 - 1, 2, 3, 4, 5, 6 참조] 수는 6개이다(예, ‘우리집 식구들은 서로 믿는다’). 이 조사도구 역시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었는데, 부정적 가족관계를 표현한 문항들을 역 점수 처리한 후 6개 문항의 점수들을 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의 양호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요즈음 한 자녀만을 둔 가정이 많아 형제자매 관계를 묻는 문항(Q 28-2와 3)의 적절성을 의심하였으나, 이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전체의 3% 미만이었어서 그대로 측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③ 학교생활환경

청소년들이 학교생활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본 조사문항 Q 33-1, 2, 3, 4, 5]로서 총 5개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문항을 구성하였다(예, 학교에 다녀왔자 별로 도움이 될 것이 없다). 부정적 표현의 문항들을 역점수(recoding) 처리하여 높은 점수가 학교생활환경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3) 문제행동 관련 사회적 통제변수

이 조사도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통제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Hirsch의 사회통제이론에서 문제행동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던 사회적 유대의 한 유형인 중요한 타자에 대한 애착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사도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 교사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이 개념들은 Gilligan(1982)이 개념화한 배려지향도덕성(care moral orientation)의 행동적 지표(Lyons, 1993)들과 매우 유사하다. 배려지향 도덕성은 자신을 둘러싼 중요한 타자와의 좋은 인간관계의 유지, 타인의 요구에의 부응,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기 등을 중요한 도덕적 판단기준으로 하는 도덕적 성향을 말한다.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Lyons(1993)가 배려지향도덕성의 지표로 제시한 행동유형을 질문문항화 한 것으로 총 10개 문항(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는데[자세한 문항내용 및 형식은 본 조사 질문지 Q 24-1, 2, 3, 4, 5, 6, 7, 8, 9, 10 참조] 부모 및 교사와의 사회적 유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각각 3문항씩이었으며, 동료와의 사회적 유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4문항이었다. 각 대상별(부모, 교사, 동료)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대상에 해당되는 문항들끼리 점수를 합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대상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4) 문제행동관련 개인적 통제 변수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관련 개인적 통제변수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심각성 인식 수준[Q 23 참조], 청소년문제행동원인에 대한 청소년의 원인지각(귀인)유형[Q 21] 및 사회규범의식[Q 27]을 포함시켰다. 각 조사도구의 내용과 문항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행동에 심각성 인식 수준

이 조사는 두 가지 목적에서 포함되었다 첫째는 각 문제행동의 심각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수준이 그들의 문제행동수준을 결정하는 청소년의 개인 내적 개인적 통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성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사표에 제시된 모든 행동들이 문제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행위자인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각 행동들에 대한 문제성 인식수준에서 성인과는 다를 수 있고, 그 인식수준에 있어 청소년들 간에도 심한 개인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차가 그들의 문제행동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조사를 실시한 두 번째 목적은 전체 문제행동과 유형별 문제행동 지수를 결정할 때 각 문제행동에 대해 반영해야 할 가중치(weights)를 확보하는데 있었다. 그 가중치란 24개의 각 규범적 문제행동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각성 인식정도의 평균치로서, 그 평균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행동의 문제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24개의 문제행동 목록을 제시하고 각 행동의 문제성 정도를 5점 척도상(전혀 나쁘지 않다~매우 나쁘다)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의 문제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Q 23 참조].

② 문제행동원인지각유형

문제행동원인지각이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발생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나 지각행위를 의미한다.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에 의하면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사건이나 어떤 결과에 직면하여 그 원인을 부단히 탐색하는 성향을 가진다고 한다. 그래서 귀인이론에서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상식적 과학자(commmonsense scientists)라고 칭한다. 차이가 있다면 과학자는 일반인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인과추론을 하고자 할 뿐이다. 일반인들의 인과추론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추론은 검증된 이론이 아닌 신념에 머무르게 된다.

즉, 자신과 관련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나름대로 그 원인을 지각하는 인지도를 추론하게 된다. 특히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인 '청소년 문제행동'이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떤 청소년은 청소년 문제행동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청소년은 환경보다는 청소년 개인 내적 문제로 인해 청소년 문제행동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때 전자처럼 어떤 결과의 원인을 행위자 밖에서 주로 찾는 성향을 외부귀인성향이라 하며, 반대로 그 원인을 행위자 내부에서 찾는 것을 내부귀인성향이라 한다. 개인이 어떠한 귀인성향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의 태도와 행동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안 되는 것은 조상 탓"이고 "잘되는 것은 내 탓"이라는 이중적 귀인성향을 가진 사람과 '모두 다 내(혹은 자기) 탓이요'라는 내부귀인성향을 가진 사람간에는 태도나 행동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실제로 청소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크게 대별하면, 그 문제행동의 책임이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는 믿음과 그 책임이 청소년이 아닌 외부 환경에 있다는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일반인들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신념만은 아니다. 연구자들도 나름대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의 입장을 가지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발생원인에 대해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가지는 신념, 즉, 귀인성향이 그들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문제행동원인지각을 조사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5개의 선택지(청소년 자신의 문제, 가정교육/가정환경, 교육제도/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 사회적 여건/환경, 친구 및 선후배 관계)를 제시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본조사 설문지 Q 21 참조]. 이중 청소년 문제행동이 '청소년 자신의 문제'라고 응답한 경우는 내부귀인성향으로 분류하여 1

의 값을 부여하였고, 나머지 4개의 선택지 중 하나에 응답한 경우는 외부 귀인성향으로 분류하여 2의 값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외부 귀인성향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③ 사회규범의식 측정

이 조사도구는 Dean(1961)이 제작한 Normlessness 척도를 변안한 것으로 총 4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본 조사 설문지 Q 27 참조]. 주요 질문 내용은 청소년들이 현재의 사회에 존재하는 주류의 가치, 규범 및 도덕을 및 사회질서 유지에 대해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인 질문문항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도덕이나 관습이 지켜져야 한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를 마련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정적으로 표현된 문항을 역점수 처리하여 문항간 점수를 합하여 사회규범의식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규범의식(보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5)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빈도 및 지수측정

이 조사도구는 총 24개의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험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4개의 각 규범적 문제행동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그 행동을 경험 한 적이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1점을 그리고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2점을 부여하였다. 문제행동에 심각성 인식 수준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요인 분석을 한 결과 24개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표출형 문제행동', 유흥형 문제행동' 그리고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요인으로 유목화되었다. 규범적 문제행동 전체 그리고 규범적 문제행동 요인별로 문제행동의 지수를 산출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계산 절차가 있었다.

첫째, 24개 문제행동 각각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 인식 수준의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둘째, 첫째 단계에서 구한 평균치를 가중치로 하여 그 값을 해당 문제행동의 경험여부(더미변수: 없다=0, 있었다=1)에 곱하였다 ⇒ 24개 규범적 문제행동별 가중치 반영

셋째, 가중치가 반영된 24개 문제행동 지수를 요인별로 그리고 전체로 합산하여, 각 요인별 그리고 전체에 대한 ‘문제행동 지수’를 결정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각 연구문제의 성격 별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법이 동원되었다. 첫째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설정과 유형화를 위하여 교차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규범적 문제행동의 전체 그리고 문제행동 유형별 관련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환경적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고,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사회적 통제요인군과 개인적 통제요인군이 가지는 순수설명변량(Semipartial R^2)의 의의도를 검증하고, 반대로 사회적 통제요인군과 개인적 통제요인군 각각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효과를 통제하고,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인군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분석절차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단계 1 : 각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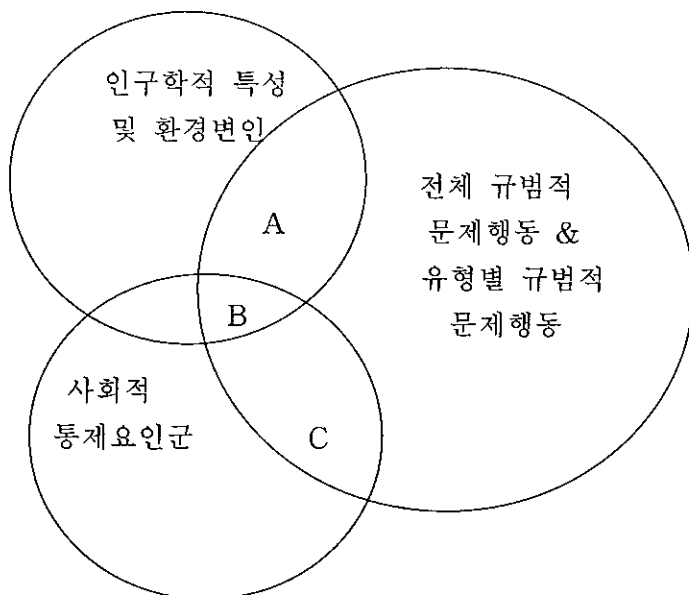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 유형별 그리고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각 독립변수군들이 가지는 고유설명력을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환경적 변수가 가지는 설명변량을 통제하고, 사회적 통제요인군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순수설명변량(Semipartial R^2)과 반대로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가지는 설명변량을 통제하고, 인구학적 특성·환경적 변수군이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에 대해 가지는 순수설명변량(Semipartial R^2)을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환경적 변수가 가지는 설명변량을 통제하고, 개인적 통제요인군이 가지는 순수설명변량(Semipartial R^2)과 반대로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가지는 설명변량을 통제하고, 인구학적 특성·환경적 변수군이 가지는 순수설명변량(Semipartial R^2)을 산출하였다.

셋째, 사회적 통제요인과 개인적 통제요인을 하나로 통합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환경적 변수가 가지는 설명변량을 통제하고,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사회적 통제요인군과 개인적 통제요인군)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순수설명변량(Semipartial R^2)과, 반대로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사회적 통제요인군과 개인적 통제요인군)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효과를 통제하고,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인군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고유설명변량(Semipartial R^2)을 산출하였다. 이 상에서 제시한 각각의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모형 I. 인구학적특성 · 환경적변수군과 사회적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 설명량 산출 및 의의도 검증



A =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변인의 고유설명변량(Semi-partial R^2)

B =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변인군과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공통설명변량

C = 사회적 통제요인의 고유설명변량(Semi-partial R^2)

<완전회귀모형>

$$Y_f = a + b_1(\text{성}) + b_2(\text{거주지}) + b_3(\text{학업성적}) + b_4(\text{가족결손}) + b_5(\text{사회경제적지위}) + b_6(\text{부모관심도}) + b_7(\text{가족관계}) + b_8(\text{학교환경}) + b_9(\text{부모와의유대}) + b_{10}(\text{교사와의유대}) + b_{11}(\text{동료와의 유대})$$

<제한회귀모형 I>

$$Y_{f1} = a + b_1(\text{부모와의유대}) + b_2(\text{교사와의유대}) + b_3(\text{동료와의 유대})$$

<제한회귀모형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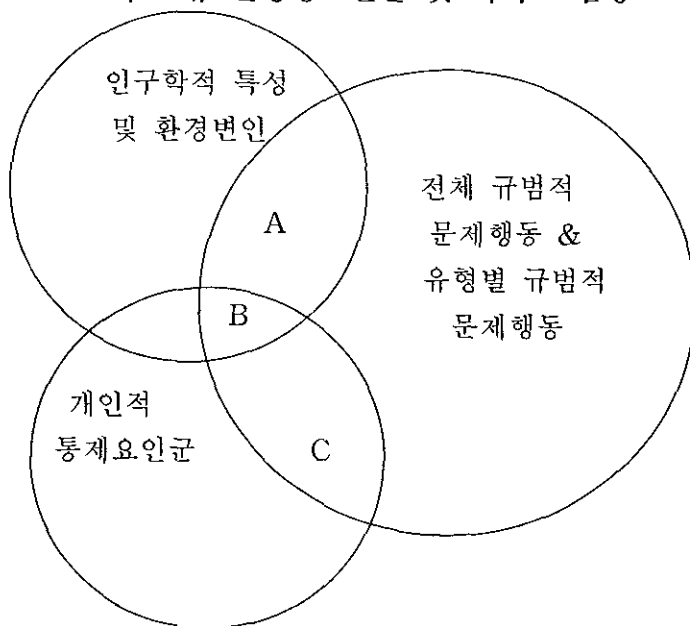
$$Y_{f2} = a + b_1(\text{성}) + b_2(\text{거주지}) + b_3(\text{학업성적}) + b_4(\text{가족결손}) + b_5(\text{사회경제적지위}) + b_6(\text{부모관심도}) + b_7(\text{가족관계}) + b_8(\text{학교환경})$$

<분석내용>

- 인구학적특성 · 환경적변인군 고유설명변량(A: Semi-partial R^2)산출 =
완전회귀모형 R^2 - 제한회귀모형 I의 R^2

- 사회적통제요인군 고유설명변량(C: Semi-partial R^2)산출 = 완전회귀모형 R^2 - 제한회귀모형II의 R^2

분석모형II. 인구학적특성·환경적변수군과 개인적통제 변수군의 고유 설명량 산출 및 의의도 검증



A =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변인의 고유설명변량(Semi-partial R^2)

B =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변인군과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공통설명변량

C = 개인적 통제요인의 고유설명변량(Semi-partial R^2)

<완전회귀모형>

$$Y_f = a + b_1(\text{성}) + b_2(\text{거주지}) + b_3(\text{학업성적}) + b_4(\text{가족결손}) + b_5(\text{사회경제적지위}) + b_6(\text{부모관심도}) + b_7(\text{가족관계}) + b_8(\text{학교환경}) + b_9(\text{문제행동심각성인식수준}) + b_{10}(\text{문제행동원인지각}) + b_{11}(\text{사회규범의식})$$

<제한회귀모형 I>

$$Y_{f1} = a + b_1(\text{성}) + b_2(\text{거주지}) + b_3(\text{학업성적}) + b_4(\text{가족결손}) + b_5(\text{사회경제적지위}) + b_6(\text{부모관심도}) + b_7(\text{가족관계}) + b_8(\text{학교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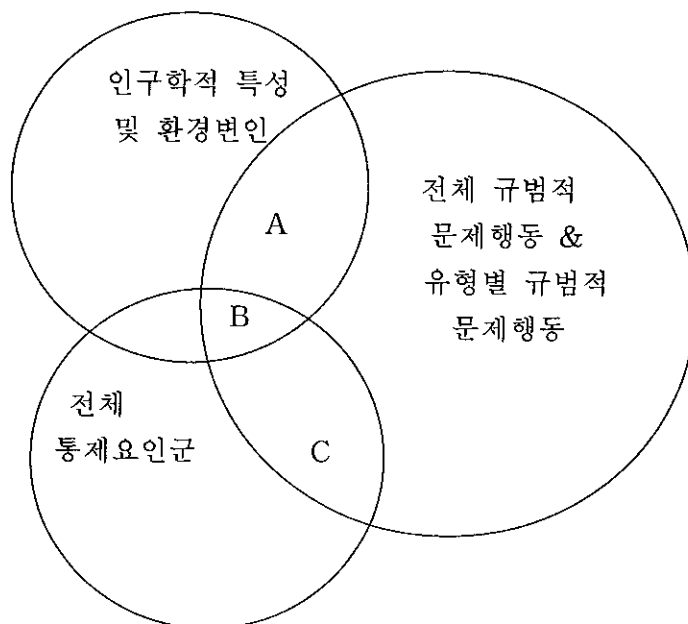
<제한회귀모형 II>

$$Y_{r2} = a + b_1(\text{문제행동심각성인식수준}) + b_2(\text{문제행동원인지각}) + b_3(\text{사회규범의식})$$

<분석내용>

- 인구학적특성·환경적변인군 고유설명변량(A: Semi-partial R^2) = 완전모형 R^2 - 제한모형 II의 R^2
- 개인적통제요인군 고유설명변량(C: Semi-partial R^2) = 완전모형 R^2 - 제한모형 I의 R^2

분석모형 III 인구학적특성·환경적변수군과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사회적통제요인 변수군 & 개인적 통제요인군)의 고유 설명량 산출 및 의의도 검증



- A =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변인의 고유설명변량(Semi-partial R^2)
 B =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변인군과 전체통제요인 변수군의 공통설명변량
 C =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Semi-partial R^2)

<완전회귀모형>

$$Y_f = a + b_1(\text{성}) + b_2(\text{거주지}) + b_3(\text{학업성적}) + b_4(\text{가족결손}) + b_5(\text{사회경제적지위}) + b_6(\text{부모관심도}) + b_7(\text{가족관계}) + b_8(\text{학교환경}) + b_9(\text{부모와의유대}) + b_{10}(\text{교사와의유대}) + b_{11}(\text{동료와의유대}) + b_{12}(\text{문제행동심각성인식수준}) + b_{13}(\text{문제행동원인지각}) + b_{14}(\text{사회규범의식})$$

<제한회귀모형 I>

$$Y_{r1} = a + b_1(\text{성}) + b_2(\text{거주지}) + b_3(\text{학업성적}) + b_4(\text{가족결손}) + b_5(\text{사회경제적지위}) + b_6(\text{부모관심도}) + b_7(\text{가족관계}) + b_8(\text{학교환경})$$

<제한회귀모형 II>

$$Y_{r2} = a + b_1(\text{부모와의유대}) + b_2(\text{교사와의유대}) + b_3(\text{동료와의유대}) + b_4(\text{문제행동심각성인식수준}) + b_5(\text{문제행동원인지각}) + b_6(\text{사회규범의식})$$

<분석내용>

- 인구학적특성 · 환경적변인군 고유설명변량(A. Semi-partial R^2) = 완전모형 R^2 - 제한모형 II의 R^2
- 전체통제요인변수군 고유설명변량(D+E+F: Semi-partial R^2) = 완전모형 R^2 - 제한모형 I의 R^2

단계 2: 각 고유설명변량의 의의도 검증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은 다음의 총 6가지이다.

- 1) 인구학적 · 환경적 변수를 통제하고,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규범적 문제행동을 고유하게 설명하는 변량(R^2 (사회적통제요인변수군 ·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2)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을 통제하고, 인구학적 · 환경적 변수군이 규범적

문제행동을 고유하게 설명하는 변량($R^2_{(\text{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cdot \text{사회적통제요인변수군})}$),

3) 인구학적 · 환경적 변수를 통제하고,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규범적 문제행동을 고유하게 설명하는 변량($R^2_{(\text{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 \cdot \text{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4)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을 통제하고, 인구학적 · 환경적 변수군이 규범적 문제행동을 고유하게 설명하는 변량($R^2_{(\text{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cdot \text{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

5) 인구학적 · 환경적 변수를 통제하고, 전체통제요인 변수군이 규범적 문제행동을 고유하게 설명하는 변량($R^2_{(\text{전체통제요인변수군} \cdot \text{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6)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을 통제하고, 인구학적 · 환경적 변수군이 규범적 문제행동을 고유하게 설명하는 변량($R^2_{(\text{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cdot \text{전체통제요인변수군})}$).

이 각 고유설명변량을 단계 I에서 산출하고, 그 산출된 고유설명변량들의 의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식:

$$F_{(kf-kr, n-kf-1)} = [(R_f^2 - R_r^2) \div (1-R_f^2)] \times [(n-kf-1) \div (kf-kr)]$$

k_f = 완전모델에서의 독립변인수, k_r =제한모델에서의 독립변인수, n =사례수

를 이용하여 F 비를 구한 후, F 값의 의의도를 검증함으로써 각 변수군의 고유설명 변량의 의의도를 판정할 것이다.

공 백

IV. 연구결과

IV

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심각성 인식도
2.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범위설정
3.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분류
4.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요인 탐색결과
5.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 독립변수군별
고유 설명변량의 산출 및 의의도 검증

공 백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심각성 인식도

청소년들이 24개의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각각에 대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인식도

규범적 문제행동	N	M	SD
귀걸이 착용	1846	2.34	1.16
머리염색	1849	2.43	1.03
질은 화장	1849	3.14	1.06
체중조절용 식/약품 복용	1845	3.54	1.14
술집출입	1849	3.90	1.09
유흥장(디스코텍/나이트클럽)출입	1848	3.62	1.10
음주	1850	3.33	1.14
흡연	1848	4.05	.98
성인용 노래방 출입	1847	3.45	1.15
비디오방 출입	1848	3.27	1.20
음란물 보기	1849	3.66	1.05
폭력/잔혹물 보기	1846	3.58	1.08
성적접촉(키스/포옹등)행위	1844	3.02	1.13
성관계	1845	3.87	1.12
PC방 출입	1848	1.71	.89
부모에게 반항하기	1843	3.93	.86
교사에게 반항하기	1844	3.85	.92
부모에게 거짓으로 용돈타기	1844	3.73	.91
무단결석하기	1843	3.97	.86
부모 허락 없는 외박	1846	3.89	.95
가출하기	1847	4.37	.82
시험부정행위	1847	3.96	.94
부모나 가족의 돈/신용카드 도용	1848	4.50	.70
심한 말다툼	1845	3.17	.94

청소년들에게 본 연구가 표집한 예비 규범적 문제행동 24개 각각이 얼마나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질문하였다. 5점 척도의 중간점이 3점이기 때문에 평균치가 3 이하이면,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그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PC방 출입, 귀걸이 착용, 머리염색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5점 척도의 중간 점(3)이하의 평균치를 보여 문제행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PC방 출입의 경우에는 그 평균치가 1.71에 불과하고 그 인식의 합치도(표준편차가 작음)도 높았다. 반면, 부모나 가족의 돈이나 신용카드를 도용하는 행위, 가출, 흡연 등에 대해서는 다른 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분석자료는 이후에 실시할 분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각 행동의 평균치는 이후 24개 규범적 문제행동을 유형별 그리고 전체로 유목화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로 활용되었다.

2.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범위설정

앞서 밝혔듯이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는 법률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따라 그리고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판단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24개의 예비 청소년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것들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온 규범적 문제행동들을 단순히 표집한 것으로 실제로 현재 관찰자(주로 성인)의 입장이나 행위자(청소년)의 입장에서 판단된 문제행동들은 아니다. 따라서 각 행동들이 현재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문제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다고 할 수 있다.

24개 예비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교사 학부모들의 문제행동 여부 판단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2>와 같다.

<표 IV-2> 판단주체별 규범적 문제행동 여부 판정결과

()안의 숫자는 %임

행동	문제성 판정기준 (행위자 기준)	판단주체		
		학부모	교사	청소년
귀걸이 착용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28(12.8)	8(3.2)	21(5.8)
	청소년만 문제	111(50.7)	145(58.0)	67(18.7)
	모두 문제 아님	80(36.5)	97(38.8)	271(75.5)
머리염색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38(17.4)	21(8.4)	17(4.7)
	청소년만 문제	101(46.1)	131(52.4)	73(20.3)
	모두 문제 아님	80(36.5)	98(39.2)	270(75.0)
질은 화장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35(16.0)	18(7.2)	29(8.1)
	청소년만 문제	145(66.2)	185(74.0)	150(42.0)
	모두 문제 아님	39(17.8)	47(18.8)	178(49.9)
체중조절용 식/약품 복용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110(50.2)	104(41.6)	146(40.7)
	청소년만 문제	66(30.1)	80(32.0)	76(21.2)
	모두 문제 아님	43(19.6)	66(26.4)	137(38.2)
술집출입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42(19.3)	10(4.0)	48(13.4)
	청소년만 문제	167(76.6)	227(90.8)	245(68.6)
	모두 문제 아님	9(4.1)	13(5.2)	64(17.9)
유흥장출입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34(15.5)	11(4.4)	43(12.0)
	청소년만 문제	158(72.1)	198(79.2)	260(72.4)
	모두 문제 아님	27(12.3)	41(16.4)	56(15.6)

<표 IV-2' 계속> 판단주체별 규범적 문제행동 여부 판정결과

()안의 숫자는 %임

행동	문제성 판정기준 (행위자 기준)	판단주체		
		학부모	교사	청소년
음주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43(19.6)	14(5.6)	46(12.8)
	청소년만 문제	167(76.3)	220(88.0)	164(45.7)
	모두 문제 아님	9(4.1)	16(6.4)	149(41.5)
흡연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71(32.4)	51(20.4)	134(37.4)
	청소년만 문제	142(64.8)	187(74.8)	166(46.4)
	모두 문제 아님	6(2.7)	12(4.8)	58(16.2)
성인용 노래방 출입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43(19.6)	19(7.6)	58(16.2)
	청소년만 문제	147(67.1)	205(82.0)	237(66.0)
	모두 문제 아님	29(13.2)	26(10.4)	64(17.8)
비디오방 출입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57(26.0)	23(9.2)	51(14.2)
	청소년만 문제	135(61.6)	167(66.8)	193(53.9)
	모두 문제 아님	27(12.3)	60(24.0)	114(31.8)
음란물 보기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99(54.2)	80(32.0)	106(29.5)
	청소년만 문제	113(51.6)	157(62.8)	159(44.3)
	모두 문제 아님	7(3.2)	13(5.2)	94(26.2)
폭력/잔혹물 보기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95(43.4)	64(25.6)	103(28.7)
	청소년만 문제	109(49.8)	165(66.0)	149(41.5)
	모두 문제 아님	15(6.8)	21(8.4)	107(29.8)

<표 IV-2 계속> 판단주체별 규범적 문제행동 여부 판정결과

()안의 숫자는 %임

행 동	문제성 판정기준 (행위자 기준)	판단주체		
		학부모	교사	청소년
성적접촉 (키스/포옹 등) 성인의 경우에는 부부간 관계 제외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76(34.7)	67(26.8)	32(8.9)
	청소년만 문제	109(49.8)	134(53.6)	146(40.8)
	모두 문제 아님	34(15.5)	49(19.6)	180(50.3)
성관계 하기 (성인의 경우에는 부부성관계 제외)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163(74.4)	147(58.8)	145(40.4)
	청소년만 문제	50(22.8)	85(34.0)	167(46.5)
	모두 문제 아님	6(2.7)	18(7.2)	47(13.1)
PC 방 출입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25(11.5)	11(4.4)	13(3.6)
	청소년만 문제	49(22.5)	54(21.6)	14(3.9)
	모두 문제 아님	144(66.1)	185(74.0)	332(92.5)
부모에게 반항하기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156(71.2)	185(74.0)	173(48.5)
	청소년만 문제	43(19.6)	43(17.2)	102(28.6)
	모두 문제 아님	20(9.1)	22(8.8)	82(23.0)
교사에게 반항하기	문제행동 임	211(96.3)	238(95.2)	233(67.1)
	문제 행동 아님	8(3.7)	12(4.8)	114(32.9)
부모에게 거짓으로 용돈타기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128(58.7)	159(63.6)	165(46.2)
	청소년만 문제	67(30.7)	53(21.2)	104(29.1)
	모두 문제 아님	23(10.6)	38(15.2)	88(24.6)

<표 IV-2 계속> 판단주체별 규범적 문제행동 여부 판정결과

()안의 숫자는 %임

행동	문제성 판정기준 (행위자 기준)	판단주체		
		학부모	교사	청소년
무단결석	문제행동 임	207(94.5)	231(92.4)	256(73.4)
	문제행동 아님	12(5.5)	19(7.6)	93(26.6)
무단외박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120(54.8)	126(50.4)	141(39.5)
	청소년만 문제	89(40.6)	109(43.6)	157(44.0)
	모두 문제 아님	10(4.6)	15(6.0)	59(16.5)
무단가출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177(81.2)	182(72.8)	207(57.8)
	청소년만 문제	34(15.6)	58(23.2)	109(30.4)
	모두 문제 아님	7(3.2)	10(4.0)	42(11.7)
시험 부정행위	문제행동 임	188(85.8)	244(97.8)	251(72.3)
	문제행동 아님	31(14.2)	6(2.4)	96(27.7)
부모 돈/신용카드 도용하기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171(78.8)	201(80.4)	240(67.2)
	청소년만 문제	43(19.8)	39(15.6)	85(23.8)
	모두 문제 아님	3(1.4)	10(4.0)	32(9.0)
심한 말다툼	청소년/성인 모두 문제	102(46.8)	98(39.2)	83(23.2)
	청소년만 문제	32(14.7)	38(15.2)	48(13.4)
	모두 문제 아님	84(38.5)	114(45.6)	227(63.4)

선행연구를 통하여 표집된 24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들의 문제성 여부에 대한 판단주체(청소년/학부모/교사)별 판정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4개 규범적 문제행동들에 대한 문제성 판정에서, 같은 행동이라도 그것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문제성 판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그 행동을 성인이 했느냐 아니면, 청소년들이 했느냐에 따라 문제성 판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기할 사실은 성인들은 대부분의 행동에 대해 그 행위주체가 성인이 했을 때는 문제가 안되고, 청소년이 했을 경우에는 문제행동으로 판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청소년들은 상당수의 행동들에 대해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행위에 대해 청소년과 성인간에 문제성 판정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규범적 문제행동을 둘러싸고 심각한 세대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 판정에 있어 행위자와 관찰자간에 인식차이가 심한 특징을 가진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성 판정에서의 성인과 청소년 집단간의 차이 정도가 각 행동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여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판정이 유사한 반면,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는 문제성 판정에서 심한 세대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행동별 성인집단과 청소년 집단간의 문제성 판정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귀걸이 착용 - 성인들의 경우에는 귀걸이 착용이 성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청소년에게만 문제된다는 판정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은 75.5%가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문제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이 행동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성인간에 큰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

- 머리염색 - 머리 염색의 경우에도, 성인들은 성인들에게는 문제가 되

지 않고 청소년에게만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모두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에 이른다. 따라서 이 역시 성인과 청소년들간의 인식차이가 큰 행동이다.

- 짚은 화장 - 짚은 화장하기에 대해서 성인들은 성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청소년에게만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만 문제가 된다는 응답과 누구든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고, 이중 모두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청소년에게만 문제된다는 응답보다 약간 높았는데 그 응답율이 50% 가까이 되었다. 따라서 이 행동에 대해서 역시 그 문제성 판정에서 청소년과 성인간에 의견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체중조절용 식/약품 복용 -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집단이나 청소년 집단 모두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모두 문제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다만 청소년에게만 문제된다는 응답에서는 성인들이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문제행동이라는 판정을 하는데 있어 비교적 유사성을 띠고 있다.
- 술집출입 -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집단이나 청소년집단 모두 청소년에게만 문제되는 행동이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다만 그 응답율에서 성인집단이 청소년집단에 비해 약간 높았을 뿐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집단과 청소년집단 모두 큰 차이 없이 청소년에게만 문제되는 행동이라고 판정하고 있었다.
- 유흥장출입 - 이 행동에 대해서 역시 성인집단이나 청소년집단 모두 청소년에게만 문제되는 행동이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응답율에서 성인집단과 청소년집단이 매우 유사하였다.

- 음주 -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집단의 경우 청소년에게만 문제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청소년집단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만 문제가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기는 했지만,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모두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흡연 - 이 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성인집단의 경우 청소년에게만 문제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그 응답율에 있어서 청소년 집단이 성인집단 보다 낮았다.
- 성인용 노래방 출입 - 이 행동에 대해서는 판정 집단간에 큰 차이 없이 청소년에게만 문제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 비디오방 출입 - 이 행동에 대해서 역시 판정 집단간에 큰 차이 없이 청소년에게만 문제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 음란물 보기 -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집단과 청소년 집단 모두 청소년에게만 문제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청소년집단의 경우에는 모두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율이 성인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폭력/잔혹물 보기 - 이 행동에 대해서 역시 성인집단과 청소년 집단 모두 청소년에게만 문제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청소년집단의 경우에 모두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율이 성인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성적 접촉(성인의 경우 부부관계는 제외) -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 집단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문제된다는 의견과 청소년에게만

문제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모두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과 청소년만 문제된다는 응답이 지배적인 반면 모두에게 문제된다는 의견은 지극히 낮았다 따라서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과 청소년간에 뚜렷한 의식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성인집단은 이 행동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반대로 청소년은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성관계(성인의 경우 부부관계는 제외) -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집단이나 청소년 집단 공히 모두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현저하게 낮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인집단은 이 행동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반대로 청소년은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 PC 방 출입 - 이 행동에 대한 문제성 판정은 성인집단이든 청소년집단이든 공히 모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응답율이 절대적인 수준(92.5%)이었다 따라서 이 행동은 문제행동을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부모에게 반항하기 -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집단이나 청소년 집단 모두 모두에게 문제되는 행동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그 응답율은 청소년 보다 성인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교사에게 반항하기 - 이 행동은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행동이어서 행위자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여부만을 판정하도록 하였다 성인 집단이나 청소년 집단 모두 이 행동이 문제되는 행동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그 응답율은 청소년 보다 성인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부모에게 거짓으로 용돈 타내기 -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집단이나

청소년 집단 모두, 모두에게 문제되는 행동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만 모두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 청소년 집단이 성인집단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여주었다

- 무단결석 - 이 행동은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행동이어서 행위자를 구
분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여부만을 판정하도록 하였다. 성인집단이나
청소년 집단 모두 이 행동이 문제되는 행동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
만, 그 응답율은 청소년 보다 성인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무단외박 - 이 행동은 성인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문제되는
행동이라는 판정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반면, 청소년의 경우에
는 모두에게 문제된다는 반응과 청소년에게만 문제된다는 반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다만 모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율에 있어서는 청소년 집단이 성인집단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높았다
- 무단가출 - 이 행동은 성인이나 청소년 집단 모두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에게 문제되는 행동이라는 판정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았는데 그
반응율에 있어서 청소년 집단보다 성인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시험부정행위 - 이 행동은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행동이어서 행위자
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여부만을 판정하도록 하였다. 성인집단
이나 청소년 집단 모두 이 행동이 문제되는 행동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그 응답율은 청소년 보다 성인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부모의 돈/신용카드 도용하기 -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집단이나 청
소년 집단 모두 모두에게 문제되는 행동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만 청소년에게만 문제된다는 응답과 모두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

답에서 청소년 집단이 성인집단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여주었다.

- 심한 말다툼 하기 -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집단의 경우 모두에게 문제된다는 응답과 청소년에게만 문제된다는 응답율이 과반수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청소년집단의 경우에는 모두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지금까지 제시한 연구결과들을 정리·요약하기 위하여 24개 행동의 문제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였던 3가지 판정기준을 두 가지 기준으로 단순화시켜²⁾, 각 판정 주체들이 각 행동을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판정하는 비율을 확인하였다. 판정기준이 둘이고, 판정주체가 둘이므로 논리적으로는 4개의 판정 결과³⁾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으로 여겨왔던 행동들에 대해 청소년과 성인들이 그 문제성을

2) 문제성 여부를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 중, ‘모두에게 문제되지 않음’이라는 판정기준은 그대로 두고, ‘성인/청소년 모두에게 문제됨’의 판정기준과 ‘청소년에게만 문제됨’의 판정기준을 통합하여 이를 ‘청소년에게 문제됨’이라는 새로운 기준 형성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 분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반응을 50%이상/하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판정주체들(성인집단과 청소년집단)이 대체로(과반수 이상) 각 행동을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논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판정결과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성인과 청소년 모두 과반수 이상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판정한 행동.
둘째, 성인들은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문제행동으로, 청소년은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문제행동이 아니라고 판정한 행동
셋째, 청소년들은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문제행동으로, 성인들은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문제행동이 아니라고 판정한 행동
넷째, 성인과 청소년 모두 과반수 이상 청소년 문제행동이 아니라고 판정한 행동.

하지만, 이 네 가지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판정결과중 세 번째 판정결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여 문제행동의 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삼고, 성인들은 문제삼지 않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없었다

놓고 판정한 결과들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 - 3>과 같다.

<표 IV-3> 규범적 문제행동 범위 설정을 위한 분류체계

1. 귀걸이 착용	7. 음주	13.성적접촉	19.무단결석
2. 머리염색	8. 흡연	14.성관계	20.무단외박
3. 짙은 화장	9. 성인용 노래방출입	15.PC방 출입	21.무단기출
4.체중조절용 식/약품 복용	10.비디오방 출입	16.부모에게 반항	22.시험부정행위
5. 술집출입	11.음란물 보기	17.교사에게 반항	23.부모의 돈/카드 도용
6. 유흥장출입	12.폭력물 보기	18.거짓으로 용돈 타기	24.심한 말다툼

□ = 성인과 청소년 모두 과반수 이상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판정한 행동
(공통 준거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 = 성인들은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문제행동으로, 청소년은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문제행동이 아니라고 판정한 행동
(성인준거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 = 성인과 청소년 모두 과반수 이상 청소년 문제행동이 아니라고 판정한 행동
(공통준거 非 문제행동)

앞서 규범적 문제행동은 그 판단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고, 사회규범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가 변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였다. 표 IV-3에 제시된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으로 여겨왔던 총 24개 행동들 중 귀걸이 착용, 머리염색, 짙은 화장과 같은 자기 표현적 행위와 성적 접촉 행위(키스, 포옹 등), 그리고 심한 말다툼과 같은 행위는 성인들만이 문제행동으로 분류하는 ‘성인준거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으로 분류된다. 다시 말하여 이 행동들은 성인들만 문제행동으로 분류하고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으로 보지 않는 행동들이다. 따라서 이 행동들은 행위자인 청소년과 관찰자 내지 평가자인 성인들간에 그 문제성을

놓고 갈등이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들에 속한다. 이때 행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관찰자(평가자)의 의견에 비중을 더 두어 문제행동으로 분류할 것인지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판단유보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다만 선행연구들이 이 행동들을 문제행동으로 다루어 왔고, 아직 그 문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후로 본 연구에서 수행하게 될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분류를 위한 요인분석과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요인 탐색시에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PC 방 출입”은 성인과 청소년 공히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행위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문제행동으로 보지 않는 규범적 행위를 이 연구가 문제행동으로 다루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다.

3.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분류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유형분류를 이 연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화를 시도해 왔다. 그 접근법들은 크게 연구자의 직관과 성찰에 의존하는 방식과 경험적 자료를 기초로 하는 요인분석법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 중 규범적 문제행동만을 선별하여 요인분석법을 활용하여 그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요인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23개의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청소년들이 지각한 문제 심각성 인식도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4>와 같다.

<표 IV- 4>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화를 위한 요인분석결과

요인	단위행동	1	2	3
1.표출형	귀걸이 착용	.856	-	-
	머리염색	.781	-	-
	질은 화장	.629	-	-
	체중조절용 식/약품 복용	.473	-	-
2.유흥형	술집출입	-	.740	-
	유흥장출입	-	.702	-
	음주	-	.661	-
	흡연	-	.633	-
	성인용 노래방 출입	-	.591	-
	비디오방 출입	-	.639	-
	음란물 보기	-	.789	-
	폭력물 보기	-	.748	-
	성적접촉행위	-	.669	-
	성관계	-	.674	-
3.권위도전형	부모에게 반항하기	-	-	.733
	교사에게 반항하기	-	-	.696
	부모에게 거짓으로 용돈타기	-	-	.641
	무단결석	-	-	.649
	무단외박	-	-	.602
	무단가출	-	-	.678
	시험부정행위	-	-	.537
	부모 돈/카드 도용	-	-	.664
	심한 말다툼	-	-	.408

*회전방식: Varimax, Eigen value = 1.00

요인분석결과,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3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요인은 청소년들의 자기표현 행위와 관련된 행동들이 묶여 이를 「표출형 문제행동」으로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청소년들의 유흥행위와 관련된 행동들이 서로 묶여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은 성인이나 사회규범 및 도덕에 반하는 행위들로 서로 묶여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이 세 요인은 각 해당 행동에 가중치를 반영한 후 합산되어 앞으로 실시할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요인 분석의 종속변수가 되었다.

4.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요인 탐색결과

본 절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표출형, 유흥·풍속형, 권위도전형)과 이들을 통합한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종속변수는 규범적 문제행동의 유형인 표출형, 유흥·풍속형, 권위도전형 문제행동과 이들을 통합한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 네 개이며, 이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해 투입된 독립변수는 총 14개로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변인군,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 사회적 통제요인군과 개인적 통제요인군으로 구분된다.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변인군에는 청소년의 성, 거주지역, 학업성적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과 가족결손도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정의 구조적 환경변인, 그리고 부모관심도, 가족관계와 같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 그리고 학교생활환경변인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에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중요한 타자인 부모, 교사 및 동료와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포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에는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된 청소년의 문제행동심각성인식수준, 문제행동의 원인지각과 사회규범의식에 포함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상관계수들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5>와 같다

1 성별	100																			
2 거주지	-180 **	100																		
3 학업성적	009	000	100																	
4 가족결손도	-038	106 **	-049 *	100																
5 사회경제적지위	009	-169 **	184 **	-108 **	100															
6 부모관심도	-014	016	172 **	-090 **	170 **	100														
7 가족관계	-026	-038	172 **	-102 **	151 **	502 **	100													
8 학교생활환경	-065 **	-002	220 **	-072 **	085 **	173 **	296 **	100												
9 부모와의유대감	021	000	154 **	023	073 **	372 **	376 **	173 **	100											
10 교사와의유대감	-040	031	143 **	-028	059 **	218 **	222 **	335 **	504 **	100										
11 동료와의 유대감	051 *	013	077 **	039	053 **	266 **	234 **	051 *	460 **	392 **	100									
12 문제행동심각성 인식도	-041	-022	046	-111 **	056 **	151 **	231 **	384 **	243 **	365 **	085 **	100								
13.문제행동원인지각	024	-039	064 **	-026	-009	047 *	003	-013	037	024	066 **	-016	100							
14 사회규범 의식	032	024	009	004	-050 *	083 **	056 *	077 **	123 **	112 **	105 **	135 **	019	100						
15 표출적문제행동	421 **	-133 **	-119 **	014	-026	-097 **	-147 **	-225 **	-103 **	-148 **	-011	-322 **	036	-002	100					
16.유희공숙형문제행동	-197 **	121 **	-141 **	144 **	-102 **	-105 **	-166 **	-279 **	-119 **	-201 **	-010	-537 **	011	-067 **	364 **	100				
17 권위도전형문제행동	031	016	-135 **	086 **	-059 **	-109 **	-220 **	-338 **	-153 **	-226 **	023	-487 **	020	-024	397 **	596 **	100			
18.전체규범적문제행동	-007	047	-164 **	123 **	-089 **	-130 **	-226 **	-355 **	-155 **	-243 **	008	-582 **	025	-044	578 **	885 **	874 **	100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 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3개의 독립변수군(인구학적·환경적 변인군,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들이 각각 종속변수에 대해 가지는 고유 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검증하기에 앞서, 각 독립변수군에 포함되어 있는 총 14개 독립변수들이 개별적으로 종속변수인 규범적 문제행동과 가지는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별(표출형 문제행동,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전체문제행동)로 중다회귀분석(enter 방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출형 문제행동 관련요인

규범적 문제행동의 첫 번째 하위 유형인 '표출형 문제행동'의 관련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회귀방정식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식>

$$\text{표출형문제행동} = a + b_1(\text{성}) + b_2(\text{거주지}) + b_3(\text{학업성적}) + b_4(\text{가족결손}) + b_5(\text{사회경제적지위}) + b_6(\text{부모관심도}) + b_7(\text{가족관계}) + b_8(\text{학교환경}) + b_9(\text{부모와의유대}) + b_{10}(\text{교사와의유대}) + b_{11}(\text{동료와의유대}) + b_{12}(\text{문제행동심각성인식수준}) + b_{13}(\text{문제행동원인지각}) + b_{14}(\text{사회규범의식})$$

<표 IV-6> 표출형 문제행동 관련요인 탐색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군	독립변수명	b	β	R	R ²	F(dfh, dfe)
인구학적 · 환경적 변수군	성별	2.517	.398***	.540	.291	44.23 _(14, 1508) ***
	거주지	-.103	-.031			
	학업성적	-.271	-.086***			
	가족결손	.130	.013			
사회적 통제요인군	사회경제적지위	.033	.024			
	부모관심도	-.077	-.024			
	가족관계	-.028	-.038			
	학교생활환경	-.063	-.076**			
개인적 통제요인군	부모와의 유대	-.009	-.006			
	교사와의 유대	-.006	-.005			
	동료와의 유대	.013	.012			
	문제행동심각성인식	-.058	-.257***			
	문제행동원인지각	.359	.042*			
	사회규범의식	.075	.044*			

*p<.05, **p<.01, ***p<.001

14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관계와 설명효과를 검증한 결과, 14개 전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가지는 설명변량은 총 29.1%였다. 다시말하여 규범적 문제행동의 한 유형인 표출형 문제행동 전체 변량의 약 29%가 본 연구가 투입한 14개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각 개별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대해 가지는 관계를 검증한 결과 14개 독립변수중 6개 독립변수가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는데, 그 관련성의 크기는 성, 문제행동심각성인식수준, 학업성적, 학교생활환경, 사회규범의식, 문제행동원인지각유형의 순이었다. 결국 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변수와 학업성적 및 학교생활만족도와 같은 학교생활관련 변수, 그리고 개인적 통제요인에 속하는 문제행동심각성인식, 사회규범의식 및 문제행동원인지각유형 세 변수들이 모두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진 반면, 거주지, 사회경제적지위, 부모관심도, 가족관계등과 같은 환경적 변수와 부모, 교사, 동료와의 유대감과 같은 사회적 통제요인들은 모두 표출적 문제행동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지지 못했다.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표출형 문제행동)와 가지는 관계의 방식을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표출형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높고, 학교생활환경에 만족할수록 표출적 문제행동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문제행동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사회규범의식이 높을수록 표출적 문제행동수준이 낮았고,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한 외부귀인성향, 즉 청소년이 일으키는 문제행동이 청소년들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원인지각을 할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다. 다시말하여 청소년 문제가 청소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표출적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홍·풍속형 문제행동 관련요인

규범적 문제행동의 두 번째 하위 유형인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의 관련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회귀방정식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식>

$$\begin{aligned} \text{유홍·풍속형문제행동} = & a + b_1(\text{성}) + b_2(\text{거주지}) + b_3(\text{학업성적}) + b_4(\text{가족결손}) + b_5(\text{사회경제적지위}) + b_6(\text{부모관심도}) + \\ & b_7(\text{가족관계}) + b_8(\text{학교환경}) + b_9(\text{부모와의유대}) + b_{10}(\text{교사와의유대}) + b_{11}(\text{동료와의유대}) + \\ & b_{12}(\text{문제행동심각성인식수준}) + b_{13}(\text{문제행동원인지각}) + b_{14}(\text{사회규범의식}) \end{aligned}$$

<표 IV-7> 유홍·풍속형 문제행동 관련요인 탐색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군	독립변수명	b	β	R	R ²	F(df _n , df _e)
인구학적 · 환경적 변수군	성별	-3.855	-.226 ***	.601	.361	60.82(14,1505)***
	거주지	-.152	-.017			
	학업성적	-.735	-.087 ***			
	가족결손	1.523	.058 **			
	사회경제적지위	-.111	-.030			
	부모관심도	-.080	-.009			
	가족관계	-.045	-.023			
	학교생활환경	-.142	-.064 **			
사회적 통제요인군	부모와의 유대	.118	.033			
	교사와의 유대	-.054	-.019			
	동료와의 유대	.152	.052 *			
개인적 통제요인군	문제행동심각성인식	-.305	-.504 ***			
	문제행동원인지각	.076	.003			
	사회규범의식	.068	.015			

*p<.05, **p<.01, ***p<.001

14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관계와 설명효과를 검증한 결과, 14개 전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가지는 설명변량은 총 36.1%였다. 다시말하여 규범적 문제행동의 한 유형인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전체 변량의 약 36.1%가 본 연구가 투입한 14개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각 개별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대해 가지는 관계를 검증한 결과 14개 독립변수중 6개 독립변수가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는데, 그 관련성의 크기는 문제행동심각성인식수준, 성, 학업성적, 학교생활환경, 가족결손, 동료와의 유대의 순이었다. 인구학적·환경적 변수군에서는 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변수와 학업성적 및 학교생활만족도와 같은 학교생활관련 변수, 그리고 가족결손도와 같은 가정환경변수가 유흥·풍속형 문제행동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고, 사회적 통제요인군에서는 동료와의 유대변수가, 그리고 개인적 통제요인군에서는 문제행동심각성인식 변수가 종속변수인 유흥·풍속형 문제행동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다.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유흥·풍속형 문제행동)와 가지는 관계의 방식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높고, 학교생활환경에 만족할수록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수준이 낮았으며, 가족결손도가 높을수록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수준이 높았다. 또한 문제의 심각성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문제행동수준이 낮았다. 특기할 사실은 동료와의 유대감이 높을수록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수준이 높았다는 것이다

(3)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관련요인

규범적 문제행동의 세 번째 하위 유형인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의 관련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회귀방정식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식>

$$\begin{aligned} \text{권위도전형} = & a + b_1(\text{성}) + b_2(\text{거주지}) + b_3(\text{학업성적}) + b_4(\text{가족결손}) + b_5(\text{사회경제적지위}) + b_6(\text{부모관심도}) + b_7(\text{가족관계}) + \\ & b_8(\text{학교환경}) + b_9(\text{부모와의 유대}) + b_{10}(\text{교사와의 유대}) + b_{11}(\text{동료와의 유대}) + b_{12}(\text{문제행동심각성인식수준}) + b_{13}(\text{문제행동원인지각}) + b_{14}(\text{사회규범의식}) \end{aligned}$$

<표 IV-8>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관련요인 탐색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군	독립변수명	b	β	R	R ²	F _(dfn, dfe)
인구학적	성별	-.078	-.005	.537	.289	43.16(14, 1490)***
	거주지	-.346	-.042			
	학업성적	-.504	-.064 **			
	가족결손	.269	.011			
환경적 변수군	사회경제적지위	-.029	-.009			
	부모관심도	.283	.035			
	가족관계	-.193	-.105 ***			
	학교생활환경	-.240	-.116 ***			
사회적 통제요인군	부모와의 유대	-.132	-.040			
	교사와의 유대	-.117	-.044			
	동료와의 유대	.280	.104 ***			
개인적 통제요인군	문제행동심각성인식	-.226	-.405 ***			
	문제행동원인지각	.257	.012			
	사회규범의식	.203	.048 *			

*p<.05, **p<.01, ***p<.001

14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관계와 설명효과를 검증한 결과, 14개 전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가지는 설명변량은 총 28.9%였다. 다시말하여 규범적 문제행동의 한 유형인 표출형 문제행동 전체 변량의 약 29%가 본 연구가 투입한 14개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각 개별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관계를 검증한 결과 14개 독립변수중 6개 독립변수가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는데, 그 관련성의 크기는 문제행동심각성인식수준, 학교생활환경, 가족관계, 동료와의 유대, 학업성적, 사회규범의식의 순이었다. 인구학적·환경적 변수군에서는 학교생활환경과 학업성적과 같은 학교생활관련 변수와 가족관계와 같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수가 권위도전형 문제행동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고, 사회적 통제요인군에서는 동료와의 유대 변수가, 그리고 개인적 통제요인군에서는 문제행동심각성인식 변수와 사회규범의식 변수가 종속변수인 권위도전형 문제행동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다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권위도전형 문제행동)와 가지는 관계의 방식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높고, 학교생활환경에 만족할수록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수준이 낮았으며,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다. 또한 문제심각성인식수준이 높을수록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다. 특기할 사실은 사회규범의식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다는 것과, 동료와의 유대가 높을수록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4)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요인

지금까지 앞에서 밝힌 규범적 문제행동의 세 요인을 통합하여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 변수를 산출하고, 그 관련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회귀방정식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식>

전체규범적문제행동 = $a + b_1(\text{성}) + b_2(\text{거주지}) + b_3(\text{학업성적}) + b_4(\text{가족결손}) + b_5(\text{사회경제적지위}) + b_6(\text{부모관심도}) + b_7(\text{가족관계}) + b_8(\text{학교환경}) + b_9(\text{부모와의유대}) + b_{10}(\text{교사와의유대}) + b_{11}(\text{동료와의유대}) + b_{12}(\text{문제행동심각성인식수준}) + b_{13}(\text{문제행동원인지각}) + b_{14}(\text{사회규범의식})$

<표 IV-9>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요인 탐색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군	독립변수명	b	β	R	R ²	F _(dfh, dfe)
인구학적	성별	-1.498	-.046 *	.619	.384	65.45 _(14, 1472) ***
	거주지	-.625	-.037			
	학업성적	-1.481	-.092 ***			
	가족결손	1.926	.039			
환경적 변수군	사회경제적지위	-.108	-.015			
	부모관심도	.120	.007			
	가족관계	-.283	-.075 **			
	학교생활환경	-.444	-.105 ***			
사회적 통제요인군	부모와의 유대	.014	.002			
	교사와의 유대	-.192	-.035			
	동료와의 유대	.445	.083 ***			
개인적 통제요인군	문제행동심각성인식	-.584	-.511 ***			
	문제행동원인지각	.693	.016			
	사회규범의식	.341	.039			

* $p < .05$, ** $p < .01$, *** $p < .001$

14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관계와 설명효과를 검증한 결과, 14개 전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가지는 설명변량은 총 38.4%였다. 다시 말하여 규범적 문제행동의 한 유형인 표출형 문제행동 전체 변량의 약 38%가 본 연구가 투입한 14개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각 개별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관계를 검증한 결과 14개 독립변수중 6개 독립변수가 유의있는 관련성

을 가졌는데, 그 관련성의 크기는 문제행동심각성인식수준, 학교생활환경, 학업성적, 동료와의 유대, 가족관계, 응답자의 성 순이었다. 인구학적·환경적 변수군에서는 응답자의 성과 학교생활환경과 학업성적과 같은 학교생활관련 변수, 그리고 가족관계와 같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수가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고, 사회적 통제요인군에서는 동료와의 유대 변수가, 그리고 개인적 통제요인군에서는 문제행동심각성인식 변수가 종속변수인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다.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와 가지는 관계의 방식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고, 학업성적이 높고, 학교생활환경에 만족할수록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수준이 낮았으며,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다. 또한 문제심각성인식수준이 높을수록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다. 특기할 사실은 사회적 통제요인중 동료와의 유대감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다는 것이다.

2) 연구결과 요약

지금까지 회귀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 유형과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의 관련된 요인들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10> 과 같다.

<표 IV-10>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요인 분석 결과 요약표

독립변수군	독립변수명	종속변수명			
		표출형	유형·종속형	권위도전형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
인구학적 · 환경적 변수군	성별	+ ***	- ***		- *
	거주지				
	학업성적	- ***	- ***	- **	- ***
	가족결손		+ **		
	사회경제적지위				
	부모관심도				
	가족관계			- ***	- **
	학교생활환경	- **	- **	- ***	- ***
사회적 통제요인군	부모와의 유대				
	교사와의 유대				
	동료와의 유대		+ *	+ ***	+ ***
개인적 통제요인군	문제행동심각성인식	- ***	- ***	- ***	- ***
	문제행동원인지각	+ *			
	사회 규범의식	+ *		+ *	
R ² (%)		.291 (29.1%)	.361 (36.1%)	.289 (28.9%)	.384 (38.4%)

*p<.05, **p<.01, ***p<.001, +와 -는 관계의 방향을 의미함.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 유형과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의 관련된 요인들을 요약한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변수들중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학교생활환경에 대한 지각은 규범적 문제행동의 모든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생활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규범적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관계방식은 규범적 문제행동 모든 유형에 걸쳐 일관성을 보였다. 한편 가족결손은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해서만, 가족관계는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해서만 유의있는 관련성을 보였는데, 가족결손도가 높을수록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다. 청소년의 성은 표출형 문제행동과 유홍풍속형 문제행동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으나, 권위도전형 문제행동과는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지지 못했다. 특기할 사실은 표출적 문제행동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반면,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 문제행동관련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들중, 부모와의 유대와 교사와의 유대는 세 가지 유형의 규범적 문제행동 어느 것보다도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동료와의 유대는 유홍·풍속형과 권위도전형 문제행동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다. 특기할 사실은 동료와의 유대 수준이 높을수록 유홍·풍속형 문제행동과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았다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 문제행동관련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들중, 문제행동 심각성 인식수준은 세 가지 유형의 규범적 문제행동 모두와 유의있는 관련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방향도 일관성을 보였다. 청소년들이 본 연구에서 다룬 규범적 문제행동들의 문제 심각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규범적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았다. 한편 문제행동원인지각유형은 표출형 문제행동에만 유의있는 관련성을 보였는데,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원인이 청소년 자신보다는 외적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지각할수록 표출적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사회규범의식은 표출형 문제행동과 권위도전형 문제행동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는데, 한결같이 사회규범의식이 높을수록 그 문제행동 수준도 낮았다.

5.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 독립변수군별 고유 설명변량의 산출 및 의의도 검증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세 하위 유형(표출형 문제행동, 유흥·풍속형, 권위도전형 문제행동)과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한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 및 의의도 검증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첫 번째 하위영역인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해, 인구학적 특성·환경적 변수가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을 통제한 후, 나머지 세 독립변수군(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 전체통제요인 변수군)각각이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의 의의도와, 반대로 세 가지 통제요인 변수군 각각이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을 통제한 후, 인구학적·환경적 변수군이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의 의의도를 검증한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 설명변량 의의도 검증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11>과 같다.

<표 IV-11>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명	b	β	R	R^2	$F_{(dfh, dfe)}$
전체모형	성별	2.508	.396 ***	.484	.235	43.53 _(11,1562) ***
	거주지	-.165	-.050 *			
	학업성적	-.205	-.065 **			
	가족결손	.359	.037			
	사회경제적지위	.020	.015			
	부모관심도	-.048	-.015			
	가족관계	-.046	-.062 *			
	학교생활환경	-.120	-.145 ***			
	부모와의 유대	-.037	-.028			
	교사와의 유대	-.064	-.060 *			
	동료와의 유대	.037	.034			
제한모형 I	부모와의 유대	-.080	-.061 *	.168	.028	17.30 _(3,1562) ***
	교사와의 유대	-.161	-.150 ***			
	동료와의 유대	.080	.075 **			
제한모형 II	성별	2.535	.401 ***	.481	.231	59.65 _(8,1562) ***
	거주지	-.177	-.053 *			
	학업성적	-.216	-.069 **			
	가족결손	.325	.033			
	사회경제적지위	.018	.013			
	부모관심도	-.084	-.026			
	가족관계	-.049	-.067 *			
	학교생활환경	-.135	-.164 ***			
인구학적특성·환경적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2_{(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cdot 사회적통제요인변수군)} = .207$ $F_{(8,1550)} = 52.31$ ***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2_{(사회적통제요인변수군 \cdot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004$ $F_{(3,1550)} = 2.58$			

*p<.05, **p<.01, ***p<.00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 유형인 ‘표출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R^2 (인구학적/환경적변수

군) / R^2 (사회적통제요인변수군)은 각각 231(23.1%)과 .028(2.8%)로서 모두 유의있는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편 각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한 결과,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표출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028; 2.8%)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 사회적통제요인군))이 207(20.7%)로서 여전히 표출형 문제행동을 유의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표출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은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이 표출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231; 23.1%)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 (사회적통제요인군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이 .004 (0.4%)로서 유의있는 설명력을 가지지 못했다. 다시 말하여 사회적 통제요인군은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 즉, 단독적으로는 표출형 문제행동을 유의있게 설명하지만,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이 함께 독립변수로 포함되었을 때에는 그 설명력의 대부분이 독립적 설명변량이 아닌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환경적 변수와 함께 설명하는 공통설명변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사회적 통제요인군이 함께(공동으로) 표출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량(공통변량)은 .024(2.4%)였다

(2)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 설명변량 의의도 검증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12>와 같다.

<표 IV-12>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명	b	β	R	R ²	F _(dfh, dfe)
전체모형	성별	2 528	.400 ***	.540	.292	57.28 _(11,1562) ***
	거주지	- 102	-.031			
	학업성적	- 270	-.086 ***			
	가족결손	.098	.010			
	사회경제적지위	.031	.023			
	부모관심도	-.088	-.027			
	가족관계	-.028	-.038			
	학교생활환경	-.063	-.076 **			
	문제심각성인식도	-.058	-.259 ***			
	문제행동원인지각	.035	.041 *			
	사회규범의식	.072	.042 *			
제한모형 I	문제심각성인식도	-.074	-.330 ***	.328	.108	70.24 _(3,1562) ***
	문제행동원인지각	.173	.021			
	사회규범의식	.073	.044 *			
제한모형 II	성별	2 535	.401 ***	.481	.231	59.65 _(8,1562) ***
	거주지	-.177	-.053 *			
	학업성적	-.216	-.069 **			
	가족결손	.325	.033			
	사회경제적지위	.018	.013			
	부모관심도	-.084	-.026			
	가족관계	-.049	-.067 *			
	학교생활환경	-.135	-.164 ***			
인구학적특성·환경적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 = .184 F _(8,1550) = 50.38***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061 F _(3,1550) = 44.43***			

*p<.05, **p<.01, ***p<.00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 유형인 ‘표출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R²_{(인구학적/환경적변수}

군) / $R^2_{\text{(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은 각각 231(23.1%)과 .108(10.8%)로서 모두 유의있는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편 각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한 결과,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표출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108; 10.8%)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 사회적통제요인군)}}$)이 .184(18.4%)로서 여전히 표출형 문제행동을 유의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표출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이 표출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231; 23.1%)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사회적통제요인군 ·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이 .061(6.1%)로서 유의있는 설명력을 가졌다. 따라서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표출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참고로 인구학적특성 · 환경적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군이 함께(공동으로) 표출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량(공통변량)은 .047(4.7%)였다.

(3) 인구학적특성 · 환경적 변수와 전체통제요인변수군(사회적 ·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의의도 검증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 · 환경적 변수군과 전체 통제요인변수군(사회적 ·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13>과 같다

<표 IV-13>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전체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명	b	β	R	R^2	F(dfh, dfe)
전체모형	성별	2.517	.398 ***	.540	.291	44.23 _(14,1508) ***
	거주지	-.103	-.031			
	학업성적	-.271	-.086 ***			
	가족결손	.130	.013			
	사회경제적지위	.033	.024			
	부모관심도	-.077	-.024			
	가족관계	-.028	-.038			
	학교생활환경	-.063	-.076 **			
	부모와의 유대	-.009	-.006			
	교사와의 유대	-.006	-.005			
	동료와의 유대	.013	.012			
	문제심각성인식도	-.058	-.257 ***			
	문제행동원인지각	.359	.042 *			
	사회규범의식	.075	.044 *			
제한모형 I	부모와의 유대	-.040	-.031	.333	.111	35.85 _(6,1562) ***
	교사와의 유대	-.056	-.052			
	동료와의 유대	.042	.040			
	문제심각성인식도	-.068	-.307 ***			
	문제행동원인지각	.196	.023			
	사회규범의식	.082	.049 *			
제한모형 II	성별	2.535	.401 ***	.481	.231	59.65 _(8,1562) ***
	거주지	-.177	-.053 *			
	학업성적	-.216	-.069 **			
	가족결손	.325	.033			
	사회경제적지위	.018	.013			
	부모관심도	-.084	-.026			
	가족관계	-.049	-.067 *			
	학교생활환경	-.135	-.164 ***			
인구학적특성·환경적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2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전체통제요인변수군) = .180 $F_{(8,1547)} = 49.21^{***}$				
전체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2 (전체통제요인변수군·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060 $F_{(6,1547)} = 21.96^{***}$				

* $p < .05$, ** $p < .01$, *** $p < .00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전체통제요인변수군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 유형인 ‘표출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R^2_{(\text{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R^2_{(\text{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은 각각 .231(23.1%)과 .111(11.1%)로서 모두 유의있는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편 각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한 결과,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전체통제요인 변수군이 표출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111; 11.1%)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 사회적통제요인군})}$)이 .180(18.0%)로서 여전히 표출형 문제행동을 유의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표출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이 표출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231; 23.1%)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사회적통제요인군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이 .180(18.0%)로서 유의있는 설명력을 가졌다 따라서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표출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참고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전체통제요인 변수군이 함께 (공동으로) 표출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량(공통변량)은 .051(5.1%)였다.

2)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한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 및 의의도 검증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두 번째 하위영역인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해, 인구학적 특성·환경적 변수가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을 통제한 후, 나머지 세 통제요인관련 독립변수군(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 전체통제요인 변수군)각각이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의 의의도와, 반대로 세 가지 통제요인 변수군 각각이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을 통제한 후, 인구학적·환경적 변수군이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의 의의도를 검증한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의의도 검증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14>와 같다.

<표 IV-14>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명	b	β	R	R ²	F _(dfh, - dfe)
전체모형	성별	-3.810	-.224 ***	.410	.168	28.64 _(11,1562) ***
	거주지	-.493	-.055 *			
	학업성적	-.373	-.044			
	가족결손	2.901	.110 ***			
	사회경제적지위	-.176	-.048			
	부모관심도	-.094	-.011			
	가족관계	-.138	-.070 *			
	학교생활환경	-.449	-.203 ***			
	부모와의 유대	-.030	-.008			
	교사와의 유대	-.394	-.138 ***			
	동료와의 유대	.269	.093 ***			
제한모형 I	부모와의 유대	-.228	-.064 *	.221	.049	30.79 _(3,1562) ***
	교사와의 유대	-.602	-.209 ***			
	동료와의 유대	.287	.100 ***			
제한모형 II	성별	-3.721	-.219 ***	.395	.156	36.65 _(8,1562) ***
	거주지	-.578	-.065 **			
	학업성적	-.454	-.054 *			
	가족결손	3.259	.125 ***			
	사회경제적지위	-.183	-.050 *			
	부모관심도	-.055	-.006			
	가족관계	-.131	-.067 *			
	학교생활환경	0.542	-.245 ***			
인구학적특성·환경적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사회적통제요인변수군) = .119 F _(8,1550) = 27.71***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사회적통제요인변수군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012 F _(3,1550) = 7.44***			

*p<.05, **p<.01, ***p<.00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 유형인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R²_{(인구학적/환}

경적변수군) / $R^2_{\text{(사회적통제요인변수군)}}$ 은 각각 156(15.6%)과 049(4.9%)로서 모두 유의있는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편 각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한 결과,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049; 4.9%)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 사회적통제요인군)}}$)이 119(11.9%)로서 여전히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을 유의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사회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이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156; 15.6%)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사회적통제요인군 ·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이 .012(1.2%)로서 유의있는 설명력을 가졌다. 따라서 사회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참고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함께(공동으로)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량(공통변량)은 .037(3.7%)였다.

(2)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 설명변량 의의도 검증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15>와 같다.

<표 IV-15>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명	b	β	R	R ²	F _(dfn, dfe)
전체모형	성별	-3.857	-.226 ***	.598	.357	77.20 _(11,1562) ***
	거주지	-.191	-.021			
	학업성적	-.718	-.085 ***			
	가족결손	1.846	.071 ***			
	사회경제적지위	-.123	-.033			
	부모관심도	.088	.010			
	가족관계	-.016	-.008			
	학교생활환경	-.152	-.069 **			
	문제심각성인식도	-.302	-.498 ***			
	문제행동원인지각	.142	.006			
	사회규범의식	.096	.021			
제한모형 I	문제심각성인식도	-.330	-.545 ***	.543	.295	243.38 _(3,1562) ***
	문제행동원인지각	-.236	-.010			
	사회규범의식	.054	.012			
제한모형 II	성별	-3.721	-.219 ***	.395	.156	36.65 _(8,1562) ***
	거주지	-.578	-.065 **			
	학업성적	-.454	-.054 *			
	가족결손	3.259	.125 ***			
	사회경제적지위	-.183	-.050 *			
	부모관심도	-.055	-.006			
	가족관계	-.131	-.067 *			
	학교생활환경	0.542	-.245 ***			
인구학적특성·환경적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 = .062 F _(8,1550) = 18.60***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201 F _(3,1550) = 161.72***			

*p<.05, **p<.01, ***p<.00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 유형인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R^2_{\text{(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R^2_{\text{(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은 각각 .156(15.6%)과 .295(29.5%)로서 모두 유의있는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편 각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한 결과,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295; 29.5%)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사회적통제요인군)}}$)이 .062(6.4%)로서 여전히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을 유의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이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156; 15.6%)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사회적통제요인군·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이 .201(20.1%)로서 유의있는 설명력을 가졌다. 따라서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참고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군이 함께(공동으로)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량(공통변량)은 .094(9.4%)였다.

(3)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전체통제요인변수군(사회적·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의의도 검증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전체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16>과 같다.

<표 IV-16> 유희·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전체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명	b	β	R	R ²	F(dfh, dfe)
전체모형	성별	-3.855	-.226 ***	.601	.361	60.82 _(14,1505) ***
	거주지	-.152	-.017			
	학업성적	-.735	-.087 ***			
	가족결손	1.523	.058 **			
	사회경제적지위	-.111	-.030			
	부모관심도	-.080	-.009			
	가족관계	-.045	-.023			
	학교생활환경	-.142	-.064 **			
	부모와의 유대	.118	.033			
	교사와의 유대	-.054	-.019			
	동료와의 유대	.152	.052 *			
	문제심각성인식도	-.305	-.504 ***			
	문제행동원인지각	.076	.003			
	사회규범의식	.068	.015			
제한모형 I	부모와의 유대	.035	.010	.547	.300	122.37 _(6,1562) ***
	교사와의 유대	-.080	-.028			
	동료와의 유대	.131	.045			
	문제심각성인식도	-.328	-.543 ***			
	문제행동원인지각	-.309	-.014			
	사회규범의식	.029	.006			
제한모형 II	성별	-3.721	-.219 ***	.395	.156	36.65 _(8,1562) ***
	거주지	-.578	-.065 **			
	학업성적	-.454	-.054 *			
	가족결손	3.259	.125 ***			
	사회경제적지위	-.183	-.050 *			
	부모관심도	-.055	-.006			
	가족관계	-.131	-.067 *			
	학교생활환경	0.542	-.245 ***			
인구학적특성·환경적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전체통제요인변수군) = .061 F _(8,1547) = 18.41***			
전체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전체통제요인변수군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205 F _(6,1547) = 82.92***			

*p<.05, **p<.01, ***p<.00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전체통제요인변수군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 유형인 ‘유혹·풍속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R^2_{\text{(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R^2_{\text{(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은 각각 156(15.6%)과 .300(30.0%)로서 모두 유의있는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편 각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한 결과,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전체통제요인 변수군이 유혹·풍속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300; 30.0%)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 사회적통제요인군)}}$)이 .061(6.1%)로서 여전히 유혹·풍속형 문제행동을 유의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전체통제요인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유혹·풍속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이 유혹·풍속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156; 15.6%)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사회적통제요인군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이 .205(20.5%)로서 유의있는 설명력을 가졌다. 따라서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유혹·풍속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참고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전체통제요인 변수군이 함께(공동으로) 유혹·풍속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량(공통변량)은 .095(9.5%)였다.

3)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 및 의의도 검증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세 번째 하위영역인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해, 인구학적 특성·환경적 변수가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을 통제한 후, 나머지 세 통제요인관련 독립변수군(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 전체통제요인 변수군)각각이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의 의의도와, 반대로 세가지 통제요인 변수군 각각이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을 통제한 후, 인구학적·환경적 변수군이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의 의의도를 검증한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의의도 검증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17>과 같다.

<표 IV-17>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명	b	β	R	R ²	F(df _n , df _e)
전체모형	성별	-.046	-.003	.404	.163	27.42 _(11,1562) ***
	거주지	-.584	-.071 **			
	학업성적	-.218	-.028			
	가족결손	1.270	.052 *			
	사회경제적지위	-.076	-.022			
	부모관심도	.214	.027			
	가족관계	-.252	-.137 ***			
	학교생활환경	-.469	-.227 ***			
	부모와의 유대	-.220	-.066 *			
	교사와의 유대	-.371	-.141 ***			
	동료와의 유대	.344	.129 ***			
제한모형 I	부모와의 유대	-.370	-.112 ***	.273	.074	47.43 _(3,1562) ***
	교사와의 유대	-.623	-.234 ***			
	동료와의 유대	.437	.164 ***			
제한모형 II	성별	.095	.006	.373	.139	31.62 _(8,1562) ***
	거주지	-.638	-.077 **			
	학업성적	-.340	-.044			
	가족결손	1.428	.060 *			
	사회경제적지위	-.075	-.022			
	부모관심도	.156	.019			
	가족관계	-.264	-.145 ***			
	학교생활환경	-.560	-.273 ***			
인구학적특성·환경적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_(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사회적통제요인변수군) = .089 F _(8,1560) = 20.54***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_(사회적통제요인변수군·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024 F _(3,1560) = 14.81***		

*p<.05, **p<.01, ***p<.00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 유형인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R^2_{\text{(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R^2_{\text{(사회적통제요인변수군)}}$)은 각각 .139(13.9%)과 .074(7.4%)로서 모두 유의있는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편 각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한 결과,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074; 7.4%)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 사회적통제요인군)}}$)이 .089(8.9%)로서 여전히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유의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사회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이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139; 13.9%)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사회적통제요인군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이 .024(2.4%)로서 유의있는 설명력을 가졌다. 따라서 사회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참고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함께(공동으로)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량(공동변량)은 .050(5.0%)였다.

(2)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 설명변량 의의도 검증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18>과 같다

<표 IV-18>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명	b	β	R	R ²	F _(dfh, dfe)
전체모형	성별	.005	.000	.528	.279	53.20 _(11, 1562) ***
	거주지	-.342	-.041			
	학업성적	-.566	-.072 **			
	가족결손	.352	.015			
	사회경제적지위	-.028	-.008			
	부모관심도	.328	.041			
	가족관계	-.187	-.103 ***			
	학교생활환경	-.258	-.126 ***			
	문제심각성인식도	-.232	-.417 ***			
	문제행동원인지각	.255	.012			
	사회규범의식	.216	.051 *			
제한모형 I	문제심각성인식도	-.277	-.449 ***	.494	.245	186.20 _(3, 1562) ***
	문제행동원인지각	.036	.002			
	사회규범의식	.209	.050 *			
제한모형 II	성별	.095	.006	.373	.139	31.62 _(8, 1562) ***
	거주지	-.638	-.077 **			
	학업성적	-.340	-.044			
	가족결손	1.428	.060 *			
	사회경제적지위	-.075	-.022			
	부모관심도	.156	.019			
	가족관계	-.264	-.145 ***			
	학교생활환경	-.560	-.273 ***			
인구학적특성·환경적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_(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 = .034 F _(8, 1550) = 9.11***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_(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140 F _(3, 1550) = 100.34***			

*p<.05, **p<.01, ***p<.00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 유형인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R^2_{\text{(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R^2_{\text{(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은 각각 139(13.9%)과 245(24.5%)로서 모두 유의있는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편 각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한 결과,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295, 29.5%)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사회적통제요인군)}}$)이 .034(3.4%)로서 여전히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유의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이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139; 13.9%)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사회적통제요인군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이 140(14.0%)로서 유의있는 설명력을 가졌다. 따라서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참고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군이 함께(공동으로)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량(공동변량)은 .105(10.5%)였다.

(3)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전체통제요인변수군(사회적·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의의도 검증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전체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19>와 같다

<표 IV-19>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전체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명	b	β	R	R^2	$F_{(dfn, dfe)}$
전체모형	성별	-.078	-.005	.537	.289	43.16 _(14,1490) ***
	거주지	-.346	-.042			
	학업성적	-.504	-.064 **			
	가족결손	.269	.011			
	사회경제적지위	-.029	-.009			
	부모관심도	.283	.035			
	가족관계	-.193	-.105 ***			
	학교생활환경	-.240	-.116 ***			
	부모와의 유대	-.132	-.040			
	교사와의 유대	-.117	-.044			
	동료와의유대	.280	.104 ***			
	문제심각성인식도	-.226	-.405 ***			
	문제행동원인지각	.257	.012			
	사회규범의식	.203	.048 *			
제한모형 I	부모와의 유대	-.192	-.058 *	.510	.260	99.38 _(6,1562) ***
	교사와의 유대	-.215	-.081 **			
	동료와의유대	.326	.122 ***			
	문제심각성인식도	-.259	-.467 ***			
	문제행동원인지각	.029	.001			
	사회규범의식	.203	.049 *			
제한모형 II	성별	.095	.006	.373	.139	31.62 _(8,1562) ***
	거주지	-.638	-.077 **			
	학업성적	-.340	-.044			
	가족결손	1.428	.060 *			
	사회경제적지위	-.075	-.022			
	부모관심도	.156	.019			
	가족관계	-.264	-.145 ***			
	학교생활환경	-.560	-.273 ***			
인구학적특성·환경적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2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전체통제요인변수군) = .029 $F_{(8,1550)} = 7.91$ ***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2 (전체통제요인변수군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150 $F_{(6,1550)} = 54.50$ ***			

* $p < .05$, ** $p < .01$, *** $p < .00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전체통제요인변수군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 유형인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R^2_{(\text{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R^2_{(\text{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은 각각 139(13.9%)과 .260(26.0%)로서 모두 유의있는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편 각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한 결과,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전체통제요인 변수군이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260; 26.0%)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 사회통제요인군})}$)이 .029(2.9%)로서 여전히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유의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이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139; 13.9%)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사회적통제요인군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이 .150(15.0%)로서 유의있는 설명력을 가졌다 따라서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참고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전체통제요인 변수군이 함께(공동으로)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량(공통변량)은 110(11.0%)였다.

4)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 및 의의도 검증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세 하위영역을 통합한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인구학적 특성·환경적 변수가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을 통제한 후, 나머지 세 통제요인관련 독립변수군(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 전체통제요인 변수군)각각이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의 의의도와, 반대로 세가지 통제요인 변수군 각각이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을 통제한 후, 인구학적·환경적 변수군이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고유설명변량의 의의도를 검증한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의의도 검증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20>과 같다.

<표 IV-20>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명	b	β	R	R ²	F _(dfh, dfe)
전체모형	성별	-1.448	-.045	.431	.186	31.61 _(11,1562) ***
	거주지	-1.312	-.077 ***			
	학업성적	-.770	-.048 *			
	가족결손	4.602	.093 ***			
	사회경제적지위	-.240	-.034			
	부모관심도	.064	.004			
	가족관계	-.453	-.120 ***			
	학교생활환경	-1.035	-.224 ***			
	부모와의 유대	-.259	-.038			
	교사와의 유대	-.834	-.154 ***			
	동료와의 유대	.650	.119 ***			
제한모형 I	부모와의 유대	-.673	-.099 ***	.280	.078	49.46 _(3,1562) ***
	교사와의 유대	-1.381	-.252 ***			
	동료와의 유대	.816	.149 ***			
제한모형 II	성별	-1.183	-.037	.404	.164	37.91 _(8,1562) ***
	거주지	-1.456	-.086 ***			
	학업성적	-.970	-.061 *			
	가족결손	5.086	.103 ***			
	사회경제적지위	-.246	-.035			
	부모관심도	.007	.000			
	가족관계	-.462	-.123 ***			
	학교생활환경	-1.235	-.293 ***			
인구학적특성·환경적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_(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사회적통제요인변수군) = .108 F _(8,1550) = 25.71***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_(사회적통제요인변수군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022 F _(3,1550) = 13.95***				

*p<.05, **p<.01, ***p<.00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이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R^2_{\text{(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R^2_{\text{(사회적통제요인변수군)}}$)은 각각 .164(16.4%)과 .078(7.8%)로서 모두 유의있는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편 각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한 결과,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078; 7.8%)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 사회적통제요인군)}}$)이 .108(10.8%)로서 여전히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을 유의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사회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이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164; 16.4%)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사회적통제요인군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이 .022(2.2%)로서 유의있는 설명력을 가졌다. 따라서 사회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참고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함께(공동으로)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량(공통변량)은 .056(5.6%)였다.

(2)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 설명변량 의의도 검증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21>과 같다.

<표 IV-21>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명	b	β	R	R ²	F _(dfh, dfe)
전체모형	성별	-1.392	-.043 *	.614	.377	82.16 _(11,1562) ***
	거주지	-.660	-.039			
	학업성적	-1.516	-.094 ***			
	가족결손	2.326	.048 *			
	사회경제적지위	-.117	-.017			
	부모관심도	.324	.019			
	가족관계	-.241	-.064 **			
	학교생활환경	-.478	-.113 ***			
	문제심각성인식도	-.588	-.514 ***			
	문제행동원인지각	.760	.017			
	사회규범의식	.385	.044 *			
제한모형 I	문제심각성인식도	-.677	.023 ***	.589	.347	302.03 _(3,1562) ***
	문제행동원인지각	-.011	.847			
	사회규범의식	.348	.170 *			
제한모형 II	성별	.095	.006	.373	.139	31.62 _(8,1562) ***
	거주지	-.638	-.077 **			
	학업성적	-.340	-.044			
	가족결손	1.428	.060 *			
	사회경제적지위	-.075	-.022			
	부모관심도	.156	.019			
	가족관계	-.264	-.145 ***			
	학교생활환경	-.560	-.273 ***			
인구학적특성·환경적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 = .030 F _(8,1550) = 9.32***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238 F _(3,1550) = 197.34***			

*p<.05, **p<.01, ***p<.00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이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R^2_{\text{(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R^2_{\text{(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은 각각 .139(13.9%)과 .347(34.7%)로서 모두 유의있는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편 각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한 결과,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347; 34.7%)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사회적통제요인군)}}$)이 .030(3.4%)로서 여전히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을 유의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이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139; 13.9%)을 통제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사회적통제요인군·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이 .238(23.8%)로서 유의있는 설명력을 가졌다. 따라서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참고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군이 함께(공동으로)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량(공동변량)은 .109(10.9%)였다.

(3)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전체통제요인변수군(사회적·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의의도 검증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전체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22>와 같다.

<표 IV-22>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전체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명	b	β	R	R ²	F(dth, dte)
전체모형	성별	-1.498	-.046 *	.619	.384	65.45 _(14,1472) ***
	거주지	-.625	-.037			
	학업성적	-1.481	-.092 ***			
	가족결손	1.926	.039			
	사회경제적지위	-.108	-.015			
	부모관심도	.120	.007			
	가족관계	-.283	-.075 **			
	학교생활환경	-.444	-.105 ***			
	부모와의 유대	.014	.002			
	교사와의 유대	-.192	-.035			
	동료와의 유대	.445	.083 ***			
	문제심각성인식도	-.584	-.111 ***			
	문제행동원인지각	.693	.016			
	사회규범의식	.341	.039			
제한모형 I	부모와의 유대	-.183	-.027	.597	.356	154.72 _(6,1562) ***
	교사와의 유대	-.360	-.066 **			
	동료와의 유대	.510	.093 ***			
	문제심각성인식도	-.652	-.112 ***			
	문제행동원인지각	-.090	-.002			
	사회규범의식	.321	.037			
제한모형 II	성별	.095	.006	.373	.139	31.62 _(8,1562) ***
	거주지	-.638	-.077 **			
	학업성적	-.340	-.044			
	가족결손	1.428	.060 *			
	사회경제적지위	-.075	-.022			
	부모관심도	.156	.019			
	가족관계	-.264	-.145 ***			
	학교생활환경	-.560	-.127 ***			
인구학적특성·환경적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전체통제요인변수군) = .028 F _(8,1550) = 8.81***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R ² (전체통제요인변수군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245 F _(6,1550) = 102.74***				

*p<.05, **p<.01, ***p<.001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전체통제요인변수군이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R^2_{(\text{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 R^2_{(\text{개인적통제요인변수군})}$)은 각각 139(13.9%)과 .356(35.6%)로서 모두 유의있는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편 각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한 결과,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전체통제요인 변수군이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356; 35.6%)을 통제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 \cdot \text{사회적통제요인군})}$)이 .028(2.8%)로서 여전히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을 유의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은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이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139; 13.9%)을 통제된 후에 산출된 고유설명변량($R^2_{(\text{사회적통제요인군} \cdot \text{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이 .245(24.5%)로서 유의있는 설명력을 가졌다. 따라서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청소년의 인구학적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상관없이(통제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참고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군과 전체통제요인 변수군이 함께(공동으로)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량(공통변량)은 .111(11.1%)였다.

5) 연구결과의 요약

지금까지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세 하위 유형(표출형 문제행동, 유흥·풍속형, 권위도전형 문제행동)과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23>과 같다.

<표 IV-23>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요인 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공통설명변량과 전체설명변량

종속변수	분석	각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공통 설명변량 (%)	전체 설명변량 (%)
		인구학적 특성· 환경적 변수군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		
표출형 문제행동	1	20.7***	0.4	-	-	2.4	23.5***
	2	18.4***	-	6.1***	-	4.7	29.2***
	3	18.0***	-	-	6.0***	5.1	29.1***
유형· 풍속형 문제행동	1	11.9***	1.2***	-	-	3.7	16.8***
	2	6.2***	-	20.1***	-	9.4	35.7***
	3	6.1***	-	-	20.5***	9.5	36.1***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1	8.9***	2.4***	-	-	5.0	16.3***
	2	3.4***	-	14.0***	-	10.5	27.9***
	3	2.9***	-	-	15.0***	11.0	28.9***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	1	10.8***	2.2***	-	-	5.6	18.6***
	2	3.0***	-	23.8***	-	10.9	37.7***
	3	2.8***	-	-	24.5***	11.1	38.4***

* $p < .05$, ** $p < .01$, *** $p < .001$, +와 -는 관계의 방향을 의미함.

-는 해당 독립변수군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분석 1 =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vs 사회적통제요인 변수군

분석 2 =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vs 개인적통제요인 변수군

분석 3 = 인구학적·환경적변수군 vs. 전체통제요인 변수군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세 하위 유형(표출형 문제행동, 유형·
풍속형, 권위도전형 문제행동)과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독립변수
군별 고유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여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세 하위 유형과 전체 규범적 문제

행동에 대해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과 전체 통제요인(사회적 통제요인 +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크기를 비교해 보면, 표출형 문제행동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이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에 비해 고유설명변량이 컸으나, 그 이외의 나머지 규범적 문제행동 두 하위유형(유혹·풍속형 문제행동, 권위도전형 문제행동)과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서는 전체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이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보다 적게는 3배 이상 많게는 8배 이상 더 컸다.

이는 결국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들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성을 가지기는 하나, 그 관련성은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통제요인이나 개인적 통제요인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에는 큰 설명력을 가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문제행동 관련 통제요인들은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환경적 변수들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량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비록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 유형인 '표출형 문제행동'에서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들의 고유설명변량이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에 비해 크기는 했지만, 이는 분석에 포함된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변수 수(8개)가 전체통제요인 변수군의 변수수(6개)에 비해 컸기 때문에 전체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둘째, 통제요인 변수군을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으로 구분하여 그 고유 설명변량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은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에 비해 작게는 5배 이상 크게는 16배 이상 고유설명변량이 컸다. 따라서 이 결과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통제요인보다는 개인적 통제요인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큼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에 포함

되었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유형인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해서 가장 큰 고유설명변량을 가진 독립변수군은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이었으며, 그 다음이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 순이었으며,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은 의의 있는 고유설명변량을 가지지 못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그리고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순이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록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이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에 비해 작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에 속한 변수들이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에 속한 변수들에 비해 그 중요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통제요인군에 속한 변수수는 3개인 반면,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에 속한 변수수는 8개 있기 때문이다. 이 분석에서는 각 개별 변수들의 효과보다는 이들을 각 변수군별로 묶어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변수수가 많은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이 변수수가 작은 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에 비해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다면, 3개의 독립변수를 포함한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이 8개의 독립변수를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변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고유설명변량을 가졌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V. 요약 및 논의

공 백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첫째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행동의 범위는 경험적으로 확인되기보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그리고 성인 중심으로 설정되어 왔다. 따라서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청소년 문제행동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있어서 합의가 없어왔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행동중 사회규범에 의해 규정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범위는 시대변화에 따라 그 대상범위를 달리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위를 설정하는 일은 시대변화와 함께 그 대상범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경험적으로 확인한다는 말은 특정 행동과 관련하여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성 여부 판단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그 문제성 판단 주체로서 관찰자(성인)뿐만 아니라 행위자인 청소년의 판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범위설정을 위한 판단주체로 포함시켰다.

두 번째 목적은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유형을 분류해 내는 것이었다.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전체 청소년 문제행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대상범위 설정과 분류기준이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성격의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성격의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성격별로 유형화하지 않게 되면 여러모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결과의 실천적 함의를 찾아내는데 큰 무리가 따른다. 같은 청소년 문제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원인도 다르고 대처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행동 유형분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상행동과 그 범위가 연구자마다 달랐고,

문제행동을 분류할 때 적용한 기준들이 서로 다르거나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연구내에서도 서로 다른 성격의 분류기준들이 혼란스럽게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다루어온 전체적인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목록을 작성하고 각 행동의 문제성 여부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들의 분류 결과와 조사자료에 근거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마지막 목적은 경험적 분석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별로 그 관련요인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어 분석에 포함시킨 독립변수는 총 14개였으며, 이들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세 독립변수군으로 유목화하였다. 이렇게 세 독립변수군별로 유목화한 이유는 비교적 통제불가능한 변수영역에 해당되는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에 비하여 비교적 통제가 가능한 영역에 해당되는 변수영역인 사회통제요인(부모, 교사, 동료와의 유대)과 개인적 통제요인(문제심각성인식도,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지각유형, 사회규범의식)변수군들이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들이 가지는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들이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가지는 고유한 설명효과를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밝혀온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요인들은 다양하나 이들은 크게 청소년이 처한 환경적 특성과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요인(개인차)으로 구별할 수 있다. 비록 많은 연구들이 문제행동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들을 밝혀 왔지만,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문제의 환경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 개입하여 그 관계를 통제하거나 조절

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변인들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취하는 연구들은 문제행동과 관련된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요인을 다룸으로써 환경결정론적 입장을 취하는 사회학적 접근법의 제한점을 보완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을 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능 및 다양한 성격적 특성(정신질환, 충동성, 우울증, 공격성, 불안 등)과 같이 통제불가능한 개인적 특성요인을 문제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청소년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나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있어 제한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데 시사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청소년을 낙인(Labeling)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 동시에 청소년 문제행동관련 정책적 방향이나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실제적인 시사점을 주는 변인들을 선별하였는데, 그것들이 바로 본 연구에서 다룬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에 속하는 변수들이다. 사회적 통제요인이란 부모, 교사, 동료와 같이 자신을 둘러싼 중요한 타자와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중요한 타자와의 사회적 유대가 강하고 그 사회적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청소년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문제행동 충동을 억제하거나 제어한다는 선행연구(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결과에 기초한다. 한편 개인적 통제요인이란 외부의 다른 통제요인(예컨대, 환경적 요인, 사회적 통제요인)과 상관없이(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문제행동 충동을 제어하게 하는 문제행동과 관련된 청소년의 의식, 신념 및 태도를 대표하는 변수들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사회적 통제요인과 개인적 통제요인을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주요 설명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변수군이 가지는 설명력에 대비하여 이들이 가지는 설명력을 비교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

적이었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중심으로 본 연구가 발견한 주요 결과들과 그 결과들이 청소년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다루어 왔던 행동들중 일부의 행동들에 대해서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행위자인 청소년과 관찰자인 성인들이 공히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해서 그 행동이 전혀 문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도약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른 행동들은 타인에게 해를 입힌다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 단순히 사회규범에 위배되고, 그 행위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문제시 되는 규범적 문제행동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회구성원들이 문제시하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문제행동으로 분류하는 것도 무리이다. 이 연구결과는 적어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다루는 연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정책안을 마련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무엇이 청소년 문제행동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문제성 여부를 둘러싸고 관찰자인 성인집단과 행위자인 청소년 집단간에 심한 세대간 인식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다른 규범적 문제행동들중 일부(특히 장신구 착용, 머리염색, 짙은 화장 등과 같은 표출적 행동과 성적 접촉행위, 심한 말다툼 등)에 대해서 행위자인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이 아니라고 응답한 반면, 관찰자인 성인들은 그것들을 모두 문제행동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결국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각 행동들이 '문제행동'인지 아니면, 청소년의 '독특한 행동 특성' 내지 '청소년의 문화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규범적 문제행동은 사회문화적 특성과 규범에 따라 그것이 문제행동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문화적 특수성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

여 적어도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영역은 성인들의 인식과 청소년 인식간에 큰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일부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 문제행동으로 분류하고 있었지만, 성인들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행하였을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반면, 청소년들은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여 이 역시 세대간의 인식차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셋째, 요인분석결과,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표출형 문제행동, 유흥·풍속형문제행동,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의 세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요인은 주로 청소년들의 자기표현과 관련된 행동들이 포함되었으며, 두 번째 요인은 청소년들의 유흥행위 및 풍기문란행위와 관련된 행동들이 포함되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은 성인이나 사회규범 및 도덕에 반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행위들이 포함되었다. 이 유형들은 문제행동의 원인탐색과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각 유형별로 문제행동에 접근하는 방식이 차별화될 때 보다 효과적인 원인 탐색과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하위 유형과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의 관련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문제행동 유형별로 그 관련 요인들이 서로 달랐다. 14개 독립변수중 일부의 독립변수들은 특정 유형의 문제행동에만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 반면, 일부의 독립변수들은 모든 유형의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지 못하는 일관성을 보였고, 또 다른 일부의 독립변수들은 모든 유형의 문제행동과 일관성있게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졌다. 예컨대,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변수군 중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학교생활환경에 대한 지각과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에 속하는 문제행동 심각성 인식수준은 규범적 문제행동의 모든 유형에 걸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가족결손도는 유

홍·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해서만, 가족관계는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해서만 유의있는 관련성을 보였으며, 성은 표출형 문제행동과 유홍풍속형 문제행동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으나, 권위도전형 문제행동과는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문제행동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지지만, 그 관련성의 방향이 문제행동의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 독립변수도 있었다 예컨대, 표출적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자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던 반면,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에서는 반대로 남자가 여자보다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

이 결과들은 앞서 밝혔듯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보다 세부적인 유형으로 분류되고, 그 분류된 유형에 따라 달리 접근될 때, 보다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원인탐색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중의 하나는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들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효과와 비교하여 사회적·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들이 설명효과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설명효과는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설명효과보다 월등히 컸으며,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 역시 투입된 독립변수의 수를 감안한다면, 결코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비교하여 과소평가될 수 없었다.

이처럼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과 사회적·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을 대별하여 비교하는 이유는 전자가 비교적 통제불가능한 개인적 특성 내지 환경적 특성 변수들을 포함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와 비교하여 비교적 통제가능한 변수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청소년 문제행동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문제행동의 발생원인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고정 불변하는 개인의 지적 특성 및 성격적 특성에서 찾아 왔다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관성적으로 환경적 변수 즉, 문제의 환경을 찾는 경향이 있어 왔다 하지

만 문제의 환경→문제행동의 공식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그 둘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또 다른 설명변수인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의 효과를 검토하지 못하여 결국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기에 부적절한 연구모형을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환경적 변수들은 거시적이지만 추상적인 시사점만을 제공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은 정책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 변인 역시 개선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청소년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환경을 단속하거나 정비하여 얻은 효과를 확인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유해환경은 현실공간을 떠나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어 환경 단속과 정비 효과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환경을 정비하거나 단속함으로써 청소년 문제행동을 개선할 있다는 생각은 마치 청소년들이 환경에 노출만 되면 바로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문제청소년이 될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마치 청소년은 아무런 판단이나 문제의식 혹은 통제력이 전혀 없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결국 이 모든 질문들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는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와 함께 청소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개인적 특성요인을 탐색함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대로 지나치게 청소년 문제행동을 고정 불변하는 개인의 지적 특성 및 성격적 특성에서 찾게 되면, 청소년 문제행동을 연구하다가 ‘문제청소년’을 낙인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컨대, 지능이나 성격적 특성별 문제행동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는 연구자나 일반인에게 흥미를 줄 수 있으나 그 결과가 청소년 문제행동 개선에 관심이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러한 연구들은 특정 부류의 청소년들에게 문제청소년이거나 문제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 포함시킨 문제행동관련 사회적 통제요인과 개인적 통제요인들은 비교적 낙인의 효과를 배제할 수 있으면서도 청소년 문제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들로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청소년 문제행동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과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맺고 있었다. 하지만, 그 관련성은 본 연구에서 또 다른 독립변수로 포함시킨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설명효과와 비교하여 그리 큰 설명력을 가지지는 못했으며, 특히 사회적 통제요인 변수군과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의 설명효과를 통제했을 때에는 그 관련성의 크기가 크게 축소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통제요인과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을 독립변수로 포함시킨 것은 이 변수들이 인구학적 특성 및 환경적 변수군에 속한 변수들에 비해 비교적 통제가능하고 문제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들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제요인과 개인적 통제요인 변수군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하였던 변수는 바로 '동료와의 유대감'과 '문제행동심각성인식수준'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료 즉, 친구와의 유대감이 강할수록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강할수록 문제행동 발생빈도나 정도가 줄어든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 결과는 두 가지 점에서 납득할 수 있다 첫째는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는 달리 문제행동원인을 탐색함에 있어서 전체 문제행동이 아닌 규범적 문제행동을 다루었기 때문일 수 있다.

범죄와 같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의 경우에는 남녀노소를 막론

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료와의 강한 사회적 유대 역시 범죄를 제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문제행동은 범죄라기 보다는 사회규범과 문화에 의해 규정된 문제행동들이다. 특히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청소년에 의해 문제행동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관찰자, 즉 성인들의 판단에 의해 규정된 것들이고, 이러한 문제규정 방식은 늘 성인집단과 청소년 집단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왔다(예컨대, 두발자유화 논쟁). 따라서 성인문화 내지 성인들의 판단기준에 대해 대립되는 청소년들, 즉, 동료와의 강한 유대감은 오히려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특히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과의 사회적 유대가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또다른 간접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본 연구에서 다룬 규범적 문제행동들의 '문제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그들의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 반대의 청소년들에 비해 그 행동이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 반대의 청소년들에 비해 그 행동들을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언뜻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면밀히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해석의 요지는 그 행동들이 문제행동이지만 이를 청소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해석은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그 행동들의 문제성을 부정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단순히 이 연구결과만을 놓고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보다 더 타당한 해석인지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두 번째 해석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본 연구가 제시한 23개 규범적 문제행동들중 상당수의 행동들에 대해 그것들이 문제행동이 아닌 독특한 청소년 문화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이고 어디서부터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없는 청소년 문화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아직도 판단을 유보하면서 진행형으로 둘 필요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둘러싸고 왕왕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 갈등의 대부분은 특정 행동을 놓고 그 문제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성급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낙관적이고도 실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것은 비록 청소년들이 불리하거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그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고한 사회적 연대망이 형성된다면, 그리고 그들이 문제행동에 대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회규범의 존재가치와 필요성을 강요가 아닌 납득에 의해 수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청소년 문제행동의 발생원인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문제에서도 비롯된다는 책임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만 있다면, 청소년 문제행동은 보다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성인과 청소년 모두 인식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혜(1995). 청소년 비행의 개념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권소정(2001). 청소년 문화와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윤아(1997). 실업계 여고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및 가출 유형분석.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섭·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 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선미(1995).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애(1996).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반사회적 행동 형사정책연구 7.
- 김성민(1994).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일고찰.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이(1983). 사회일탈 행위자 및 범법행위자의 세계에 관한 연구. 성심여대 논문집 제4집.
- 김유미(1987) 귀인성향,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해외 귀국 학생과 일반학생의 대비를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규(1996). 심리적 반발심과 동조성 및 임상적 경향성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세(1991). 청소년 문제와 그 대책. 아동과 청소년. 제7집. 부산시 아동. 청소년회관
- 김준호(1989).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측정. 청소년 범죄 연구. 제7집 173-193
- 김준호(1990) 청소년 비행의 연구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 김순형(1992)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 김은경(1995)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 박미성(1993)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 이성식(1987).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2. 117-146
- 김하연(1991). 청소년의 자아개념.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 비행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나경란(1996).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행충동에 미치는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재봉(1992).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재봉(1992).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원인 변인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3. 4 합병호).
- 도종수 외(1990)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문은영(1993).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수홍(1998).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종화(1996). 정상. 비행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통제부위신념에의 차이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경임 · 서동인(1993).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5. 45-61
- 백연화(1999). 가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삼성복지재단(1994). 10대 청소년의 생활세계. 삼성복지재단

- 서지혜(2000).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우엽(1982). 귀인이론이 교육에 주는 시사. 춘천교육대학 논문집, 제 22집
- 안재정(1982). 청소년 비행과 실태. 서울: 한국기독교청소년 선교회 출판부.
-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혜경(1986).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원(1997). 청소년 비행의 통제요인과 유발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문용(1975). 비행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의 역할.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1995).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용(1985).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원(1992). 일탈행동이론의 통합 모형 구성을 위한 일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훈구·송인섭(1979). 청소년 비행의 사회심리학적 측면. 행동과학연구, 제12권.
- 장영희(1995). 청소년의 음주·흡연과 학생생활과의 관계.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우식(1986). 청소년 문제, 그 실상과 대책. 삼성출판사.
- 조정문(198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비행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명숙(1993). 귀인성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정웅 외(2000) 현안 청소년문제 분석연구: 청소년 사이버 일탈과 비행이론의 적용 한국청소년개발원
- 천정웅(1999) IT시대의 N세대: 정보일탈과 사이버 참여 청소년행동연구. 제 5집. 52-74 대구: 경산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 최난숙(1997)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매력평가와 도덕판단 및 비행.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1998) 청소년학개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Allport, G W (1953). *Attitud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Clark University
- Benda, B., & Whiteside, L.(1995). testing an intergrated model of delinquency using LISREL,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1, 1-32
- Berndt, T. J., & Ladd, G. W.(1989).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Brissett, S, & Nowicki, M.(1973)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nd reaction to frust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35-44.
- Brown, B. B., Clasen, D. R., & Eicher. S A (1986).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21-530.
- Carman, R. S.(1974)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lcohol use and adjustment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rural communit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 129-133.
- Cohen, A. K. (1955).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Gang*, New York' Free Press.

- Craven, D. (1987). Criminal Careers: The role of the Adolescent Peer Group, ph, d. di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 Eisenman, R.(1993)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felons in a prison treatment program, *Adolescence*, 28, 695-699.
- Elliot, M, & Merrill, F.(1950) *Social Disorganization*, New York: Happer & Brothers.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es*, New York: Norton.
- Foster, J. D., Dintz, S., & Reckless, W. C. (1972). Perceptions of Stigma following Public intervention for Delinquent Behavior, *Social Problems*, 20, 202-209.
- Free, M. D. (1991).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oken Home and Juvenile Delinquency: A Critique of the Current Literature, *Deviant Behavior*, 12, 109-167.
- Glueck, S., & Glueck, E.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Glynn, T. J. (1981). From Family to peer: A Review of transitions of influence among drug-using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363-385.
- Hagan, J., J. Simpson, & A. R. Gills(1987). Class int the Household: A 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788-816.
-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Wiley
- Hinderang, M. J. (1973). Causes of delinquency: 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Problems*, 20, 471-487.
- Hinderlang, J.(1970) The commitment of delinquents to their

- misdeeds: do delinquents drift?: *Social Problems*, 17(1), 502-509
- Hirschi T (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rowitz, I A, & Bordens, K S (1995). *Social Psychology*, California: Mafield Publishing Company
- Huba, G H, & Bentler, P M. (1980) The role of peer and adult model for drug taking at different stage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449-465.
- Jensen, G F.(1972). Delinquency and adolescent self-conception: A study of the personal relevance of infration, *Social Problems*, 20, 84-102.
- Kelly, K, & Pink, W. T. (1973) School Commitment, Youth Rebellion, and Delinquency, *Criminology*, 10, 473-485.
- Kelly. T. (1983). Status offenders can be different: A Comparative Study of Delinquent Careers, *Crime and Delinquency*, 365-380.
- Larzelere, R. E, & Patterson. G. R. (1990). Parental Management : Mediator of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Early Delinquency, *Criminology*, 28, 301-323.
- Loeber, R, & Dishion, T.(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 68-91
- Merton, R. (196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Social Theory and social Review, New York: Free Press.
- Newman, P. R., & Newman, B. M. (1976). Early adolescence and it's conflict: Group identity vs alienation *Adolescence*, 10,

127-136

- Nye, F. I. (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 Patterson, G. R. (1986). Performance models for antisocial boys, *American Psychologist*, 41, 432-444.
- Rosen, L. (1970). Family and Delinquency : Structure or Function?, *Criminology*, 23(3), 553-573
- Shaw C, & McKay, H. D. (1942). *Juvenile delinquency in urban area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Stern, R. S. (1964). *Delinquent Conduct and Broken Homes*, New Haven: Colleague & University Press.
- Sutherland, E. 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4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 Toby, J. (1964). The differential Impact of Family Disorgan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 505-512.
- Venezia, P. S. (1971). Delinquency prediction: A critique and sugges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8, 108-117.
- Vinter, R. D, & Sarri, R. C. (1965). Malperformance in the Public School: A Group Work Approach, *Social Work*, 10, 3-13.
- Waldo, G. P., & Chiricos, T. G. (1972). Perceived penal sanctions and self-reported criminality: A neglected approach deterrence research, *Social Problems*, 19, 522- 540

공 백

부 록

공 백

<부록 I> 본조사 설문지

전국 청소년 생활·행동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행동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청소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아래의 응답요령에 따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요령>

1. 모든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하나만 골라서 해당번호에 ○표로 표시해 주십시오.
-예: 당신의 성별은? 1. 남 자 ☒ 여 자
2. 응답해야할 항목이 많으므로 한 문항에 대하여 너무 시간을 끌지말고 생각나는 대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소: 13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홈 페이지: <http://www.youthnet.re.kr>

Q 9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종교입니까?

1. 종교가 없다 2. 기독교(신교·교회) 3. 카톨릭(구교·성당)
4. 불 교 5. 유 교 6. 기타 다른 종교

Q 10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으로)

	중 학 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졸 업	전 문 대 (2년)졸업	대 학 교 (4년)졸업	대 학 원 졸 업
1) 아버지	1	2	3	4	5
2) 어머니	1	2	3	4	5

Q 11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아래의 <보기>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해당되는 직업이 없으면 가장 유사한 직업으로).

- 1) 아버지 ()
2) 어머니 ()

<보 기>

- | |
|---|
| 1 무직 또는 정년퇴직자 |
| 2 가사활동 |
| 3 농업·어업 |
| 4 경영·관리직: 3급이상 공무원, 기업체의 임원·관리직, 장상급 군인 |
| 5 사무·행정직: 회사·관청·단체의 중간간부·일반직원, 군인, 경찰 |
| 6 교육자: 초·중·고교 교사, 학원 강사 등 |
| 7 전문직: 대학교수, 판·검사, 의사, 연구원, 회계사, 성직자 등 |
| 8 기술직: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건축가, 파일러트 등 |
| 9 자영업: 슈퍼마켓, 전자대리점, 정비소, 주유소, 식당, 목재소 등 경영자 |
| 10 서비스직: 요리사, 이발사, 미용사, 웨이터 등 |
| 11 판매·영업직 세일즈맨, 외판원, 상점 점원 등 |
| 12 생산·기능직: 공장 근로자, 건설 작업자, 운전기사, 경비원 등 |

Q 12.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기집의 생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못 사는 편 2. 중간보다 못 사는 편 3. 중간 수준
4. 중간보다 잘 사는 편 5. 매우 잘 사는 편

Q 13. 당신은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다음 각각의 문제에 관하여 고민/걱정 거리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고민/걱정 거 리 가 “없 다”	고민/걱정거리가 “있 다”		
		보 통 수준이다	심각하다	매 우 심각하다
1) 공부·학교성적 문제	1	2	3	4
2) 진학·진로 문제	1	2	3	4
3) 가정의 경제적 형편	1	2	3	4
4) 부모님과 관계	1	2	3	4
5) 이성친구 문제	1	2	3	4
6) 성(sex)과 관련된 문제	1	2	3	4
7) 친구와의 관계	1	2	3	4
8) 자신의 성격	1	2	3	4
9) 자신의 외모/체격 문제	1	2	3	4
10) 종교·인생관 문제	1	2	3	4

Q 14. 당신은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주로 누구와 상의하니까?

1. 아 버 지 2. 어 머 니 3. 형제·자매
4. 선 생 님 5. 친구나 선후배 6. 상담기관(전화/인터넷 상담 포함)
7. 기타 다른 사람 8. 상의할 사람(곳)이 없다

Q 15. 현재 자신의 생활을 평가할 때 다음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불만을 느끼십니까?

	매우 불만이다	불 만 이 다	그 저 그렇다	만 족 한 다	매우 만족한다
1) 가정생활 전반	1	2	3	4	5
2) 부모님과의 관계	1	2	3	4	5
3) 학교생활 전반	1	2	3	4	5
4) 선생님과 관계	1	2	3	4	5
5) 친구들과의 관계	1	2	3	4	5

Q 16. 현재 자신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1. 전혀 행복하지 않다 2. 행복하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Q 17. 당신이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몇 정도입니까?

1. 없 다 2. 1 명 3. 2~3명 4. 5~9명 5. 10명 이상

Q 18. [앞문항의 2~5번 응답자만] 그 중에는 이성친구도 있습니까?

1. 없 다 2. 있 다

Q 19.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설명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주십시오.

	전 혀 없 다	그 렇 다	그 저 그 렇 다	그 렇 지 않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자신이 비행소년(녀)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부모님은 나를 비행소년(녀)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 선생님들은 나를 비행소년(녀)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친구들은 나를 비행소년(녀)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Q 20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정도였습니까?(단, 학교성적, 공부와 관련된 처벌은 제외)

	전 혀 없 다	1번	2번	3-4번	5 번 이 상
1) 부모님께 심한 꾸중을 들었다	1	2	3	4	5
2) 부모님께 매를 맞았다	1	2	3	4	5
3) 선생님께 심한 꾸중을 들었다	1	2	3	4	5
4) 선생님께 매를 맞았다	1	2	3	4	5

Q 21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청소년 자신의 문제 | 2. 가정교육/가정환경 |
| 3. 교육제도/학교환경 | 4. 지역사회(동네) 환경 |
| 5. 사회적 여건/환경 | 6. 친구/선후배 관계 |

Q 22. 당신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없 다
1) 학교에서 훈계 처분을 받았다	1	2
2) 학교에서 교내봉사/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1	2
3) 학교에서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다	1	2
4)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훈방되었다	1	2
5) 검찰에 송치되어 훈방 또는 처분을 받았다	1	2

Q 23.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1) 담배를 피우는 것	1	2	3	4	5
2) 술을 마시는 것	1	2	3	4	5
3) 성인용 음란/포르노물(비디오/만화 등)을 보는 것	1	2	3	4	5
4) 성인용 폭력/잔혹물(비디오/만화 등)을 보는 것	1	2	3	4	5
5)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하는 것	1	2	3	4	5
6) 짙은 화장을 하고 외출하는 것	1	2	3	4	5
7) 귀걸이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	1	2	3	4	5
8) PC방을 이용하는 것	1	2	3	4	5
9) 체중조절을 위한 특수식품/약 복용 또는 끼니 굶기	1	2	3	4	5
10) 선인전용 노래방을 이용하는 것	1	2	3	4	5
11) 디스코텍/나이트클럽을 이용하는 것	1	2	3	4	5
12) 성인용 술집(호프집/단란주점 등)을 이용하는 것	1	2	3	4	5
13) 비디오방을 이용하는 것	1	2	3	4	5
14)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갖는 것	1	2	3	4	5
15) 이성친구와 포옹/키스 등의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	1	2	3	4	5
16) 다른 사람과 심한 말다툼을 하는 것	1	2	3	4	5
17) 부모님께 거짓으로 용돈을 타서 사용하는 것	1	2	3	4	5
18) 부모님이나 가족의 돈/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는 것	1	2	3	4	5
19) 시험볼 때 컨닝하는 것	1	2	3	4	5
20) 학교를 무단결석하는 것	1	2	3	4	5
21) 부모님 허락없이 밖에서 자는 것	1	2	3	4	5
22) 부모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	1	2	3	4	5
23) 선생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	1	2	3	4	5
24) 가출하는 것	1	2	3	4	5

Q 24. 다음의 문항들은 당신과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중 당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전 그렇 지 않	허 그렇 다	그 렇 지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 이 다	매 우 그 렇 다
1)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부모님이 반대 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1	2	3	4	5	
2) 나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 부모님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 두렵다	1	2	3	4	5	
3) 나로 인해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1	2	3	4	5	
4)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선생님이 반대 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1	2	3	4	5	
5) 나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 선생님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 두렵다	1	2	3	4	5	
6) 나로 인해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1	2	3	4	5	
7) 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친구가 부탁 하면 거절하기 힘들다	1	2	3	4	5	
8)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급적 친구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4	5	
9) 나로 인해 친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1	2	3	4	5	
10)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	1	2	3	4	5	

Q 25. 다음의 문항들은 가족의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전 그렇지 않 다	허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조상의 제사를 빠지지 않고 모신다	1	2	3	4	5
2) 우리 가정은 자식을 위해서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1	2	3	4	5
3) 우리 집에서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는 것은 곧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1	2	3	4	5
4) 우리 집에서는 조상의 업적이나 행적을 자랑스러워한다	1	2	3	4	5
5) 우리 집 식구들은 나에게 예절을 지키도록 가르친다	1	2	3	4	5

Q 26.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전 그렇지 않 다	허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도 친구들이 하자고 하면 해야한다	1	2	3	4	5
2) 나는 내 할 일이 있을 때도 친구들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자고 하면 뿌리칠 수 없다	1	2	3	4	5
3) 나는 친구를 의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많다	1	2	3	4	5
4)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튀기보다는 평범하게 지내고 싶다	1	2	3	4	5
5) 좋은 친구관계를 위해서는 나의 주장과 개성을 자제해야 한다	1	2	3	4	5

Q 27. 다음의 문항은 귀하가 현재의 사회규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전 그렇지 않 다	허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도덕이나 관습이라도 지켜져야 한다	1	2	3	4	5
2)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해서 앞으로 뭘 믿고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다	1	2	3	4	5
3)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은 없다	1	2	3	4	5
4) 현재 사회가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없다	1	2	3	4	5

Q 28. 다음의 문항들은 가정 분위기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전 그렇지 않 다	허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시다	1	2	3	4	5
2) 우리 집 형제자매들은 사이가 좋다	1	2	3	4	5
3) 우리 집 형제자매들은 경쟁적인 관계이다	1	2	3	4	5
4) 우리집의 친척관계는 원만하다	1	2	3	4	5
5) 우리 집 식구들은 함께 있으면 즐겁다	1	2	3	4	5
6)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믿는다	1	2	3	4	5

Q 29. 부모님에 관한 다음의 설명을 읽고 당신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 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전 그렇지 않 다	허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나의 일상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하신다	1	2	3	4	5
2) 부모님은 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	1	2	3	4	5
3) 나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1	2	3	4	5
4) 어른이 된다면 나도 부모님같이 되고 싶다	1	2	3	4	5

Q 30 다음은 사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전 그렇지 않 다	허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공평한 사회이다	1	2	3	4	5
2) 우리사회에는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불필요한 관습이나 규칙이 너무 많다	1	2	3	4	5
3) 우리사회에는 믿을만한 사람이 없다	1	2	3	4	5
4) 우리사회는 비합리적이다	1	2	3	4	5
5) 우리사회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	1	2	3	4	5
6) 우리사회는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많다	1	2	3	4	5
7) 우리사회는 약자를 잘 보호한다	1	2	3	4	5

Q 31. 다음의 문항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항목을 골라주십시오.

	전 그렇지 않 다	허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노력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1	2	3	4	5
2) 타고난 능력(IQ)이 있어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1	2	3	4	5
3) 부모의 능력이 있어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1	2	3	4	5
4) 가정환경이나 집안배경(빚)이 좋아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1	2	3	4	5

Q 32. 다음의 문항들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원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항목을 골라주십시오.

	전 그렇지 않 다	허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노력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1	2	3	4	5
2) 타고난 능력(IQ)이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1	2	3	4	5
3) 부모의 도움(과외교습, 학원수강 등)이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1	2	3	4	5
4)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환경이 나쁘면 공부를 잘 할 수 없다	1	2	3	4	5

Q 33 다음은 당신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전 그렇지 않 다	허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생활이 즐겁다	1	2	3	4	5
2) 나는 학교 가기가 싫다	1	2	3	4	5
3)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 따라가 기 힘들다	1	2	3	4	5
4) 학교에 다녀봤자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	1	2	3	4	5
5) 학교의 규율과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1	2	3	4	5

Q 34. 다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 했습니까?

	없다	6개월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1주일에 한두번	1주일에 3-4번
1) 담배를 피우는 것	1	2	3	4	5
2) 술을 마시는 것	1	2	3	4	5
3) 성인용 음란/포르노물(비디오/만화 등)을 보는 것	1	2	3	4	5
4) 성인용 폭력/잔혹물(비디오/만화 등)을 보는 것	1	2	3	4	5
5)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하는 것	1	2	3	4	5
6) 짤은 화장을 하고 외출하는 것	1	2	3	4	5
7) 귀걸이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	1	2	3	4	5
8) PC방을 이용하는 것	1	2	3	4	5
9) 체중조절을 위한 특수식품/약 복용 또는 끼니 굶기	1	2	3	4	5
10) 성인전용 노래방을 이용하는 것	1	2	3	4	5
11) 디스코텍/나이트클럽을 이용하는 것	1	2	3	4	5
12) 성인용 술집(호프집/단란주점 등)을 이용하는 것	1	2	3	4	5
13) 비디오방을 이용하는 것	1	2	3	4	5
14)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갖는 것	1	2	3	4	5
15) 이성친구와 포옹/키스 등의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	1	2	3	4	5
16) 다른 사람과 심한 말다툼을 하는 것	1	2	3	4	5
17) 부모님께 거짓으로 용돈을 타서 사용하는 것	1	2	3	4	5
18) 부모님이나 가족의 돈/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는 것	1	2	3	4	5
19) 시험볼 때 컨닝하는 것	1	2	3	4	5
20) 학교를 무단결석하는 것	1	2	3	4	5
21) 부모님 허락없이 밖에서 자는 것	1	2	3	4	5
22) 부모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	1	2	3	4	5
23) 선생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	1	2	3	4	5
24) 가출하는 것	1	2	3	4	5

<부록 II> 예비조사 설문지(청소년용)

전국 청소년 생활·행동관련 의식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행동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청소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아래의 응답요령에 따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요령>

1. 모든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하나만 골라서 해당번호에 ○표로 표시해 주십시오.
-예: 당신의 성별은? ☒ 남 자 2 여 자
2. 응답해야할 항목이 많으므로 한 문항에 대하여 너무 시간을 끌지말고 생각나는 대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소: 13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홈페이지 <http://www.youthnet.re.kr>

Q 9. 아래에 제시된 각 행동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에 기입해 주십시오

< 보 기 >

1.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해서는 안 될 문제행동이다.
 2. 성인은 개인이 알아서 할 행동이지만,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될 문제행동이다.
 3.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모두 자신이 알아서 할 행동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

- | | | |
|-----|-------------------------------|--------|
| 1) | 담배를 피우는 것 | () |
| 2) | 술을 마시는 것 | () |
| 3) | 음란/포르노물(비디오/만화 등)을 보는 것 | () |
| 4) | 폭력/잔혹물(비디오/만화 등)을 보는 것 | () |
| 5) |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하는 것 | () |
| 6) | 짙은 화장을 하고 외출하는 것 | () |
| 7) | 귀걸이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 | () |
| 8) | 체중조절을 위한 특수식품/약 복용 또는 끼니 굶기 | () |
| 9) | PC방을 이용하는 것 | () |
| 10) | 성인전용 노래방을 이용하는 것 | () |
| 11) | 디스코텍/나이트클럽을 이용하는 것 | () |
| 12) | 술집(호프집/단란주점 등)을 이용하는 것 | () |
| 13) | 비디오방을 이용하는 것 | () |
| 14) | 사창가를 배회하는 것 | () |
| 15) | 이성친구(부부 이외의) 성관계를 갖는 것 | () |
| 16) | 이성친구와 포옹/키스 등의 성적 접촉을 가지는 것 | () |
| 17) | 다른 사람과 심한 말다툼을 하는 것 | () |
| 18) | 부모님께 거짓으로 용돈을 타서 사용하는 것 | () |
| 19) | 부모님이나 가족의 돈/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는 것 | () |
| 20) | 부모님 허락없이 밖에서 자는 것 | () |
| 21) | 부모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 | () |
| 22) | 가출하는 것 | () |
| 23) | 버스/지하철 등에서 이성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 | () |
| 24) | 이성에게 금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갖는 것 | () |
| 25) | 이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 | () |
| 26) |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 | () |
| 27) | 집단 패싸움에 참여하는 것 | () |
| 28) | 백화점/가게 등 상점의 물품을 몰래 훔치는 것 | () |
| 29) |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치는 것 | () |
| 30) |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강제로 뺏는 것 | () |
| 31) | 공공장소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것 | () |
| 32) | 여러 사람이 있는 공공장소에 소란을 피우는 것 | () |

- 33) 본드/니스/진정제 등 환각성 약물을 흡입하는 것 ()
- 34) 대마초/엑스타시 등 환각성 마약을 흡입하는 것 ()
- 35) 자살을 시도하는 것 ()
- 36) 인터넷을 통해 음란/포르노물을 보는 것 ()
- 37) 채팅/메일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 ()
- 38) 음란한 내용의 게임을 하는 것 ()
- 39) 폭력적/잔혹한 내용의 사이트를 열람하는 것 ()
- 40)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것 ()
- 41) 폭력적/잔혹한 내용의 게임을 하는 것 ()
- 42) 불법 소프트웨어를 입수하여 사용하는 것 ()
- 43) 인터넷상으로 특정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 ()
- 44) 다른 사람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사용하는 것 ()
- 45) 다른 사람의 컴퓨터/웹사이트를 고의로 해킹하는 것 ()
- 46) 인터넷을 통하여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 ()
- 47) 고의로 바이러스/스팸메일(폭탄메일)을 발송하는 것 ()
- 48) 자살/폭탄제조 등 반사회적 사이트를 열람하는 것 ()
- 49)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받을 정도로 인터넷에 몰입하는 것 ()

Q 33. 다음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아래의 <보기>를 이용하여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보 기>

1. 성인은 개인이 알아서 할 행동이지만, 청소년이 해서는 안될 문제행동이다.
2.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모두 자신이 알아서 할 행동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

- 1) 시험볼 때 컨닝하는 것 ()
- 2) 학교를 무단결석하는 것 ()
- 3) 선생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 ()
- 4)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것(왕따) ()

<부록 III> 예비조사 설문지(학부모용)

전국 청소년 생활·행동관련 의식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행동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청소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아래의 응답요령에 따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소: 13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홈페이지: <http://www.youthnet.re.kr>

- 21) 부모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 ()
- 22) 가출하는 것 ()
- 23) 버스/지하철 등에서 이성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 ()
- 24) 이성에게 금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갖는 것 ()
- 25) 이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 ()
- 26)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 ()
- 27) 집단 패싸움에 참여하는 것 ()
- 28) 백화점/가게 등 상점의 물품을 몰래 훔치는 것 ()
- 29)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치는 것 ()
- 30)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강제로 뺏는 것 ()
- 31) 공공장소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것 ()
- 32) 여러 사람이 있는 공공장소에 소란을 피우는 것 ()
- 33) 본드/니스/진정제 등 환각성 약물을 흡입하는 것 ()
- 34) 대마초/엑스타시 등 환각성 마약을 흡입하는 것 ()
- 35) 자살을 시도하는 것 ()
- 36) 인터넷을 통해 음란/포르노물을 보는 것 ()
- 37) 채팅/메일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 ()
- 38) 음란한 내용의 게임을 하는 것 ()
- 39) 폭력적/잔혹한 내용의 사이트를 열람하는 것 ()
- 40)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것 ()
- 41) 폭력적/잔혹한 내용의 게임을 하는 것 ()
- 42) 불법 소프트웨어를 입수하여 사용하는 것 ()
- 43) 인터넷상으로 특정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 ()
- 44) 다른 사람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는 것 ()
- 45) 다른 사람의 컴퓨터/웹사이트를 고의로 해킹하는 것 ()
- 46) 인터넷을 통하여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 ()
- 47) 고의로 바이러스/스팸메일(폭탄메일)을 발송하는 것 ()
- 48) 자살/폭탄제조 등 반사회적 사이트를 열람하는 것 ()
- 49)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 받을 정도로 인터넷에 몰입하는 것 ()

Q 6 다음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아래의 <보기>를 이용하여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보 기>

1. 성인은 개인이 알아서 할 행동이지만, 청소년이 해서는 안될 문제행동이다.
2.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모두 자신이 알아서 할 행동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

- 1) 시험볼 때 컨닝하는 것 ()
- 2) 학교를 무단결석하는 것 ()
- 3) 선생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 ()
- 4)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것(왕따) ()

<부록 IV> 예비조사 설문지(교사용)

전국 청소년 생활·행동관련 의식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행동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청소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아래의 응답요령에 따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소: 13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홈페이지: <http://www.youthnet.re.kr>

- 21) 부모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 ()
- 22) 가출하는 것 ()
- 23) 버스/지하철 등에서 이성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 ()
- 24) 이성에게 금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갖는 것 ()
- 25) 이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 ()
- 26)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 ()
- 27) 집단 패싸움에 참여하는 것 ()
- 28) 백화점/가게 등 상점의 물품을 몰래 훔치는 것 ()
- 29)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치는 것 ()
- 30)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강제로 뺏는 것 ()
- 31) 공공장소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것 ()
- 32) 여러 사람이 있는 공공장소에 소란을 피우는 것 ()
- 33) 본드/니스/진정제 등 환각성 약물을 흡입하는 것 ()
- 34) 대마초/엑스타시 등 환각성 마약을 흡입하는 것 ()
- 35) 자살을 시도하는 것 ()
- 36) 인터넷을 통해 음란/포르노물을 보는 것 ()
- 37) 채팅/메일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 ()
- 38) 음란한 내용의 게임을 하는 것 ()
- 39) 폭력적/잔혹한 내용의 사이트를 열람하는 것 ()
- 40)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것 ()
- 41) 폭력적/잔혹한 내용의 게임을 하는 것 ()
- 42) 불법 소프트웨어를 입수하여 사용하는 것 ()
- 43) 인터넷상으로 특정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 ()
- 44) 다른 사람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사용하는 것 ()
- 45) 다른 사람의 컴퓨터/웹사이트를 고의로 해킹하는 것 ()
- 46) 인터넷을 통하여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 ()
- 47) 고의로 바이러스/스팸메일(폭탄메일)을 발송하는 것 ()
- 48) 자살/폭탄제조 등 반사회적 사이트를 열람하는 것 ()
- 49)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받을 정도로 인터넷에 몰입하는 것 ()

Q 6 다음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아래의 <보기>를 이용하여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보 기>

- 1 성인은 개인이 알아서 할 행동이지만, **청소년이 해서는 안될 문제행동이다.**
- 2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모두 자신이 알아서 할 행동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

- 1) 시험볼 때 컨닝하는 것 ()
- 2) 학교를 무단결석하는 것 ()
- 3) 선생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 ()
- 4)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것(왕따) ()

<부록 V>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요인의 집단비교

[부록표 V-1] 부모와의 유대감의 집단비교

독립변수		N	M	SD	F	사후검증
성별	남	882	11.10	2.49	0.774	-
	여	954	11.20	2.28		
학교급별	중학교	787	11.13	2.45	7.236***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659	11.39	2.24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390	10.81	2.45		일반고-실업고*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272	11.41	2.36	3.867*	상층-중간층
	중간층	1251	11.17	2.35		상층-하층*
	하층	169	10.76	2.64		중간층-하층
지역별	서울	382	11.03	2.45	2.750*	서울-대도시
	대도시	731	11.28	2.16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478	11.23	2.52		서울-농어촌
	농어촌	245	10.82	2.61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p < .05, **p < .01, ***p < .001

[부록표 V-2] 교사와의 유대감의 집단비교

독립변수		N	M	SD	F	사후검증
성별	남	881	9.25	3.02	2.875	-
	여	956	9.02	2.90		
학교급별	중학교	787	9.34	3.09	3.556*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660	8.99	2.89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390	8.94	2.77		일반고-실업고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271	9.63	2.91	5.389**	상층-중간층*
	중간층	1254	8.99	2.94		상층-하층
	하층	170	9.05	3.06		중간층-하층
지역별	서울	381	8.77	2.99	3.410*	서울-대도시
	대도시	730	9.17	2.88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480	9.40	3.03		서울-농어촌
	농어촌	246	9.04	2.95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p < .05, **p < .01, ***p < .001

[부록표 V-3] 동료와의 유대감의 집단비교

독립변수		N	M	SD	F	사후검증
성별	남	880	14.55	3.23	4.679*	-
	여	949	14.84	2.66		
학교급별	중학교	781	14.53	3.17	5.618**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660	15.01	2.72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388	14.53	2.85		일반고-실업고*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271	14.99	2.95	1.671	상층-중간층
	중간층	1247	14.62	2.95		상층-하층
	하층	168	14.67	2.92		중간층-하층
지역별	서울	380	14.52	3.01	1.159	서울-대도시
	대도시	728	14.82	2.80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475	14.75	3.09		서울-농어촌
	농어촌	246	14.54	3.02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p < .05, **p < .01, ***p < .001

[부록표 V-4] 문제심각성 인식도의 집단비교

독립변수		N	M	SD	F	사후검증
성별	남	861	83.14	14.45	3.080	-
	여	937	81.97	13.88		
학교급별	중학교	766	87.71	14.72	99.778***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651	79.03	12.98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381	78.08	11.35		일반고-실업고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268	85.11	15.04	7.639***	상층-중간층*
	중간층	1230	82.07	13.87		상층-하층*
	하층	165	80.07	13.20		중간층-하층
지역별	서울	379	80.16	14.28	4.887**	서울-대도시*
	대도시	715	82.85	13.60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466	83.91	14.76		서울-농어촌
	농어촌	238	82.47	14.06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p < .05, **p < .01, ***p < .001

[부록표 V-5] 사회규범의식의 집단비교

독립변수		N	M	SD	F	사후검증
성별	남	878	12.47	1.99	1.875	-
	여	949	12.59	1.79		
학교급별	중학교	779	12.59	1.86	0.667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657	12.48	1.94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391	12.51	1.83		일반고-실업고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271	12.44	1.96	0.451	상층-중간층
	중간층	1244	12.53	1.87		상층-하층
	하층	169	12.61	1.84		중간층-하층
지역별	서울	382	12.39	1.77	3.293*	서울-대도시
	대도시	722	12.46	1.89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476	12.62	1.95		서울-농어촌
	농어촌	247	12.81	1.90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p < .05, **p < .01, ***p < .001

[부록표 V-6] 표출형 문제행동수준의 집단비교

독립변수		N	M	SD	F	사후검증
성별	남	883	12.87	1.98	394.265***	-
	여	949	15.53	3.49		
학교급별	중학교	785	13.72	2.81	37.086***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660	14.21	3.15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387	15.38	3.53		일반고-실업고*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271	14.28	3.31	0.096	상층-중간층
	중간층	1249	14.25	3.14		상층-하층
	하층	168	14.37	3.21		중간층-하층
지역별	서울	384	14.96	3.51	8.496***	서울-대도시*
	대도시	726	14.09	3.15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478	13.99	2.91		서울-농어촌*
	농어촌	244	14.08	2.92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p < .05, **p < .01, ***p < .001

[부록표 V-7]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수준의 집단비교

독립변수		N	M	SD	F	사후검증
성별	남	881	47.87	8.37	73.865***	-
	여	948	44.50	8.40		
학교급별	중학교	786	42.46	6.90	169.416***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655	47.73	8.42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388	50.85	8.68		일반고-실업고*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270	44.87	7.94	10.841***	상층-중간층
	중간층	1248	46.06	8.58		상층-하층*
	하층	168	48.72	8.60		중간층-하층*
지역별	서울	383	45.84	8.62	2.546	서울-대도시
	대도시	727	46.64	8.65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475	45.35	8.34		서울-농어촌
	농어촌	244	46.55	8.49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p < .05, **p < .01, ***p < .001

[부록표 V-8]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수준의 집단비교

독립변수		N	M	SD	F	사후검증
성별	남	868	45.40	7.84	1.780	-
	여	940	45.89	7.89		
학교급별	중학교	776	43.48	6.72	66.625***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651	46.45	7.82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381	48.73	8.80		일반고-실업고*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267	44.80	7.65	4.303*	상층-중간층
	중간층	1233	45.61	7.80		상층-하층*
	하층	168	47.05	8.09		중간층-하층
지역별	서울	380	46.46	8.18	1.935	서울-대도시
	대도시	715	45.61	7.82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473	45.25	7.77		서울-농어촌
	농어촌	240	45.29	7.65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p < .05, **p < .01, ***p < .001

[부록표 V-9]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수준의 집단비교

독립변수		N	M	SD	F	사후검증
성별	남	860	106.06	15.23	0.083	-
	여	923	105.84	17.13		
학교급별	중학교	766	99.64	13.32	140.020***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643	108.24	15.73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374	114.91	17.28		일반고-실업고*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262	103.71	15.19	7.950***	상층-중간층
	중간층	1220	105.84	16.24		상층-하층*
	하층	164	110.07	16.35		중간층-하층*
지역별	서울	377	107.251	16.99	2.220	서울-대도시
	대도시	704	106.301	16.25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465	104.47	15.68		서울-농어촌
	농어촌	237	105.71	15.92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p < .05, **p < .01, ***p < .001

[부록표 V-10] 문제행동발생 원인지각의 집단비교

독립변수		N	M	SD	F	사후검증
성별	남	882	1.82	0.38	1.044	-
	여	961	1.84	0.37		
학교급별	중학교	789	1.83	0.37	0.737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662	1.84	0.37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392	1.81	0.39		일반고-실업고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272	1.82	0.39	0.858	상층-중간층
	중간층	1254	1.84	0.37		상층-하층
	하층	170	1.81	0.39		중간층-하층
지역별	서울	386	1.85	0.36	0.428	서울-대도시
	대도시	732	1.82	0.38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481	1.83	0.38		서울-농어촌
	농어촌	244	1.83	0.37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p < .05 ***p < .001

공 백

2001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정책연구보고서】

- 01-R01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정책 연구 (길은배 · 임순희)
- 01-R02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안재희)
- 01-R03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I - 청소년 자치활동 길잡이 (이론편) (김영지 · 이용교 · 안재희)
- 01-R04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II - 청소년 자치활동 길잡이 (사례편) (김영지 · 이용교 · 안재희)
- 01-R05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위탁기준에 관한 연구 (김영한 · 임지연 · 권일남)
- 01-R06 청소년의 문화산업 참여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이민희 · 이동연 · 김상우)
- 01-R07 유럽국가의 청소년 정책-주요 외국의 청소년 정책동향 연구 I (윤철경 · 정희옥)
- 01-R08 미국 · 일본 · 중국 · 홍콩의 청소년 정책-주요 외국의 청소년 정책동향 연구 II (윤철경 · 정희옥 · 조아미 · 박병식 · Anna Hui · Ju Qing)
- 01-R09 사이버공간을 통한 청소년 이성교제 실태연구 (오영근 · 이춘화)
- 01-R10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 I (이혜연 · 이태수 · 이서정)
- 01-R11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 II (전경숙 · 박병식 · 권소정)
- 01-R12 청소년 패널조사 기초연구 (박창남 · 김희진 · 김선엽)
- 01-R13 중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맹영임 · 김진호 · 정철영)

- 01-R14 청소년 정보봉사단 운영방안 연구 (김정주 · 김혁진 · 전명기 · 정익재)
- 01-R15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 조사 연구 (이종원 · 임성택 · 최원기 · 최종현 · 심진예)
- 01-R16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문제행동 실태분석-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이종원)
- 01-R17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임성택)
- 01-R18 청소년 법적 비행의 경향과 원인에 대한 실태연구-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최원기)
- 01-R19 청소년 정보격차 실태와 대책연구 (황진구 · 유지열 · 이종임)
- 01-R20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에 관한 연구 (이창찬)
- 01-R21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 유형 분석 (이기영)
- 01-R22 학교폭력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이장현 · 우룡)
- 01-R23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김민)
- 01-R24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김영희)
- 01-R25 성격특질과 스트레스 대처반응이 청소년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청송 · 현명호)
- 01-R26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사회 캠페인 방안 연구 (이수범)
- 01-R27 10대 여자 청소년 원조교제의 유형화와 각 유형에 따른 대처 방안 연구 (신미식)
- 01-R28 청소년기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에 관한 연구 (한상철)
- 01-R29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연구 (길은배 · 이종원 · 최원기)
- 01-R30 청소년 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경준 · 강명숙 · 서정아 · 정호연)
- 01-R31 미래를 움직이는 힘! 청소년 자원봉사(Video) (김정배 · 정익재)

- 01-R32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발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김정배 · 우정자)
- 01-R33 청소년 봉사활동 시범협력학교 운영 사업보고서 (김정배 · 우정자)
- 01-R34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도자 연수 (김정배 · 우정자)
- 01-R35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평가지표 개발 (김정배 · 우정자)
- 01-R36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연구 (이춘화 · 김성식 · 신순갑 · 정하배 · 류지영)
- 01-R37 중도 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박창남 · 임성택 · 전경숙 · 김성식)
- 01-R38 청소년 문제의 심리학적 접근 방안 연구 (임성택 · 이해연 · 김진호 · 김혜진)
- 01-R39 주5일근무(수업)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 정책방향과 대책 (함병수 · 김경준 · 김정주 · 김영지)
- 01-R40 세계청소년문화축제 발전방안 연구 (최원기 · 길은배 · 맹영임 · 이주연)
- 01-R41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생(청소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이광호 · 전명기 · 이희수 · 맹영임 · 권진화)
- 01-R42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길은배 · 이용교 · 김영지)
- 01-R43 청소년육성기금 확충 및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함병수 · 윤철경 · 김혁진 · 이해훈 · 이득영)
- 01-R44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협력 증진 방안 연구 (김정배 · 우정자)
- 01-R45 정부간 청소년교류 초청프로그램 개발 (박영균 · 윤철경 · 박호남 · 조은정)
- 01-R46 시범 청소년 수련시설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사업 (조혜영)
- 01-R47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실태 및 정책 방안 모색 연구 (이광호 · 김희진 · 장원섭 · 이해정 · 정어옥)

- 01-R48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책 연구 (이민희 · 윤옥경 · 임지연)
 01-R59 선진국의 청소년육성정책과 제도 OECD 가입국가들 중심으로
 (황진구)

【수련 프로그램 개발】

- 01-R49 고미술 이해활동 (이춘화 · 박승예)
 01-R50 만화영화 제작활동 (김영지 · 임영규)
 01-R51 인터넷신문 제작활동 (황진구 · 박기봉)
 01-R52 자동차 이해 및 체험활동 (임성택 · 임기상)
 01-R53 장애인청소년과 함께하는 활동(김희진 · 장인권)
 01-R54 강건너기 체험활동 (김진호 · 연규철)
 01-R55 생태 · 자연지도 제작활동 (임지연 · 민성환)
 01-R56 장인정신 체험 (박창남 · 김미정)
 01-R57 세계문화 체험활동 (전경숙 · 노재봉)
 01-R58 외국인 관광안내활동 (이민희 · 박기홍)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집】

- 01-S01 지식 · 정보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육성 방향모색 (2001 5.17
 토론회 자료집)
 01-S02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 (2001.7.11. 공청회자료집)
 01-S03 청소년육성기금 확충과 운영 개선 방향 (2001 9 7.워크샵자료집)
 01-S04 나는 일도 하고 싶다-청소년 시간제 취업을 중심으로
 -(2001.12 14, 청소년 일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지원을
 통한 토론회 자료집)
 01-S05 중도탈락 청소년 실태와 대책 (2001 10. 중도탈락 청소년 종합
 대책 공청회 자료집)

01-S06 2001년도 청소년 정책 개발 연찬회 자료 (2001.11.7~8, 청소년정책 개발 연찬회 자료집)

01-S07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2001.11. 세미나 자료집)

01-S08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교재 (2001. 12. 연수교재)

01-S09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직원직무 연수교재 (2001.10. 연수교재)

【학술논문집】

『한국청소년연구』 2001년 제12권 제1호 통권 33호 (2001.6.)

『한국청소년연구』 2001년 제12권 제2호 통권 34호 (2001.12.)

공 백

연구보고 01-R 17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

인 쇄 2001년 12월 15일
발 행 2001년 12월 20일
발 행 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권 이 중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주) 계 문 사
전화 (02) 736-525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연구기획부) 2188-8844(총무부)

ISBN 89-7816-375-0

공 백

연구보고 01-R 17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

연구책임자 임 성 택
연구보조원 김 혜 진

한국청소년개발원

공 백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방향	3
2. 연구문제	15
II. 이론적 배경	19
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개념과 범위	19
1) 문제행동과 규범적 문제행동	20
2) 규범적 문제행동과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23
2.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분류	27
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분류의 필요성	27
2) 기존의 문제행동 범위설정과 문제행동 유형화의 접근방식	31
3) 새로운 문제행동의 유형화 시도 : 다차원적 문제행동 분류	40
3.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관련 요인	44
1)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환경적 요인	48
2) 청소년문제행동관련 사회적 통제요인	55
3) 청소년문제행동관련 개인적 통제요인	58
III. 연구방법	67
1 조사대상	67
2 조사도구	69
1) 예비조사	69
2) 본 조사	69
3. 자료분석 방법	77

IV. 연구결과87

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심각성 인식도 87
2.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범위설정 88
3.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분류 100
4.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요인 탐색결과 102
 - 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 요인 분석 결과 104
 - 2) 연구결과 요약 111
5.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 독립변수군별 고유 설명변량의 산출 및 의의도 검증 114
 - 1)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한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 및 의의도 검증 114
 - 2) 유희·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한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 및 의의도 검증 121
 - 3)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 및 의의도 검증 128
 - 4)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독립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산출 및 의의도 검증 135
 - 5) 연구결과의 요약 141

V. 요약 및 논의147

참고문헌157

- <부록 I> 본조사 설문지 167
- <부록 II> 예비조사 설문지(청소년용) 179
- <부록 III> 예비조사 설문지(학부모용) 183
- <부록 IV> 예비조사 설문지(교사용) 186
- <부록 V>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요인의 집단비교 189

표 차 례

<표 II-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예비 목록표	41
<표 III-1> 예비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67
<표 III-2> 본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68
<표 IV-1>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인식도	87
<표 IV-2> 판단주체별 규범적 문제행동 여부 판정결과	89
<표 IV-3> 규범적 문제행동 범위 설정을 위한 분류체계	99
<표 IV-4>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화를 위한 요인분석결과 ...	101
<표 IV-5> 변수간 상관행렬표	103
<표 IV-6> 표출형 문제행동 관련요인 탐색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	104
<표 IV-7> 유희·풍속형 문제행동 관련요인 탐색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	106
<표 IV-8>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관련요인 탐색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108
<표 IV-9>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요인 탐색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	110
<표 IV-10>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관련요인 분석 결과 요약표 ..	112
<표 IV-11>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115
<표 IV-12>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 . .	117
<표 IV-13>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전체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119
<표 IV-14> 유희·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 .	122
<표 IV-15> 유희·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	124
<표 IV-16> 유희·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전체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 . .	126
<표 IV-17>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 129
<표 IV-18>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 . . 131
<표 IV-19>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전체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133
<표 IV-20>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사회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 136
<표 IV-21>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개인적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138
<표 IV-22>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인구학적특성·환경적 변수와 전체 통제요인변수군의 고유설명변량 산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140
<표 IV-23>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요인 변수군별 고유설명변량, 공통설명변량과 전체설명변량	 142
[부록표 V-1] 부모와의 유대감의 집단비교	 189
[부록표 V-2] 교사와의 유대감의 집단비교	 189
[부록표 V-3] 동료와의 유대감의 집단비교	 190
[부록표 V-4] 문제심각성 인식도의 집단비교	 190
[부록표 V-5] 사회규범의식의 집단비교	 191
[부록표 V-6] 표출형 문제행동수준의 집단비교	 191
[부록표 V-7]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수준의 집단비교	 192
[부록표 V-8]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수준의 집단비교	 192
[부록표 V-9] 전체 규범적 문제행동수준의 집단비교	 193
[부록표 V-10] 문제행동발생 원인지각의 집단비교	 193